Buddhanews.com

현대불교

제826호 2011년 3월 9일 수요일 (음력 2월 5일 · 불기 2555년 · 주간)

머리에 불붙은 것처럼 공부하라.
가시달린 쇠 채찍을 맞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뼈저리게 공부하라.
-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나도 이제 학생이에요 전국의 초 · 중 · 고교가 3월 2일 개학한 가운데 종립 초등학교인 은석초등학교(교장 김한기)도 2011학년 입학식을 갖고 128명의 신입생을 맞았다. 학부모를 비롯해 선생님과 재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학식에 참석한 새내기 학생이 합장을 하고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불교사회복지 '강 건너 불'

종립대조차 인재불자 인식 없이 인력 배출… 교육기관 특성화 등 시급

불교사회복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중생 구제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손꼽힌다. 특히 대사회 활동을 통해 포교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 불교 미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관련기사 6면〉

불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불교계 내부에서도 낮아 불교계의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표적 종립대학인 동국대조차 사회복지학과를 2007년에야 설치했다. 그러나 동국대 불교대학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에 소개된 교육 목표에는 불교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학사 과정에도 1학년 전공 기초의 '불교사회복지론'이 전부다. 불교사회복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보다는 일반적인 사회복지학과 교육과정에 가깝다. 다만 불교대학원 내 불교사회복지학과 교육목표에서만 '불교사회복지인력양성'이라는 표현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불교 · 사회복지학부'를 운영하고 있는 천태종립 금강대도 마찬가지이다. 진각종립 위덕대는 아직 사회복지학과가 없다.

반면 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는 교육목적을 안내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개신교계 숭실대학도 사회복지학과가 포함돼 있는 사회과학대학 교육 목표에 "기독교 정신을 가진 건전한 시민 양성과… 전문인력 양성함이 교육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승가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전문 승려를 배출해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실무를 담당할 재가불자 복지사를 찾기 어렵다. 결국 시설장과 실무자가 종교적 이념의 차이를 갖고 사회복지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스님들의 무관심도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열린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불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조사 결과 시절장은 58.2%가 재가불자이고, 출가자는 35.9%로 나타났다"며 불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종사하는 스님의 비율이 낮다고 밝혔다. 이 중 비구 스님은 20.8%, 비구니 스님은 15.1%로 조사됐다.

불교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종사하는 스님들은 다양한 해법들을 모색 중이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은 교육 복지를 위해 인덕원이 위치한 은평구에서 불교 인재를 양성할 유아교육기관을 구상 중이다.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건전한 불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신뢰를 통해 이웃 종교의 복지시설이 양적으로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사회복지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는 "불교사회복지는 불교에 있어 중요한 문제다. 오늘날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불교와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 철학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박기범 · 이나은 기자

조계종 정부예산 신청 안한다

"종단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국고지원 신청과 집행을 보류해달라. 단 전년도에 이어 계속 진행되는 사업과 더불어 지역 문화 · 복지 사업은 예외로 한다."

지난해 정부예산 신청 및 집행 보류를 선언한 조계종 총무원이 이 같은 종무지침을 전국 본말사에 하달했다.

조계종은 3월 3일 서울 템플스테이센터 3층에서 전국 교구본사 총무국장 회의를 열고 종무지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에서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정부 보조비에 대한 신청 및 집행 보류의 종단 기본 입장은 정부 여당의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진정성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 각 교구 본말사는 2012년 템플스테이 사업과 전통사찰 보수지원비, 문화재보수 지원비 등 국고지원을 일체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반면 2010년 지속사업과 지역 문화복지 사업은 예외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족전통문화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본말사 결의대회' 준비상황이 점검됐다.

3월 10일에는 보은 법주사 11일 직할교구 16일 쌍계사, 17일 범어사 19일 통도사, 4월 3일 동화사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제15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코이랄라 이사장

실천부문 헤티아랏치, 문학부문 모옌·이근배 공동수상


아누라다 코이랄라


모옌


이근배

네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자 네팔 인권단체 마이티 네팔 재단 이사장인 아누라다 코이랄라(62)가 제15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는 3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네팔의 성노예소녀들의 인권을 지키고 성노예에 대해 투쟁을 벌여 공로를 세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또 실천부문 대상에 스리랑카 고고학자인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랏치(72)를, 문학부문 대상에는 중국 소설가인 모옌(56)과 이근배 시인(71)을 공동 선정했다.

만해대상은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생명 · 평화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으로,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8월 12일 강원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만해축전에서 거행된다. 이나은 기자

[수상자 소개는 다음주 계속]

[현대불교신문사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관련기사 4면

'자비의 미얀마 돕기'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불기 2555년을 맞아 연중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를 전개합니다.

미얀마 돕기 캠페인은 어려운 미얀마 국민들을 보살핌으로서 불교 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을 되살리는 의미를 지닙니다. 나눔의 향기가 온세상의 무명을 밝히는데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내역은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상세히 보도합니다. 후원금은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공동우물 파기, 출가의식 지원, 기술대학 건립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지정 후원금가능). 후원물품은 미얀마문화원 봉사단이 직접 현지에 전달합니다.

담당자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11-9039-1239,
현대불교신문사 이동격 부장 010-7339-8688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국제불교지도자협회)

826호 CONTENTS

▶3 인터뷰/현장 스님
맑고 향기롭게 신임 이사장



▶5 현장속으로
법정 스님 1주기 추모법회



▶6 불교복지의 성장
성장 동력 어디서 찾을까



▶19 남진세 돌 조각전
차가운 돌에 깃든 부처님 온기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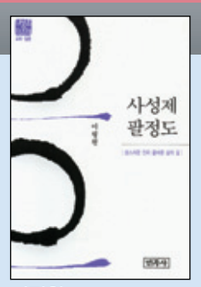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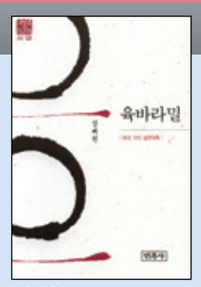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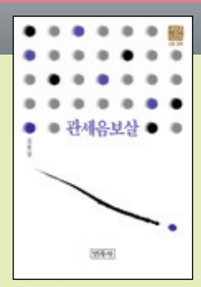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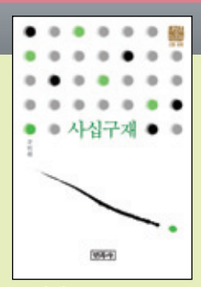
"당신과 나누고 소통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은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작은 꽃을 피운다.

내 영혼의 작은 책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비행기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다양한 주제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담아낸 실용적인
민족사 시리즈 책입니다.

교리 · 입문	교리 · 입문	수행 · 명상	수행 · 명상	신행 · 문화	신행 · 문화	신행 · 문화
사성제 · 팔정도	육바라밀	생활명상	위빠사나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사십구재
						
이필원 _ 값 6,500원	성재헌 _ 값 6,500원	김남선 _ 값 6,500원	정준영 _ 값 6,500원	김호성 _ 값 6,500원	여여법사 _ 값 6,500원	구미래 _ 값 6,500원
성스러운 진리, 올바른 삶의 길	여섯 가지 실천 덕목	내 마음 알기, 내 마음 치유하기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찾는다	나무관세음보살. 자비 실천의 모범	나무아미타불. 죽고 나서를 기약하지 마세요	고인을 떠나보내는 49일간의 마음 준비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는 〈교리 · 입문〉, 〈수행 · 명상〉, 〈신행 · 문화〉 테마별로 계속해서 출간 될 예정입니다.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 이메일: minjoksa@chol.com 홈페이지: www.minjoksa.org 민족사

자성·쇄신 결사에 신도도 한마음

포교원, 신도 대중공사 봉행… 생활서 5대 결사 실천하는 대중실천지침 눈길

조계종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 신도들의 결사 참여를 독려키 위한 행사가 출가열반절을 맞아 열린다. 출가열반절은 불교의 4대 명절(출가재일, 열반재일, 부처님오신날, 성도재일) 가운데 출자재일과 열반재일이 있는 기간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부처님 출가재일인 3월 12일부터 열반재일인 19일까지를 출가·열반재일 봉행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자성과 쇄신 5대 결사 신도 대중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중앙신도회 소속 신도조직 및 포교단체들이 참여한다. 출가열반절 동안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30분 108배 정진이, 11~12시에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를 주제로 매일 법문과 초청 강연이 진행된다.

입재일인 12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회향일인 19일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법문한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13일)·충주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14일)·서울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15일)·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16일)·서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17일)·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18일)이 법문 및 강연을 한다.

조계사 앞마당 및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5대 결사와 관련한 △기금모금 △사진전 △바자회 △무료검진 △생명나눔 행사 등 문화·나눔 행사도 열린다.

특히 신도 대중공사 기간에는 5대 결사에 관한 대중실천지침이 선언된다. 대중실천지침에는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의 5대 결사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 원력과 구체적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신도 대중공사는 조계사뿐만 아니라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도 일제히 봉행된다. 이를 위해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와 말사에 출가열반재일 정진주간 개최에 따른 지침을 발송했다. 포교원은 행사 홍보포스터와 신도들을 위한 휴대용 리플렛 등을 제작·배포했다.

포교원은 "종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5대 결사에 대해 대중공사를 통한 신도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이번 출가열반절 봉행사업을 계기로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연수를 거쳐 5대 결사에 대한 신도대중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조동섭 기자**

"강원 정비해 인재불사에 매진할 것"

수덕사 신임 주지 지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에 수덕사 부주지를 지낸 지운(只耘) 스님이 지명됐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2월 28일 임회를 소집해 25명의 임회원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운 스님을 차기 주지로 선출했다.

지운 스님은 수덕사 유나 우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9년 4월 수덕사에서 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10월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덕숭총림 선원 도감, 수덕사 승가대학 운영위원, 조계종 11~ 12대 종회의원, 보원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지운 스님은 3월 15일 옹산 스님 임기 만료 후 총무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3월 16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지운 스님은 "부족한 저에게 소임을 주신 것은 문중 화합과 행정에 중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위로는 방장 스님을 위시한 사중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들과 소통해 수덕사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지운 스님은 "그동안 해오던 불사를 잘 이어받아 총림으로서의 사격과 품위를 지키는 한편 내적 역량을 키우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강원 중심의 인원 확충과 환경 개선으로 인재불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출가 제한 철폐·고령자 수용해야"

종회의원 주경 스님, 출가종책세미나서 주장



출가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세납 50이 넘은 고령자와 청소년의 출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주경 스님은 2월 24일 조계종 교육위원회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가 개최한 출가종책세미나에서 현행 종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가 연령·학력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행 50세로 규정하고 있는 출가제한은 폐지되야 하며, 고령자출가 교육과 부적응 문제는 종단 내부의 조직과 규율을 정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청소년과 고령자 출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출가자 제도'와 만50세 이상의 재가자를 위한 '인행(因行)출가자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소년 출가제도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출가하고 행자등록을 마친 뒤 교육법에 의한 별도의 행자교육을 받는 것이다. 구족계 수지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받는다.

인행출가자 제도는 갈마위원회를 거쳐 행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며 2년간의 행자교육과 소속교구에서 4년간의 교육 후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다. 다만 인행출가자는 공직 진출과 선거·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종사 이상의 법계를 품수할 수 없다. 이 같은 주장에 고령자 출가에 찬반 입장이 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위원에 비전문가를?

조계종, 문화재청에 종책보좌관 2인 추천

조계종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추천한 4인 가운데 비전문가 2인을 포함시켜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계종은 4월 25일 임기만료 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후보자로 문화재 종책 담당인 문화부장 효탄 스님과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 외에 문화재 분야와 무관한 종책특별보좌관 2인을 추천했다.

문화재 분야 비전문가인 종책특별보좌관이 문화재위원으로 추천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조계종이 문화재 관련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동섭 기자**

김종빈 前 검찰총장 등 위촉

조계종 불자네트워크 시작

조계종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위촉을 시작으로 불자 네트워크에 나선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2일 조계종 법률 자문단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법률 자문단은 김동건(前 서울 고법원장, 영남학원 이사장,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구상진(前 서울지검 검사, 변호사,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빈(前 검찰총장,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고려대 법대 교수), 임채진(前 검찰총장, 변호사), 손수일(법무법인 로쿨 대표변호사) 등 5명이다. 간사는 김봉석 변호사가 맡았다. **노덕현 기자**



5대결사 점검④ 나눔결사

사회적 나눔 앞서 내부 진단 시급

말사 종무원 복지 강화 시급
출가자 양극화 해소 선행돼야

조계종 총무원의 나눔 결사는 ▷결식 아동 지원 ▷이웃과 사회를 위한 108배 ▷나눔과 무소유 캠페인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 아름다운동행 등 종단 내 복지 기관 및 단체들이 꾸준히 실천해 온 내용들이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현재까지 제시된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원의 나눔 결사가 대사회적인 활동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교계 내부의 나눔과 복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사찰 종무원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의 안정적 수행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말사 종무원들의 경우 아직까지 4대 보험조차 보장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김영국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종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신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복지문제이고, 나눔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 프로그램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불교적 나눔 전체를 고민하기 위한 연구 사업도 '나눔결사'에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병헌 서울대학교 불교학과 명예교수는 "나눔은 불교의 근본정신이다. 교리적 근거와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연구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 철학적인 개념이 확고해야 개별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나눔 결사에 앞서 출가자의 복지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복지 증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교단 민주화의 실현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나눔 결사는 현재 총무원과 아름다운동행,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비움으로 행복찾기' 등을 나눔 결사에 초점을 맞춰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는 는 나눔 결사의 실현과 저소득 및 실직가정,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10억 기금 조성, 1배에 100원을 모금하는 108배 모금법회 등을 추진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종환 사무국장은 "지역 교구본사가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도들의 보시문화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사회복지 영역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구원 만평



(재)한국불교법륜종 2011년도 행자모집 및 교육 공고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에서 아래와 같이 **2011년도 행자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개요**

● 기 간 : 불기 2555년 3월 26일(입교식) ~ 4월 15일(수계식) : 3주간

● 장 소 : 법우선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 4-5번지)

● 대 상
(1) 전국 각 사암에서 기초 행자교육 과정을 이수 한 자
(2) 2011년 이전 입산 행자로서 2011년 2월까지 등록을 필한 자

● 서류 접수
(1) 접 수 처 : 총 무 원
(2) 접수기간 : 2011년 3월 7일 ~ 24일
(3) 제출서류 : 이력서, 주지스님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반명함판 사진 6매

● 입교생 지참물 : 주민등록증, 세면도구, 필기도구, 삭발용 면도기, 의제(적삼, 동방, 홍가사, 회색장삼) 흰고무신, 운동화

● 집결 / 교육 장소 : 전북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 4-5 번지 (법우선사 ☎ 063-561-5551)

● 교 육 비 : 50만원 / 1인당 (※ 행자교육 교재비 및 행자복, 바루 등 각종 비용 포함)

입교생 집결 : 2011년 3월 25일(금) 17:00 까지 도착 (법우선사)

(재)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석 백 관**

(재)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 :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67 / ☎ 041)734-5371. FAX 041)734-5373

“기부 좀…” 연말정산 간소화 “아직 좀…”

아름다운동행, 국세청 서비스 외면해 개인기부 증대 걸림돌… “기부자 입장서 생각해야”

불교계 모금기관에서 한발 나아가 국민적 신뢰를 받겠다는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정작 국민들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편의제공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은 2011년도 사업 계획과 2010년도 배분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기금모금 목표액을 25억으로 설정하고 ‘비움으로 행복찾기’ 정착, 소액 정기 기부자 2500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을 포함시키고 공제 이월을 허용했다. 기부금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개인 기부자들은 손쉽게 자신의 기부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불교계 대표적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은 아직까지 이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동행에 기부한 단체 및 개인들은 여전히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와 국세청에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반면 굿네이버스와 월드비전 같은 NPO 단체들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기부 앱, 후원자 메시징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굿네이버스가 2010년 10월 출시한 기부 앱은 큰 반향을 불렀다.

아름다운동행은 현재 100~1,000만 원 등 고액기부자들이 늘어나고, 자발적인 후원자도 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기 후원 개인기부자는 8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일회성 기부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부터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아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모금 전문가들은 창립 2년 만에 모금액이 30여 억원을 넘어서며 이례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법인답지 못한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선희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대표는 “모금의 성패는 개인기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명한 시스템과 다양한 상품, 기부자와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보혜 굿네이버스 홍보담당가도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직접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모델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모금’과 ‘비움으로 행복찾기’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에서는 나눔 결사의 실현과 저소득 및 실직가정, 1배에 100원을 모금하는 108배 모금 법회,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10억 기금 조성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구본사 주지회의 등을 통한 사업 안내와 교구별 대표 사찰 및 주지스님 면담을 통한 집중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 오신날에 맞춰 4~5월에 전국 사찰별로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3월에는 ‘나눔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도 마련할 계획이다.

‘비움으로 행복찾기’는 아름다운동행이 불교계 모금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과 호흡하기 위해 주력하는 사업이다. 108배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자신들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비움을 통해 행복해지는 불교의 행복관을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반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서울 보신각과 청계천 광장 등에서 진행된다. 동행은 108배를 통한 비움의 가치를 전파하고 매월 1만800원의 정기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을 통해 모아진 성금은 긴급 생계비 가정 지원, 선재의 선물 보내기, 저소득 아동 치료비 지원, 긴급재난 구호 등에 사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활성화와 투명한 모금과 배분을 위해 모금위원회, 배분위원회 등을 구성한다.

박기범 · 노덕현 기자



동국대, 총장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동국대 김희옥 총장이 취임 이후 첫 공식행사로 학생 • 교직원과 함께 3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실크로드와 둔황’전을 관람했다. 김희옥 총장은 “교수 • 학생 등 동국인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 • 활성화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의 장을 더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MB, ‘국가조찬법회’에서 무릎 꿇어

페이스북 부루나, 3일 네티즌들 맹비난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3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통성(通聲)기도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 국가 · 국민의 안녕과 발전,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인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 대통령의 통성기도를 두고 많은 비판과 논란이 오고갔다.

한 불자는 “현직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목사의 제안으로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굳이 성경을 왼손에 들고 나온 대통령,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과연 그들의 입에서 ‘국민통합’을 어찌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자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브리핑 내용은 지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불자가 게재한 청와대 측의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심기도의 형태가 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그걸 인도하는 목사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주도한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그대로 간 것이다. 대통령만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 모두가 인도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불자는 “그럼 묻고 싶다. 불교계에서 대통령을 초청해 ‘국가조찬법회’를 봉행할 때 법회를 진행하는 스님의 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108배를 할 용의가 있는지 말이다. 그리고 법회에 (불교) 경전을 들고 참석할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교계기자의 언급에 대해 한 스님은 “손학규 대표님도 무릎 꿇고 기도 잘하드만. 불교인들의 법회를 봉행하기에 앞서 정치인 불러다 모두 다 같이 3배 꼭 시킵시다”며 조롱했다. K씨는 “기도가 아닌 국민에게 잘못한 것을 진정 뉘우치는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런 행동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 화가 나기 보다는 헛웃음만 난다”고 했다.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회를 연 것은 군사정권부터 시작됐다는 설명도 있었다.

S씨는 “군사정권이 종교계로부터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이용했었다고 알고 있다. 군사정권 때는 불교에서도 자주 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민정부 이후 불교계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회복하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조찬법회는 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명예회복하고 뜻 이어가겠다”

맑고향기롭게 새 이사장 현 장 스님



“오해다. 해명의 기회도 없었고 잘못 분석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사와 감사 등 임원들의 상처가 크다. 맑고향기롭게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봉사단체 맑고향기롭게는 3월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현장 스님(보성 대원사 주지)을 선출했다.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현 스님이 이사장 및 길상사 주지를 사퇴 하면서 붉어졌던 사태 수습은 현장 스님의 몫이 됐다. 하지만 현장 스님은 3일 전화인터뷰에서 “별 것 없다”며 차분하게 상황 설명을 했다.

“임원들이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수많은 억측에 봉사자들(임원진)은 순간 범죄자가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명예 회복하고 활동을 정상화시키겠다. 법정 스님의 뜻과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맑고향기롭게의 대중화와 사회화에 앞장서겠다.”

현장 스님은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고 이사진과 감사, 사무국장에는 전원 새로운 인물로 구성할 계획이다. ‘법정사상 연구소’도 설립할 계획이다. 법정사상연구소는 법정 스님의 삶을 선수행자 · 민주화 운동 · 종교교류활동 · 문필가 · 역경가 · 다인 · 미학가 · 자연주의 · 생태철학가 등 10여 가지 주제로 나눠 연구하게 된다. 연구소는 학술발표 등을 통해 법정 스님의 사상을 사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장 스님은 최근 일어났던 내부 논란에 대해서 “임원진들은 법정 스님을 10~15여 년을 따르던 재가 제자들로 월급은 고사하고 차비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애정을 쏟던 활동가들인데 그들에게 사찰경영권 등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분석은 오해였다”고 밝혔다.

“덕현 스님이 길상사 주지와 이사장직을 겸하면서 맑고향기롭게를 독립된 법인단체로 보지 않고 사찰 내 부속단체나 신도단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어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은 맑고향기롭게가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뒤에서 활동하고, 종교적인 색체를 완전히 배제한 초종파적인 단체가 되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맑고향기롭게는 재정투명화를 위해 연 1회 공개하던 사용내역 등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법정 스님 저서를 두고 출판사와 인세관계가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함께 3월 내로 인지 수입을 공개, 이사와 감사 임명할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맑고 향기롭게’ 사과문으로 회향

이사, 감사, 사무국장 전원 도의적 책임지고 사퇴표명

맑고향기롭게가 3월 2일 홈페이지에 덕현 스님 사퇴와 관련한 사과문을 개제했다.

맑고향기롭게 임원은 사과문에서 “최근 이사장 덕현 스님을 둘러싸고 야기된 불행한 사태에 대해 깊이 참회하며 회원, 봉사자, 법정 스님의 정신에 공감해 살아가는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 것에 엎드려 정중히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날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린 긴급 44차 이사회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사회 결과는 이사회 이사 8인 감사 2인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신임 이사장으로 현장 스님이 선출된 형식적인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이사회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맑고향기롭게는 사과문과 함께 “신임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전원과 감사,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현장 스님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조속히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앞으로 사업운영에 있어 대의원과 일반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언 기자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임원공고 및 입종안내

종 정 법상 심곡
부 종 정 법호 서호

원 로 원 장 법두 수암
총 무 원 장 법천 청화

종 회 의 장 법수 인곡
감 찰 원 장 법관 일월
교 육 원 장 혜진
기 획 실 장 법웅 정관
총 무 부 장 법웅 정관
교 육 부 장 청운
교 육 국 장 민규

부산종무원장 청운
경북종무원장 원도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 입종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큰 서원을 세우고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을 모십니다.

■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등록신청서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사진 4장
- 승려증 발급받으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 총본산 :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진원암 [부산 남구 우암 14동 174-32]
총 무 원 051)638-4088. 직통 010-4540-4088.
총무부장 055)532-4414. 011-507-2837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총무원장 법천 청화

일 주 문



제7회 오대산 전국 디지털사진 공모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14일 '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오대산 전국 디지털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계사 삼오모텔 인수식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3월 7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성역화불사 일환 삼오모텔 인수식을 개최했다.



실천승가회 집행위원장 종호 스님
인천 영산정사 주지 정호 스님은 3월 2일 실천승가회 제15차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평화 리더쉽 아카데미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서초동 평화재단 교육원에서 평화리더쉽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동산불교대 34회 졸업식
안동일 동산불교대 이사장은 2월 27일 동산불교대학 34회(졸업79명), 대학원 25회(5명) 졸업식을 개최했다.



포교사단 11주년 기념법회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3월 13일 김천 직지사에서 포교사단 11주년 기념법회 및 제16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정구정 중앙신도회 지도위원(불교환경연대 감사)은 2월 28일 한국세무사회 제27대 회장에 당선됐다.

고객보다 직원부터 만족

민 응 기 동국대 제2대 의무부총장겸 제13대 동국대의료원장



민응기 동국대 제2대 의무부총장 겸 제13대 동국대의료원장이 3월 3일 취임 1년 만에 재임됐다.

"보직을 맡는 것은 궁극적으로 봉사이고 희생입니다. 명예를 위한 것이나 재물을 쌓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1년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교직원과 의료진 모두에게 참 고맙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2010년 3월, 취임 1년 만에 일산동국대병원은 2010년 상반기 흑자에 돌입했다. 지난해 약 20억 흑자를 내면서 도약 단계에 진입했다.

"그동안 기초공사를 한 것입니다. 최종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경산 수지 흑자로 돌아섰으니 이제 해 볼만 한 거죠. 이제는 걱정보다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만 남았습니다."

지난 1년 민응기 원장은 교수나 직원들에게 자립 할 때까지 인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의료원의 재정 상태를 공유했다. 직원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살림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시에 성장한 만큼의 대가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갈 것임을 약속했다.

민응기 원장이 말하는 가장 훌륭한 운영기조는 직원들의 만족, '내부 만족'이 최우선이다. 모든 직원이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해 직원의 만족감을 높인다면 결국 일의 효율은 물론 모든 서비스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내부 만족은 우수인력 유치와도 관계가 깊다. 민응기 원장은 "외부에서 완벽한 실력을 갖춘 이는 한 가족이 되기 힘들다. 또 조건이 좋은 곳으로 눈을 돌리기 쉽다"며 "우수인력 확보는 자체 양성이 돼야 한다. 업무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었을 때 이직하지 않도록 만족감을 줘야 한다"고 했다.

"길게 보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직원간의 화합입니다. 병원 시스템상 진료와 행정파트 화합은 어렵습니다. 종교를 통한 화합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법인으로 세운 병원이 자칫 영리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려도 되지만 민응기 원장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세운 병원이 아니지만 일단 자생적으로 살림을 할 정도는 돼야 한다. 살림을 잘하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사업, 교육, 연구,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의료원은 특성화 사업으로 양한방 협진 강화는 초창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양에서는 대체 보안의학 연구가 한창입니다. 자연적인 처방과 치료에 관심을 갖고 동양의학, 한방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한방 협진으로 한방의학의 재활과 동시에 동국대의료원만의 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국대 의료원은 내부적으로는 양방 한방 교수가 함께 하나의 주제로 연구를 하면 협진 연구비 등으로 연구를 독려 하고 있다.

"양한방 협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한방이 단번에 한마음으로 운영되기는 힘들죠. 서로가 서로에게 차츰차츰 얼마나 젖어 들어갔는가가 중요합니다."

동국대의료원은 '불교' 병원이다. 민응기 원장은 사람들이 '불교'라는 이미지가 주는 벽을 허물고 싶다. 이에 작년부터 스님 뿐 아니라 신부, 수녀, 목사 등 이웃 종교인들이 병원을 이용하면 최대 25%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조계종 종립병원이지만 이웃종교 기도실도 마련해 진정한 불교의 자비와 포용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밖에 불교호스피스를 체계화하고 전문가를 조직화할 계획도 잡고 있다. 민 원장은 "암 말기 환자 등 임종 직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가톨릭 등 이웃종교 호스피스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1977년 서울대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일병원 산부인과 과장, 함춘여성클리닉 대표원장, 보건복지부 인공수정전문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일산병원 산부인과 진료부장 등을 역임했다.

〈인사〉 동국대 인사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3월 1일자로 동국대 인사를 단행했다.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

▷ 학술부총장 겸 대학원장 박정극 ▷ 경영부총장 조성구 ▷ 연구경쟁력강화위원장(부총장급) 강태원

〈각 대학원장 및 대학장〉

▷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계환스님 ▷ 문과대학장 김상현 ▷ 이과대학장 김득영 ▷ 법무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김상겸 ▷ 행정대학원장 겸 경찰사법대학원장 겸 사회과학대학장 송일호 ▷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유석천 ▷ 바이오시스템대학장 유병승 ▷ 공과대학장 겸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장 이의수 ▷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고진호 ▷ 영상대학원장 겸 영상미디어대학장 이종대 ▷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대학장 김황록 ▷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대학원장 김무곤 ▷ 약학대학장 천문우

〈각 대학원 부원장 및 대학 부학장〉

▷ 불교대학원 부원장 겸 불교대학 부학장 김용표 ▷ 행정대학원 부원장 겸 경찰사법대학원 부원장 겸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박명호 ▷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김대룡 ▷ 경영대학 부학장 박찬규 ▷ 바이오시스템대학 부학장 성정석 ▷ 공과대학 부학장 겸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부단장 이지호 ▷ 교육대학원 부원장 겸 사범대학 부학장 겸 사범대학 교직부장 채재성 ▷ 약학대학 부학장 조정숙

〈본부장 및 기관장〉

▷ 정각원장 법타 스님 ▷ 경영관리실장 이영면 ▷ 전략홍보실장 윤재웅 ▷ 대외협력본부장 정창근 ▷ 전략기획본부장 이상일 ▷ 학사지원본부장 유국현 ▷ 연구진흥본부장 겸 산학협력단장 이종태 ▷ 사업개발본부장 위태량 ▷ 입학처장 이윤호 ▷ 운영지원본부장 이천종 ▷ 학생경력개발원장 겸 학생상담센터소장 이학노 ▷ 교양교육원장 조상식 ▷ 중앙도서관장 박경준 ▷ 국제화추진단장 김인재 ▷ 정보관리실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안종석 ▷ 평생교육원장 김계현 ▷ 대학스포츠실장 백경선 ▷ 동국미디어센터장 김애주 ▷ 박물관장 최응천 ▷ 보건소장 김동일 ▷ 학술림관리소장 강호덕 ▷ 바이오자원생태농장장 이명훈

〈인사〉 금강신문

△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정산 스님 △ 편집인 겸 사장 무원 스님

[캠페인에 앞서] 미얀마문화원 캠페인 인터뷰-한·미얀마 교류친선협의회 공동회장 목 탁 스님

"미얀마의 밝은 웃음, 직접 느껴요"



"미얀마 국민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잊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이 나라에 한국 불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미얀마 교류친선협의회 공동회장 목탁 스님은 서울 종로에 미얀마문화원을 세우고 미얀마와 실질적인 문화교류를 시작한 대표적인 스님이다. 목탁 스님은 미얀마 출가의식인 신뿌의식 지원, 식수난 지역 우물파기, 한국기술대학 건립 등 미얀마와의 인연을 22년 동안 맺어왔다.

오랫동안 미얀마 국민들을 지켜본 스님은 그들이 가진 특징을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밝은 미소, 둘째는 성실함이다.

목탁 스님은 "해운 회사에서 미얀마 선원을 우선 채용하는 사실만 봐도 그들의 성실성을 알 수 있다"며 "마치 60년대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교육지원 등의 자비의 손길은 절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러한 취지에서 미얀마 현지에 2년제 대학인 한국기술대학을 건립 중에 있다. 한국기술대학은 양곤에 5만 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1월 착공했다. 완공 후에는 한국·영어·일어 등 외국어와 컴퓨터·자동차·봉제 기술 등 실용기술을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가르치게 된다.

스님은 "진정한 보살행은 스스로 실천하고 직접 느끼는 것"이라며 "미얀마 현지 봉사에 동참한 한국 불자들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의 이런 신념 하에 한·미얀마교류협회 여성봉사단은 신뿌의식 지원과 우물파기에 직접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극빈지역에 고아원을 운영하다보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었다"고 말했다. 양부모 맺기는 미얀마 아이들이 자립할 때가지 한국의 양부모들과 사진과 편지를 교환하며 돕게 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끝으로 "미얀마에는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다. 불자들의 자비심으로 먼 미래 미얀마와 한국은 동반자로 함께 걸어갈 그 날을 위해 앞장서자"며 후원을 당부했다. (02) 733-5670

■〈인사〉 정련 스님, 동국대 제37대 이사장 재선출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의 제37대 이사장에 정련 스님이 재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3월 2일 제261회 이사회를 열고 현 이사장 정련 스님을 만장일치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정련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족한 저를 유임해줘 감사하다"며 "신임총장을 잘 보필해, 부족하지만 학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련 스님은 1968년 부산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조계종 포교원장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이사,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원여불교의식(법음,범패)교육원모집

교직자(포교사,전법사) 전문교육원

본 원여불교 전법포교사단 부속 원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님, 법사, 포교사, 교양대학 수료자를 위한 대법사 양성 **제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강 주** | 보광스님 : 전등사 (구 보타원) 회주 부산불교연합회 고문
자인스님 : 길상사주지,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성각스님 : 홍은사주지 (은사스님에게 범음범패 20년 이수)
성림스님 : 관음사주지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사무국장 이사 및 범패 전수 조교)

◐ **입학자격** | 본 원여불교 전법포교사단 부속 원여불교의식 교육원은 종단을 초월하여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스님 포교사전법사 불교교양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함

◐ **특 전** | ○본 교육원수료후 성적우수자는 부산영산보존회 범패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함
○각 종단에서 불교의식을 주관하도록 함
○본 교육원 승려후보생 종단등록 및 포교원(사찰) 창건의 자문에 응함

◐ **모집학과** | 기본과정(6개월) : 사물(요령목탁) 다루는 법, 송, 상단, 각단 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중급과정 (1 년) : 제반의식(불공,범음,범패) 사물다루는 법, (광쇠 징 법고) 대령 관욕 각종시식 실전(實傳)위주
작법과정 (1 년) : 바라작법 오공양작법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원서대 및 전형료** | 십이만원정 (120,000원)

◑ **수 강 료** | 무료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 **모집기간** | 불기 2555년 3월 10일 (음 2월 6일) ~ 3월 20일 (음 2월 16일)

◑ **입 학 식** | 불기 2555년 3월 30일 (음 2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 **강의장소** | 전등사 (구 보타원) 큰법당 ◑ **강의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처** | 전등사 (구 보타원 1층)

◑ **원서배부처** | 부산지역 : 전등사(구 보타원) (051) 243-0048
부산불교연합회 (051) 867-0501
현대불교신문부산지사 (051) 632-0064
수효사(부산기장) (051) 727-1326
경남지역 : 세심정사(합천) 011-822-6946
경북지역 : 미타사(대구수성) (053) 767-7900
울산지역 : 쌍암사(울산야음동) (052) 275-7875

원여불교 전법포교사단 불교의식 교육원
주소 : 부산 서대신동 3가 578번지 전등사 (구 보타원) **051)243-0048** H·P **011-822-6946**

명예총재 : **암도**(여산) **보광**(석성)
총재 : **향과**(도림), 단장 : **법민**, 부단장 : **자인**, 사무총장 : **성월**(혜명), 사무국장 : **진효**(박도환), 재무국장 : **성덕**(정상만)
자문 : **현광**(보리), **신풍**(정허당), **설적운, 만청, 달오, 고담, 태일** 운영 : **법연**(혜연), **지산**(진성태), **해봉**(강경중), **무심**(현익채)



법정 스님 열반 1주기 추모법회가 2월 28일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법정 스님의 상좌 7명 중 덕현 스님을 제외한 6명이 제를 올리고 있다. 사진=공동기자단

못다한 이야기는 거룩한 침묵 통해 듣기를

평소 좋아하던 국수 한 그릇 헌공하며 소박한 추모식
길상사 새 주지 덕운 스님… 은사 스님 뜻 이어 갈 것

성북동은 도심 속 오솔길이다. 대낮에도 한적한 곳이다. 2월 28일 길상사가 있는 성북동에는 평소와 달리 차량이 줄이었다. 법정 스님을 추모하려는 이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도량은 새벽까지 내린 비로 촉촉했다. 1년 전 법정 스님이 열반한 날과 흡사했다. 추모법회에 앞서 스님을 추모하는 신도들의 기도소리가 극락전을 울렸다.

추모법회에는 법정 스님과 인연이 닿은 이들로 가득했다. 순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송광사 원로의원 법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광주 원각사 주지 현고 스님,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보성 대원사 현장 스님, 송광사 문도 스님, 진명 스님, 길상사 자문위원, 길상사 신행단체, 맑고향기롭게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2년 여간 길상사를 지켜오다 20일 주지직에서 물러난 법정 스님의 넷째 상좌 덕현 스님은 안타깝게도 자리하지 않았다.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극락전에서 봉행할 예정이었던 추모법회는 설법전으로 자리를 옮겨 봉행됐다. 설법전에는 '묵언'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설법전에도 일찍부터 신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기위해 자리를 좁히고 또 좁혀 앉아 추모법회를 지켜봤다.

추모법회는 간소하고 정갈하게 진행됐다. 영단에는 이날 처음 공개된 법정 스님 진영과 흰색 장미 14송이, 두 자루의 초와 향대가 다였다. 수북한 제사음식 대신 국수 한 그릇이 올려졌다. 스님의 뜻을 이어가려는 상좌들의 뜻이었다.

법회는 명종 5타로 시작됐다.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봉독, 종사영반, 영단 삼배, 추모영상 상영, 추모법문, 헌음, 길상사 신임주지 덕운 스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종사영반에는 송광사 원로의원 법흥 스님의 헌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 중앙종회의원 보선 스님 ·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헌다, 송광사 주지 · 유나 현묵 스님 등 송광사 스님과 사부대중의 헌화가 이어졌다. 상좌인 덕조 · 덕인 · 덕문 · 덕운 · 덕진 · 덕일 스님은 법정 스님이 평소 좋아하던 국수를 헌공하며 은사를 기렸다.

법정 스님 추모영상도 방영됐다. 스님의 목소리와 모습, 유품이 영상을 통해 전해지자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사무친 그리움이었다.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한 평생 무소유를 수용하고 붓과 혓바닥으로 간담을 드러내서 중생을 제도하더니, 인연이 다해 조계산에서 낙조를 보이도다"고 추모법문을 했다. 이어 보성 스님은 "법정 스님이 효봉 스님을 시봉한지 1년 쯤 됐을 때였다. 평소 은사 스님의 공양이 변변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 하루는 20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신도에게 고추장을 얻어오다 공양시간에 늦어졌다. 이에 효봉 스님은 법정 스님에게 '오늘은 그만 너와 내가 점심 먹지 말자. 오후 불식을 하자'고 했다"면서 "출가자는 그래야 돼!"라며 물욕에 느슨해진 승가의 기강에 무소유과 지계의 일갈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의 삶은 언제나 사부대중의 사표였다. 출가자에게는 수행자의 본분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재가자에게는 청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며 "〈무소유〉는 우리 시대 최고의 포교서이며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는 가르침에 따라 스님의 큰 덕화를 되새기며 이 땅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세상과 대중을 일깨우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인사 백련암 원택 스님은 이날 봉안된 김범수 원광대 교수가 제작한 법정 스님의 진영에 대해 진영찬을 읊었다. 한양대 음대 박경옥 교수는 '성불사의 밤' 첼로 연주를, 길상사 합창단은 법정 스님이 평소 좋아하던 '청산은 나를 보고'를 헌음했다.

길상사 신임주지로 내정된 덕운 스님이 문도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자 신도들 중에는 스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자리에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다.

덕운 스님은 "길상사 차기 소임자로서 무소유 사상으로 큰 메아리를 남기고 떠나신 은사스님 열반 1주기를 앞두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은사스님께 깊이 참회한다"며 "길상사가 은사스님의 정신에 입각해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화합하고 수행정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상영된 영상을 통해 스님의 법문은 가슴을 울렸다. 영상을 통해 들려오는 스님의 목소리와 말씀을 위안 삼을 뿐이다. 봄비를 머금은 대지의 나무와 꽃들은 법정 스님과 함께 침묵으로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산악에 초록이 물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잎을 펼쳐내는 이 눈부신 봄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것 같지만 하나의 기적이고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눈부신 봄날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돋아나는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듣기 바랍니다." 〈2009년 길상사 봄 정기법회에서〉



열반 1주기에 처음 공개된 법정 스님 진영.



법정 스님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곳 길상사 행지실을 남녀 한 쌍이 들여다 보고 있다.

혜총 스님의 '법정 스님을 추억하며'



법정 스님 기일 하루 전인 2월 27일. 비 내리는 길상사는 어느 때 보다 차분한 분위기였다. 주지 덕현 스님이 2월 20일 갑작스럽게 물러났지만 신도들은 큰 동요가 없어보였다. 길상사는 '법정 스님을 추억하며'를 주제로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일요특별법문을 진행했다.

혜총 스님은 1950년대말 ~ 1960년대초 합천 해인사에서 법정 스님과 함께한 추억을 소개했다. 법정 스님이 평소 책과 음악을 즐겨한 이야기, 정랑(해우소) 주변 퇴비에 코스모스 씨를 뿌려 꽃을 피운 이야기를 비롯해 어린 혜총 스님에게 쪽지에 적어준 〈잡보장경〉 일부분을 소개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님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잘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혜총 스님은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나(我), 생노병사, 탐진치를 근본소유 하게 된다" 며 "진정한 무소유는 생노병사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법정 스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복지, 신 성장동력 '고민'

복지 통한 국민소통이 불교발전 초석… 시대적 의제 선도 위한 고민 더 치열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1032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3.2%였던 불교 인구는 2005년 기준 1072만6000명(22.8%)로 소폭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 불자들의 숫자가 감소세를 보여 불교의 미래를 위해 인재 불사를 통한 젊은 세대 포교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주목 받고 있다. 불교 사회복지는 부처님의 자비행과 중생 제도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방안임과 동시에 포교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불교복지 통해 국민과 소통 시도

경기도 군포시의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은 일요일이면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을 찾는다. 이웃 종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들이 일요일이면 문을 닫지만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매화복지관은 일요일에도 복지 서비스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매화복지관은 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2006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요(주말)사업'을 실시해 왔다. 사업 실시 후 복지관 이용자가 23% 가량 증가했다.

15년 째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용수 어르신(70)은 한 사람의 포교사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웃 종교를 믿던 친구들이 김 어르신이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불교로 개종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 활동은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전할 수 있다.

2010년 12월 2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특별 세미나에서 이혜숙 금강대학교 초빙교수는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관한 조사결과 8.32%만이 불교기관이라는 이유로 입사했다고 밝혔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복지로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정작 불자 실무자들조차 불교에 무관심한 것이다.

이혜숙 교수는 "이런 배경을 가진 종사자들에게 불교적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내외적으로 불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은 결국 불교에 대한 폄훼를 불러일으킨다.

최종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지역 사찰들이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신도들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런 활동이 부족해서 불교 폄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불교사회복지계, 저변확산 위한 노력 다각화

이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 사회복지계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산하고, 사회복지 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조계사에서 이웃을 위한 김장나눔을 하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은 어린이 포교의 일환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키크기 체육교실'을 진행한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복지가 취약한 불교계 현실에서 어린이 포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 네팔 JGO센터 시찰과 일본 사회복지법인 '타카타후쿠시지교교카이' 와의 교류협력 등 국제 복지활동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미래 한국 사회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 다문화 가정 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재단은 또 불교의 특성을 살려 현대인들의 심신의 안정을 위한 명상 등 마음 치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병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불교사회복지의 발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 이나은 기자

불교계 복지시설 15년 새 10배 이상 증가

이웃종교에 비해 여전히 부족
종단별 특화프로그램 계발 분주

불교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이웃종교계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45년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개설을 시작, 1990년 이후 집중적으로 개관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이 2010년 12월 창립 15주년 기념 특별세미나에서 발표한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국의 불교복지시설은 958개다. 한국천주교회 통계(2009)에 의하면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은 1264개이며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2009년 기준으로 기독교의 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감리회의 복지시설은 1097개, 원불교는 190개로 조사됐다.

불교복지시설은 2006년 477개에 비해 481개소가 증가했고, 이는 15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불교사회복지의 성장에 따라 각 종단별 복지법인은 법인만의 특화된 사업을 전개해 복지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나눔'에 초점을 맞추고 모금캠페인 '만행(萬行)'과 '의지나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만행'은 만원의 행복의 줄임말로 후원참여자들의 기부금을 통해 난치병환아, 저소득 다문화 가정, 국내·외 빈곤 결식아동, 긴급재난 구호활동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만행캠페인의 일환으로 매해 4월 난치병 환아돕기 3000배 철야정진을 진행해 사찰 및 신도들의 자비나눔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의지나눔 쉐어윌(Sharewill)사업을 전개해 경험의 폭이 제한돼 미래의 꿈과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 삶의 의지를 북돋워주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이사장 정산)은 지역 어린이와 저소득계층 및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재단에서는 전국 1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정된 400여 명의 아동에게 영양증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도강좌를 통한 불교 정서 함양과 웰다잉 프로그램에 불교적 세계관 접목 등 복지기관별 다양한 불교특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이사장 혜정 정사)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복지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 '진각복지 119'를 통해 복지사각에 놓인 소외이웃들에게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2000년부터 진행돼온 이 사업으로 빈곤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138세대에게 5300여 만 원이 지원됐다.

진각복지재단은 또한 '전국폐사지투어콘서트', '1폐사지1지킴이' 사업을 펼쳐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활동을 장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기범 · 이나은 기자

특별 기고

사회복지 우선하면 포교문제 없다

우리나라 종교인구 중 불교 인구는 아직까지 많아 보인다. 그러나 대도시, 특히 수도권지역이나 서울의 강남 등 몇몇 지역에서 불교 인구는 이미 개신교와 천주교에도 뒤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선 위기감이 든다.

한때 포교라고 하면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열심히 조석예불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위축된 불교의 현실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여러 요구, 시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결과가 큰 원인일 수도 있다.

현재 우리 불교의 모습은 단위 사찰의 역량이 종단의 역량이 되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역량이 되는 구조다. 그래서 단위 사찰들의 포교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단위 사찰의 포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은 지역에 기반 하는 사찰을 가꾸고, 사찰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분야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활동을 얼마나 활발히 하느냐에 따라, 지역에서 그 사찰의 성패가 나누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교사회복지란 무엇일까?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불교가, 이러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전인적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참하는 모든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복지사업의 시작은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그때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전래 초기의 특권층을 위한 불교가 서민들에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도 중생구제의 가르침이 실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의 사회복지 활동은 미약했다. 여러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도 늦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서구의 종교들은 정권의 도움으로 의료, 교육, 구휼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차이가 지금의 사회복지현황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장 이면에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불교계의 사회복지현황은 어떨까? 1980년대 이전까지의 불교 사회복지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양적으로 급성장을 했다. 현재 불교계에는 사찰이 직접 실시하는 복지서비스 외에도 국가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복지시설, 여러 복지프로그램 등이 개발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회복지활동이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활동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현대 사회 속에서 사찰과 종단, 한국불교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일반인들에 대한 불교의 위상을 제고하게 되어 포교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큰 범위에서 중생구제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다시 말해 전법과 포교의 방편으로 사회복지에 관해 좀 더 세밀하게 다가갔으면 한다.

가령 사찰이 포교 방법을 고민할 때, 사회복지활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이다. 단위사찰에서 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풍부한 인적 자원이다. 사찰에서 신행하고 있는 불자의 절대 수치는 많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활동에 관심 있는 신도들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은 소속 사찰에 대한 자부심, 신심의 심화 같은 긍정적 작용을 한다. 문제는 조직화다. 포교의 관점에서 교육하고 조직한 다음, 참여로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사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적 자원도 있다. 시설이나 후원금 같은 것이 모두 해당된다. 신도들의 보시금 일부를 후원금화 하는 것은 신도와 사찰 양쪽에 모두 긍정적이다. 사찰시설 자체를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불교사회복지는 불교가 하는 사회복지다. 불교는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신도, 사찰이 될 수도 있다. 시대가 요구하고, 사회가 요청하는 것에 응답하는 방법이 사회복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대사회에 불교의 가치관으로 해답을 주고, 구체적으로 지역의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에 구현하고 회향하는 것이다. 포교도 역시 그렇다.


포교국장 남전 스님

바른정법.바른인연 II

불교를 신(信).해(解).행(行).증(證)이라고 하지요. 바른 믿음을 전제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때 결과물로써 분명 증득하는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를 한답시고, 앉아 있음에 익숙해져 있고, 삼재, 사주, 철학, 조류방생, 성지순례, 온갖 등 (인등, 108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의 등)을 고유가 시대에 밤새 밝혀 놓고, 입으로, 말로써 밤새 부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도 일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불보살님전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방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선방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즉 行(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천하지 않으니 증(證)에 해당하는 결과물로써 경전과, 천수경, 이산혜연선사 발원문등에 나오는 신통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앉아만 있고, 말로써는 이제 충분한데 결과물인 신통은 어찌해서 보여주지 못하는가? 경전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있고, **현재 티벳 승려들은 또 그런 능력으로 실천하는데..... 기껏 우리가 한다는 것은 가벼운 신병 정도를 치유키 위해 구병시식, 천도재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구병시식, 천도재를 지내보니 말끔히 해결되었나요? 적어도 증득한 바 힘이 있다면, 초기 암환자 말고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말기암환자, 시한부, 희귀병등을 짧은 시간내에 민간요법, 식이요법등이 아닌 정법 기도로써 해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부처님 정법대로 실천할 때 그 힘은 생길 것이고, 이 신통이야말로 말법시대에 중생의 고통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인 병마를 들어주는 **그 힘(신통 : 기도법력)이야말로 불보살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일깨워서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말씀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말세이고, 말법시대인데, 아직도 말만 하고 있을겁니까? 이 길을 가는 불제자라면 증득한 힘으로 과감히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승.정법.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 화 : 055)633-6555
대 중 일 동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3·1절 진관사, "대한독립 만세"

항일투쟁 정신 기리는 초월 스님 추모 법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불교계 중앙정부였던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3·1절 92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과 애국선열 33인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추모법회를 3월 1일 봉행했다.

진관사는 2009년 5월 칠성각(서울시 문화재 제33호) 해체복원 중 불단과 기둥사이에서 백초월 스님의 유품인 태극기 및 독립운동 사료 6종 17점을 발견했다.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작한 태극기 1점을 비롯해 〈독립신문〉 2종 4점, 〈조선독립신문〉 5점, 〈자유신종보〉 3점 등 이다. 태극기와 함께 보관됐던 사료 가운데에는 단재 신채호가 중국 상해에서 창간한 〈신대한〉 신문과 독립운동세력이 발간해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한 〈자유신종보〉 등의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이날 대웅전에서 열린 추모 법회는 헌화와 묵념, 추모사와 축사, 초월 장학금 전달, 합창,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총무 법해 스님, 전두인 신도회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미경 서울시의원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계호 스님은 "백초월 스님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독립투사였으나 역사에 묻힐 뻔했던 이름이 2009년 칠성각 해체불사도중 발견된 태극기와 독립신문으로 열반 60년 만에 빛을 보았다"며 "후손으로서 스님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재조명 할 것" 이라고 말했다.


3·1절 진관사에서 주지 계호 스님과 사부대중이 만세 삼창하는 모습.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축사에서 "은평구에 항일운동에 앞장선 스님이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며 독립신문 30호에 실린 〈태극기〉詩 중 일부 '삼각산 마루에 새벽빛 비칠 제 네 보았냐 보아 그리던 태극기를 네가 보았느냐'를 읊어 추모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진관사는 초월 스님의 후진양성 뜻을 기리는 '초월 장학금'을 재정하고 이날 처음 전달했다.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중 모범이 되는 2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가정 형편에도 줄곧 1등을 노치지 않았다는 권성현(20, 서울대통계학과) 학생은 "뜻 깊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초월 스님의 뜻을 이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당찬 포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행사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대웅전 앞마당에서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 모형을 흔들며 "대한 독립만세"를 삼창했다.

한편, 대웅전 앞에는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의 태극등을 달고 항일운동 사진도 함께 전시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추모 했다.

백초월 스님(白初月:1878~1944)은 불교계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1944년 6월 66세로 옥사했다. 그러나 진관사에서 태극기가 발견되기 전까지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대선사였던 백초월 스님은 중앙학림 내 한국 민단본부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법회를 열어 융통한 돈을 임시정부지원금으로 송금했다.

천진영 기자

백초월 스님 행적

1878년 경상남도 진주 출생. 본명은 인영(寅榮)이며 호는 초월, 법명은 동조(東照).
1916년 명진학교(明進學校) 교장
1919년 한국민단부(韓國民團部) 부장으로 항일운동 전개
1919년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간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중국 지린성의 독립군에 보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을 모금운동.
1920년 일본유학생들이 주도한 3·1 운동 1주년 기념 시위에 관여하다가 도쿄에서 붙잡힘.
1939년 화물열차에 '대한독립만세'라고 낙서한 사건에 연루돼 일본 경찰에 잡힘. 그 뒤 마포·대전 형무소를 거쳐 청주형무소에서 옥사. 유해(遺骸)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형무소 공동묘지에 묻혔다 6·25전쟁 때 망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됨.

'할'은 뭐고 '악'은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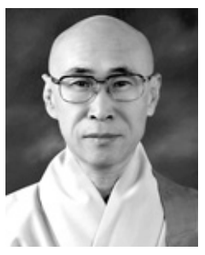
한글번역 표준화 주장. 문장은 가사형태, 실용성 필수

승가대 역경학 전공 정우 스님

불교를 어렵다고 하는 데는 경전이 현실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로 번역됐거나 저자 마다 달리 번역된 내용에 대한 혼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할(喝)' 같은 비형식 언어다. 이를 '할'이라고 그대로 번역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악'이라고 한국어 감탄사 형태의 의성어를 사용하는 번역도 있다.

승가대 역경학 정우 스님(사진)은 2010년 승가대 박사학위 논문 〈불전 한글 번역과 용어에 관한 연구〉에서 '한글 번역 표준용어' 선정을 통한 경전의 한글번역 정비와 통일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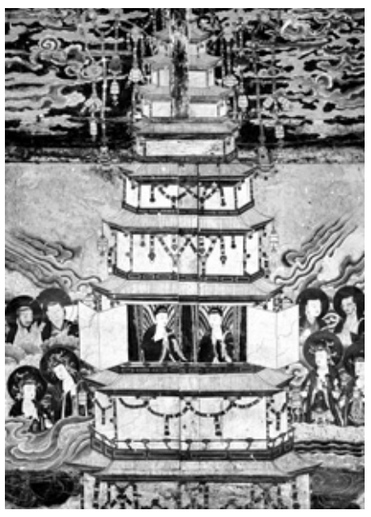
정우 스님은 "최근 선(禪)수행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의 한글로 번역된 선수행 관련 불전은 본래의 목적 전달이 어려우며 현실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미흡하다"며 "불전들의 한글번역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 스님은 "장문의 게송 불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형식을 '가사'의 형태로 문장을 구성해 원본의 문체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양산 통도사 벽화 보물된다

18세기 불교회화 중요 가치… '입학도설' 등 6건도 보물지정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2월 25일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梁山 通度寺 靈山殿 壁畵·사진)외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梁山 通度寺 靈山殿 壁畵)'는 우리나라 사찰벽화로서는 유일한 〈법화경〉 견보탑품 벽화를 비롯해 조선후기 석가여래 팔상도의 도상에 기본이 된 〈석가여래응화사적〉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18세기 불교 회화사상의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이 밖에 '대승기신론소'와 '백지금니 범망보살계경' '이순신 관련 고문서'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 '입학도설' '동인시화'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예고됐다.

천진영 기자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콧구멍 없는 소가 돼야지

경허성우(鏡虛惺牛:1849~1912)①

구한말에 활동한 인물인 경허성우(鏡虛惺牛:1849~1912) 스님은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스님은 당대의 걸출한 선객들을 길러내어 근현대 한국불교에 선 전통을 부흥시킨 인물로, 특이한 행적이 오늘날까지 인구에 회자되는 분이다.

어려서 부친을 잃은 스님은 9세에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서 의왕에 있는 청계사에서 계허(桂虛)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1854)

경허 스님은 당대 제일의 그 강원에서 불과 23세에 강사가 됐다. 불과 23세의 강사였지만, 스님이 개강하자마자 사방에서 학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강백으로서의 길이 경허 스님의 길은 아니었던 듯하다. 1879년, 경허 스님이 이미 환속해버린 옛 스승 계허를 찾아 한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도중에 경허 스님은 심한 폭풍우를 만나 가까운 인가를 찾아가서 비를 피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마을에 돌림병이 유행하는 바람에 두려움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겨우 겨우 한 초가의 처마를 찾아 들어가 경허 스님이 방을 내줄 것을 청했을 때, 오히려 주인이 되물었다.


경허성우(鏡虛惺牛:1849~1912)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이 사지(死地)에 들어왔는가?"

당시의 돌림병은 곧장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신과도 같은 것이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한없이 치밀었다. 곧장 마을을 벗어난 스님은 비도 피하지 못하고 나무 등걸에 몸을 웅크린 채 돌림병과 죽음의 위협에 밤새 시달렸다. 한참을 두려움에 떨고 있으려니 온갖 상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생사일여(生死一如)! 그 한마디를 수없이 배우고 가르치던 내가 아니던가. 헌데 겨우 돌림병이며 시체란 말에 놀라 이토록 허둥대다니.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심한 자괴감이 경허스님을 괴롭혔다.

그 길로 스님은 동학사로 되돌아와서 강원을 폐하고 말았다. 경허 스님을 신임해 강주를 맡겼던 만화 강백의 만류도, 경허 스님의 명성을 듣고 스님에게 배우고자 전국에서 몰려든 학인들의 만류도 소용이 없었다. 문고리를 걸고서 용맹정진을 시작했다. 창문 밑으로 주먹밥이 들어올 만큼의 구멍만 뚫어놓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목 밑에는 송곳을 꽂은 널판자를 놓아 졸음이 오면 송곳에 다치게 장치해 잠을 자지 않고 정진했다. 석 달째 되던 날, 제자 원규(元奎)가 동학사 밑에 살고 있던 이처사(李處士)로부터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라는 말을 듣고 의심이 생겨 그 뜻을 물어왔다. 그 말을 듣자 모든 의심이 풀리면서 오도(悟道)하였다. 이처럼 생사의 간두에서 생사를 뛰어넘는 길을 발견했지만 스님의 오도송은 단순히 그 생사의 벽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데/ 의발을 누가 전하겠다는 것인가/ 의발을 누가 전하겠다는 것인가/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데.(四顧無人 衣鉢誰傳 衣鉢誰傳 四顧無人)"

이름난 강사가 됐으나, 그 이름은 생사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을 주지 못했다. 그때 거기에서 스님은 절절히 조선불교의 암울한 현실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현실은 깨달은 자의 삶이 현실에 어떻게 절절해야 하는지를 요구했던 것이 아닐까. 의발을 전하고 받는 상징적인 계보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은 자의 삶이 현실 속에서 구현돼야만 한다는, 그래야만 깨달음이라는 간절함이 스님을 화두로 이끌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간절함에서 근대선의 새로운 행방이 결정되었던 것이 아닐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센터 교수

심인불교대학 <心印佛教大學>
2011년 제1기 심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근본사상(佛教根本思想)과 대승보살(大乘菩薩)의 실천수행(實踐修行)을 기본(基本)으로 하여 즉신성불(卽身成佛)을 대원(大願)하는 **'심인불교대학' 법우(法友)를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재가불자, 법사, 비구, 비구니(승려)
교육기간	• 입학 : **2011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 졸업 : **2011년 10월 2일 (일요일) 6개월 과정**
교육과목	■ 불교(佛教)란 : 근본불교(根本佛教)의 기본사상(基本思想) ■ 밀교(密教)의 삼대사상(三大思想) – 〈육대(六大), 사만(四曼), 삼밀(三密)〉 ■ 만다라(曼荼羅) 〈화엄(華嚴)사상(思想)〉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우리나라 만다라, 화엄신중, 감로만다라(탱화)〉 ▫ 불신론(佛身論) = 밀교의 삼륜신(三輪身), 현교의(三身佛) ▫ 진언과 수행(眞言과 修行) = 삼밀정진(三密精進) ▫ 진언염송(眞言念誦) = 육자대명왕진언〈옴마니반메훔〉
특별과목	• 공사상(空思想) = 空이란? • 운명과 숙명(運命과 宿命)이란? • 명상법(冥想法) = 위빠사나 수행법, 참선수행법 • 밀교(密教)의 성불론(成佛論)과 현교(顯教)의 성불론(成佛論)
교육시간	• 매주 :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오후 4시까지 2시간
교육장소	•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 법사과정 : 대학졸업자

※ 수강료 교재비 무료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심 인 불 교 대 학 무 애 정 사

문의 031)675-3837, 팩스 031)675-3827, H·P 011-9356-3653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88-7번지 삼현빌딩 3층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연수원 (바라, 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본 예술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2기(6개월 과정)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학 과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특 강
1. 기 초 이 론	이론 및 실기 • 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목	5~6시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보유자 경호 큰스님 직강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바라무 조교 보련 스님 직강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및 부산영산재작법무 조교 원산 스님 직강 ⊙ 속성반 1. 바라, 작법무, 실전위주 2. 화청, 살풀이, 극락무, 승무, 사주신주, 구궁법, 조상영가 찾는법
2. 전 문 의 식	• 전통소리(안정사) • 삼신이운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복청게(천수바라)	금	5~6시	
3. 바 라 작법무	• 오공양 작법무 (운심작법,다게작법,삼귀의작법무) • 천수바라(무) (사다라니바라)	목 • 금	4~5시	부산시 지정 무형 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 등록되어 있는 바라, 작법무

■ **특 전** :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3. 년 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 발표회, 영산대제, 산신대제, 수륙대제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모집기간** : 2011년 2월 20일 ~ 3월 20일 (수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3시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귀 영 축 사

부산영산보존회 바라 작법무 연수원 / 부산 동구 범일동 1454-17번지 영축사 (구, 만덕동 해동사)
연락처 : 이사장 원산 스님 011-582-8975 / 혜화 교무스님 010-2563-5550

에너지도 경관도 Green 해야

조계종 환경위, '문화유적지 적용가능성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타당성 조사' 발표

친환경적이면서도 사용료가 낮은 신재생 에너지는 사찰 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대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사찰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찰 관계자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사찰 경관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환경위원회는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유적지(사찰) 적용가능성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타당성 조사'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를 주관한 한국태양에너지학회는 사찰 경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체험·간접 교육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장답사를 통해 사찰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와 사찰 관계자들의 견해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2010년 8월 16~20일까지 조계사 외 10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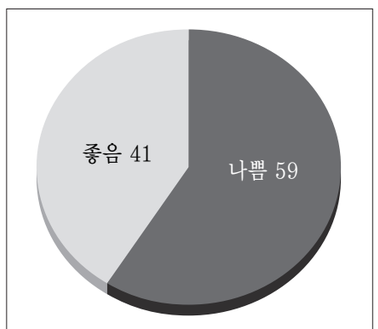
주차장 등 외부 유휴공간 설치 선호

조사 결과 '신재생 에너지 적용이 이미지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7%(매우 큰 33%, 큼 44%)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또 70% 가량이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81%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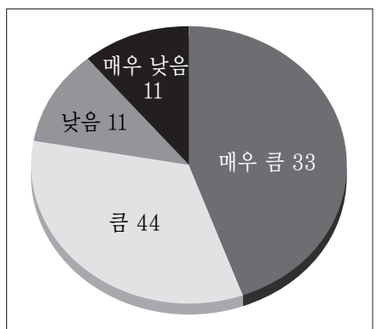
그러나 사찰 관계자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사찰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경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가 사찰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59%의 응답자가 '나쁘다'라고 답했고, 41%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유휴공간이나 신증축 예정부지, 주차장 등 사찰 외부 공간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사찰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 제시됐다. 그러나 사찰들 대부분이 산중에 위치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 대부분 '태양광-소수력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집중됐다.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사찰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사찰 이미지 창출에 미치는 영향(%)

마곡사, 송광사 '태양광-소수력' 발전 유리
직지사는 화목 보일러 활용 바이오매스 제안

사찰별 활용 가능한 시스템 제시

마곡사와 직지사, 송광사는 지리적으로 산과 계곡을 끼고 있어 태양열과 자연 계곡의 수량이 풍부하다. 이런 특징을 고려해 이들 사찰에는 '태양광-소수력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제안됐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수익 창출을 위한 풍력, 대수력 시스템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직지사는 기존 화목 보일러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지열 이용기술 등을 함께 사용해 사찰 내 에너지 공급을 분산시키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또 직지사 만덕전 후면에 위치한 보일러실 인근 공간을 활용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시스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월정사와 범어사는 계통 연계형 태양광-소수력 하이브리드 시스템 도입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전력 사용 절감효과와 친환경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명 스님은 "사찰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실정에 맞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준환 산림과학원 박사는 "에너지 효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관광객, 인근에 분포된 동물들의 상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찰을 위한 에너지 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하나 전력 사용 심각

조사 사찰 중 대부분이 지리·지형적 특성상 수급이 용이한 전력 의존 비율이 93%로 (일반전력 46%, 심야전력 47%)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찰들이 일부 박물관이나 요사체 등에 태양광 및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의 일부만을 대체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에너지원별 에너지 사용량 단위를 동일한 단위인 kcal로 환산 후 월별 에너지 사용량 및 비율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계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비율이 도시가스(49%), 전력(40%), 등유(8%), LPG(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용요금 비율에서는 전력(48%)이 가장 높게 나타나 효율이 낮은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봉은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비율에서 등유(37%)의 비율이 높았다. 뒤이어 도시가스(34%), 전력(28%), LPG(1%)순으로 나타났다. 금산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비율에서 전력(74%)의 사용량이 월등히 높았다. 그 다음으로 등유(22%), LPG(4%)의 순서로 조사됐다.

직지사도 연간 에너지 사용량 비율에서 전력(61%)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으며 등유는 28%, LPG는 11%였다. 그러나 직지사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 사용요금을 낮추기 위해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봉암사는 70%이상의 에너지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고, 등유는 23%, LPG는 7% 수준이다. 봉암사 역시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전력 사용량 비율에 비해 요금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범어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비율에서 전력과 기타 에너지원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력 사용비율은 54%, 등유 37%, LPG 9%로 각각 조사됐다. 통도사는 전력 보다는 등유의 사용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통도사의 에너지원별 연간 사용량 비율은 등유 64%, 전력 33%, LPG 3% 순이었다.

마곡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서 전력이 57%, 등유 39%, LPG 4%의 분포를 보였다. 선운사는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사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선운사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비율은 전력 92%, 등유 4%, LPG 3.5% 순으로 조사됐다. 단가가 낮은 심야 전력의 사용으로 전력의 사용요금을 사용 비율보다는 낮추고 있었다. 그러나 등유나 LPG는 단가가 높아 사용량 비율에 비해 요금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송광사는 등유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연간 에너지 사용 비율에서 등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였으며 나머지 에너지 중 전력이 39%, LPG가 6%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뉴스

대구 대성사 금강불교대학 졸업식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산) 금강불교대학은 3월 10일 대성사 서원당에서 제6회 졸업식과 제8회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제6회 졸업식 및 제8회 입학식에서는 보통과정 66명과 고급과정 56명이 졸업했고, 경전반 46명도 이수했다. 또 보통과정 신입학생 150명이 새롭게 입학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대각사 '나눔의 집' 열어

대구 대각사(주지 법산)는 3월 1일부터 매주 화, 수요일 무료급식처인 나눔의 집을 열었다.

대각사는 2010년 5월 개원해 불교명상대학, 108성지순례단을 운영해왔다.(053) 656-5108

손문철 대구지사장

3·1정신 계승 결의대회

삼일정신구국운동 범국민연합(총재 김동환)은 2월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3·1절을 앞두고 삼일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천 충효사 해공 스님, 한국불교연합회장 지산 스님 등 불교계와 천주교, 개신교계, 관련 단체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천 은해사 조사전 기공식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2월 28일 조사전과 템플스테이 교육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혜철국사와 고경 법전 대종사, 동곡 일타 대종사의 진영을 모시는 조사전은 오는 7월 준공되며, 템플스테이 교육관은 1000명 이상이 동시에 법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돼 2012년 2월 개관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원불교조계종 신년하례법회

양산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는 2월 18일 종정 청봉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정 청봉 스님은 법어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이 되는 것이 곧 부처"라며 당당히 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 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불심사 춘계 수행정진 큰스님 초청 법회

대구 수성구 불심사(주지 정혜)가 춘계수행정진 큰스님 초청 대법회를 3월 12~ 20일까지 봉행한다. 이번 초청법회 천수천안관자재보살 점안식에는 영월큰스님이 법주로 참석한다. 초청 법사로는 단양방곡사 회주 묘허 큰스님, 김천직지사 주지 성웅 큰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053) 795-1108

천진영 기자

영천 고운사 육조단경 강연

영천 고운사(주지 호성)는 2월 21~25일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각성 스님의 육조단경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16교구 말사스님과 전국 선방 스님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대체의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화 같은 기적의 체험을 공개합니다

나 삼봉(三奉) 김영생(金永生) 승(僧)은 조부님 강요에 13세부터 육경신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1세가 된 오늘까지 병고없이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을 하면서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아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는 낙으로 사는 노승입니다. 저는 46세때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이면서도 1977년 음력 1월 15일 경신 수련중에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건강이 회복되어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천신의 메시지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선사를 양성해서 천문을 열어주고 은(銀) 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먹이면 병고에서 살아난다 하시며 은용해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셔서 많은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면서 두통환자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게 1주일에 한번씩 3,4회 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되고 내장기능에 이상이 있어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는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계신 암환자가 100여명이 넘는데 너무도 신기해서 나 혼자 흥분하면서 이것이 대체의학이야 라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 천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렌자 싸스병은 은용해수 농도를 조금 높여서 육각수로 만들어 뿌리고 먹이면 일순간에 소멸될 터인데 너무도 안타깝구나 하시기에 너무도 반가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례 3배를 올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에 전화하고 동물방역담당관실에 전화해서 실험해 봐달라고 호소도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실에도 전화하고 은이 650여종의 균이나 바이러스를 6분내에 살균된다는 세계 박사님들의 실험논문을 발췌해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 친전에 속달등기로 보냈는데도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구제역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다 못해 분통이 터질것 같습니다. 이 노승은 30년간 체험해 봤습니다. 아무리 심한 독감에도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서너잔 마시고 나면 편안해지고 알러지 비염이나 축농증에는 1일 2회씩 코속에 몇일간만 넣어주면 편안해지고 아토피성 소양증에는 먹고 바르면 개운해지고 류마치성 관절염은 2달안에 거뜬해지고 세균성하리는 1잔만 먹고나면 멈추는 걸 수백명에게 체험해 봤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손발이 터질듯이 부어있는 분에게 은용해수를 3일간 복용시켰더니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부기가 빠지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승이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대체의학입니다. 여러분 암은 균만 없어지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불안해 마시고 천의선도 수련을 하면서 은용해수를 당신이 직접 만들어 100일간만 드신 다음 제 진찰을 받아 보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할 분이 한분도 없을것입니다. 사찰에서 부처님앞에 은용해기 1대면 놓아두면 불자님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육각수를 만드는 비법은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환신을 받은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은용해기 1대 가격은 35만원인데 200명이 1달 먹을 수 있는 은용해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은봉만 갈아 끼우면 무한정 쓸수 있습니다. 은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사례와 세계박사님들의 입증내용을 보실려면 http://02-2216-6278kti114net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배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본원

연락처 010-4933-4528



'귀 열리니, 마음 열리네' 조계종 광주전남전법단은 3월 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다문화가정 후원 음악회를 개최했다. 수익금 전액은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해뜨는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 어머니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법 공부는 사부대중 '공덕'

실상사 화엄학림, 화엄불교대학 등 졸업 줄이어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5명, 연구과정 4명 등

전북지역 불교대학에 졸업식이 잇따라 개최됐다.

금산사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 금산사 주지)은 2월 26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법당에서 불기 2554학년도 제22기 졸업식을 개최됐다.

화엄불교대학 졸업식에는 학장 원행 스님, 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일원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제환 스님,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 주정기 전북포교사단부단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졸업식에서는 2010년도 입학생 77명이 졸업장을 수여하고 우수한 성적과 활동을 한 학생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이어졌다. 공로상은 포교원장상에 박만덕, 한덕남 이사장상에 김영하 · 김경자 · 김성례 · 안윤주, 학장상에 김용균 · 홍수기 · 서삼균 · 김정숙 · 박기석 씨가 각각 수상했다.

원행 스님은 "청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얻어 불자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가르침에 따라 몸과 말과 뜻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엄불교대학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지정한 최우수 신도교육기관으로 불교기초 교리강좌와 경전공부, 실참 수행, 각종 봉사활동 등을 1년간 교육한다.

이에 앞서 17일 승가교육기관인 남원 실상사 '화엄승가대학원'(화엄학림의 새 이름)에서도 전문과정 5명, 연구과정 4명의 스님들이 졸업했다. 실상사 화림원은 연구과정(화림원)을 신설하고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화엄승가대학원 학장 해강 스님은 "16년 동안 13기까지 졸업식을 하게 된 것은 교수사 · 학인 스님뿐 만 아니라 학림을 보살펴 준 실상사 사부대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화엄승가대학원은 교육개편 등의 이유로 2011년에는 신입학인을 모집하지 않는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도 27일 익산 관음사 대웅전에서 졸업식 개최하고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식에는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박중근 익산불교신도연합회장등 신행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전북도 내에 재가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불교대학은 1년 과정으로 화엄 · 전북 · 이리 · 남원불교대학이 있다. 무주불교대학은 불교교양대학으로 3개월 과정이며 부처님의 생애와 기초 교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빈한 삶 이어가겠다"

선각종 종정 정 업 스님 49재



"큰스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 큰 법(法)을 베풀어 주십시오."

강진 옴천사(종무원장 정암 · 사진)는 3월 1일 대웅전에서 선각종 종정 정업 스님 49재 및 사리 친견법회를 개최했다.

49재 행사에는 원응 스님, 백양사 창오 스님을 비롯해 이개호 전남 행정부지사, 유선호 국회의원,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 회장, 허평환 前 기무사령관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1부 정업 스님 사리 8과 친견에 이어 2부 불교의례, 감사패 수여, 추도사, 추모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3부에서는 복생화님의 살풀이, 광주 미륵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일운 스님의 영산작법이 진행됐다.

정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큰스님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사셨고,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의 삶을 실천하셨다. 모든 종도들이 큰스님의 청빈함 삶과 동체대비의 마음을 이어받아 실천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49재는 한국영산회 회장 서울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의 집전 하에 나비무를 비롯해 영산작법이 시연됐다.

정업 스님 열반이후 다비까지 수고해준 분에 대한 답례로, 나일환 회장(한국문화 연대), 불자가수 정현, 정상현, 임병민, 윤순자 씨에게 감사패가 각각 전달됐다.

한편 정업 스님은 1914년 경남 통영에서 출생해 1949년 백양사 만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고, 남원 대복사, 지리산 실상사, 경남 안정사 선방에서 서경보 스님 등과 함께 수행정진 했다.

스님은 강진 무위사, 영암 망월사, 강진 고성사 주지 역임, 영암 천황사 · 광주 동광사 창건, 강진 자비정사 조실로 주석했다. 2000년 선각종 초대종정에 추대됐다. 1월 14일 강진 자비정사에서 입적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섬마을 마을잔치 '인기 만발'

섬불교포교단 매월 다른 섬 포교, 4月 신안 비금동 서산사

'한국의 섬불교 포교단'(단장 도제)은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엽)과 공동으로 2월 27일 순천 용화사(주지 상종) 포교당 금당암이 위치한 전남 완도군 금당면 복지회관에서 마을잔치를 열었다.

'금당암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열린 마을잔치에는 200여 마을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다. 포교단은 마을 잔치 외에도 한방의료봉사, 미용봉사, 점심공양,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 문화예술팀 공연도 함께 진행했다.

정영균 광주전남지역단장은 "이번 잔치를 계기로 마을주민들과 금당암의 왕래가 잦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종 스님은 "섬까지 어렵게 와 주는 것도 고마운데 의료봉사는 물론 포교활동까지 해 줘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포교사각지대인 전남 섬 포교는 2010년 1월부터 월 1회 진행되고 있다. 섬불교포교단 관자계는 "다음 달에는 신안 비금동 서산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루나존자〉 정읍 성불사 상 운 스님

작은 암자를 떠나지 않은 천진불 웃음소리



전북 정읍 내장산 성불암은 일요일이면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들썩인다.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전용법당을 운영하는 성불암의 휴일 풍경이다.

불교세가 가장 미약하다는 호남지역에서 성불암 어린이 전용법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각 사찰 어린이 법회도 존폐위기에 놓인 사찰이 수두룩한 실정인데 성불암은 2009년 조계종 포교원에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 중심도량으로 선정할 정도다. 주지 상운 스님에게 남다른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과거 상운 스님에게 수행지도를 지도받던 한 신도가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스님을 찾아왔다. 신도에게는 어린 3남매가 있었다. 3남매는 너무 어렸다. 스님은 어느 날 문득 3남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마"라고 약속을 했다. 이후 3남매는 휴일이면 절을 찾아왔고 스님은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아버지의 따스함을 전해줬다. 행복해 하는 3남매를 보며 스님은 어린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스님은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법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몹시 지루해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봤다. 성운 스님은 지도교사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스님은 조계종 주지 연수교육을 받으며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이때 상운 스님과 인연이 닿아 시작한 어린이법회 지도자 혜밀심 보살은 1만 배 정진을 하며 어린이 포교에 대한 원력을 세웠고 그 원력이 지금의 어린이법회를 만들었다. 성불암은 대한불교교사대학 교육 지원, 전문지도자 양성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도 지도교사 1명을 불교교사대학에서 수학토록 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포교의지를 다지고 있다.

내장산 국립공원의 협조로 어린이 생태학교를 운영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법을 몸소 배우고 익히게 한다.

"청소년 포교와 장학사업은 불교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상운 스님은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청소년들을 발굴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님은 "모두 불자들의 덕"이라며 공을 돌린다.

상운 스님은 신행단체 정진회, 어린이포교, 장학회, 상조회와 함께 매주 금요일 저녁 2시간씩 법당에서 108배, 명상, 참선 등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장학회는 한 불자의 보시 기금으로 전답을 마련해 그곳에서 나오는 토지 임대료, 상운 스님과 성불암 신도들의 후원금으로 1억원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성불암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함께 봉사하고 정진하는 날이 오면 더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작은 목소리를 말하는 스님의 얼굴에 흐르는 잔잔한 미소 속에 어린이 불교의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천 선암사 재산이전 본격화

재무 법무 문화재 등 5개 부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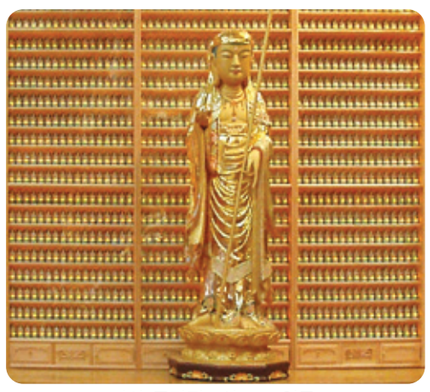
조계종 · 태고종 분규 58년을 종영하고, 41년 순천시 재산관리를 종식하게 됐다. 순천 선암사 재산권이전 인계인수가 3월 4일 순천시청과 선암사, 성보박물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측에서 선암사 주지 덕문 스님,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성월 스님, 정병택 변호사, 김재서 세무사가 참석했다. 태고종 측에서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상하 스님, 선암사 총무 성암 스님, 이동준 변호사, 김성숙 세무사, 선암사 종무소 김도연 재무가 참석했다. 그밖에 조광준 선사모회장, 순천시 서봉남 부시장, 정병준 국장, 손성만 문화체육관광 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 · 태고종 인수위원회는 순천시로부터 선암사의 재산권인계인수를 위해 이날부터 재무, 법무, 문화재, 재산권(동산, 부동산), 행정(순천시) 등 5개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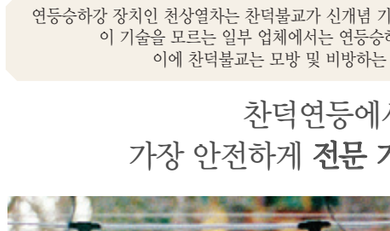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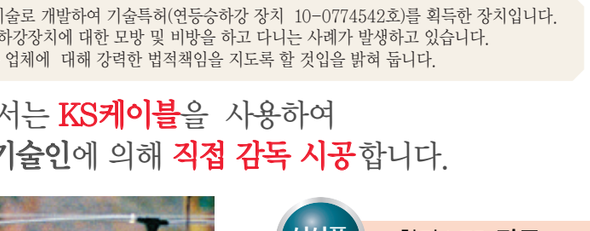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승하강 장치인 천상열차는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하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하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불교’ 검색 결과 앱, 하나 더

부산 홍법사, 국내 최초 사찰 앱 ‘SMART 홍법사’ 선보여… QR코드 적용 등 최신 기술 접목



부산을 대표하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도량 홍법사(주지 심산)와 디에스마인(대표 정덕민) R&D팀이 공동 기획 · 개발한 스마트폰 앱리케이션(이하 앱) ‘SMART홍법사’가 본격 출시됐다.

이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을 통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SMART홍법사’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홍법사의 생생한 소식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란 목적에 따른 응용프로그램을 이르는 말로 간단히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워드 앱’이라고 줄여 부를 수 있다.

홍법사 앱은 홍법뉴스, 예불, 법문보기, 사찰탐색 등 총 4개 카테고리로 나눠졌다. 사진과 텍스트 형식뿐 아니라 음성과 동영상 기능을 통해 법회 현장의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안방의 불자들에게 전한다.

디에스마인 정덕민 대표(홍법사 기획실장)는 “여전히 안드로이드마켓과 앱스토어에서 ‘불교’란 단어로 검색하면 5개 남짓의 앱이 나오는 반면 기독교 또는 교회로 검색하면 수십여 개의 앱이 검색된다”며 “소규모 교회에서도 독자적인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불교계는 아직 스마트폰을 통한 포교에 관심이 저조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법사는 4월 ‘SMART홍법사’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돼 아이폰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S-IPTV’ 스마트폰과 IPTV가 결합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동영상 방송의 송출 및 청취가 가능한 양방향서비스 앱 출시가 임박해있다.

‘SMART홍법사’는 2010년 10월초 이미 앱 등록을 마쳐 사실상 우리나라 불교 관련 앱 중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심산 스님은 “교계에서는 앞서간다고 하지만 사회 전반과 비교하면 한참 뒤쳐졌다”며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단위 사찰에서 전용 앱을 개발하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앱 운영 및 관리할 외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용량이 큰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서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발생해 사찰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박지원 기자

큰스님 릴레이법문 35일 구법여행

부산 여래사 불교대 3월 7일~4월 11일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은 2011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35일간의 구법여행인 큰스님 초청대법회를 개최한다.

‘수행하면 행복해집니다’를 주제로 한 이번 법회는 학기 초 입학생들이 신심과 수행을 통해 참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3월 7일 정관 스님(前 범어사 주지, 영주암 회주)을 시작으로 14일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21일 원허 스님(혜원정사 주지, 전법도량 의장), 28일 원범 스님(선암사 주지,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장), 4월 4일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 여래사불교대학 학장), 11일 대성 스님(前 범어사 주지, 은하사 회주) 등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여래사불교대학 대법당에서 마련된다.

한편, 여래사불교대학은 “교육은 문명의 꽃이요, 문명은 교육의 열매”라고 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두 눈을 뜬 이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로 개원했다. 올해로 22년째를 맞은 대학은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의 인가를 취득해, 정규 과정을 이수하면 포교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051)466-4080 박지원 기자



범어사 보제루 복원불사 ‘개토제’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일제잔재’라는 비난을 받아온 경내 보제루의 복원 불사에 따라, 2월 25일 오전 11시 시굴조사를 위한 개토제를 봉행했다.(왼쪽서 세번째부터) 범어사 총무국장 정산 스님, 정여 스님, 원정희 금정구청장 박지원 기자

청소년 위한 ‘허허원 장학회’

3년째 무료급식소 운영… 지역사회 향한 ‘자비행’

부산 남구 유일의 불교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조계종 허허원이 ‘허허원장학회’로 청소년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허허원(주지 정타)은 2월 28일 정오 부산 범천동 더파티뷔페에서 장학회의 창립기념법회를 갖고, 첫 장학생으로 양궁 꿈나무 박시경 선수(해연중 1)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해연중학교 1학년 신입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5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급식비 및 교재구입비 등 학업에 필요한 소정의 장학금을 졸업까지 총 3년간 지급한다.

정타 스님은 “맑은 가난이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라고 말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허허원장학회는 사찰 인근의 해연중학교와 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측이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면 장학회는 졸업까지 3년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허허원에서는 장학회뿐만 아니라 ‘나누리 청소년자원봉사단’ ‘행복한동행 자원봉사단’ ‘나누리 간병사회’ 등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부산은행 020-01-040927-0 예금주 허허원 박지원 기자

“태허 스님 문도회 활성화”

제4대 부산경남교구 종무원장 성 주 스님 취임



대한불교불입종 제4대 부산경남종무원장에 성주 스님(부산 금불사 주지)이 취임했다.

불입종 부경종무원은 2월 27일 정오 부산 명장동 금불사에서 종무원장 이취임을 봉행했다. 제3대 법륜 스님(성암사 주지)에 이어 4대 종무원장이 된 성주 스님은 이날 취임식을 시작으로 4년간의 임기에 돌입했다.

성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故 태허 스님 문도회를 활성화해 불입종의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안으로 종단의 발전과 종도 간 결속력을 강화하며 밖으로는 이웃 종단과의 화합을 다져 내실 있는 불입종 부산경남교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범어사 울산포교원 여여선원 주지 효 암 스님

문화공간 같은 법당 선보일 터



공업도시 울산의 교통 중심지인 공업탑로터리에 불교문화포교 중심도량 여여선원(주지 효암 · 사진)이 문을 연다.

정식명칭은 ‘범어사 울산포교원 여여선원’. 밀양 삼랑진읍 여여정사와 부산 양정동 여여선원에 이은 3번째 ‘여여선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선원장이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이라는 것. 그러나 앞선 2곳은 정여 스님이 직접 가꾼 도량인 반면, 울산 여여선원은 상좌인 효암 스님의 발원으로 이뤄졌다.

효암 스님은 “사실 다른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여여선원은 은사스님의 절 이름 이면서 부산 여여선원에서 소임을 맡아 살았던 도량이라 그만큼 애착이 가는 이름”이라며 “은사스님께 다른 이름보다는 여여선원으로 정하고 싶다고 하니 흔쾌히 승낙해주셨다”고 말했다.

현재 3월 11일 개원법회를 수일 앞두고 불사는 후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월 초 불사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작년 동지부터 빈공간인 9층에 임시법당을 차리고 주지스님과 2명의 기획팀이 개원 준비에 돌입했다.

선원이 자리한 공업탑로터리 C1020빌딩은 원래 쇼핑센터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폐업한 상태다. 여여선원은 8층 240평 공간에 법당과 강의실, 공양간, 다실 등을 두루 갖춘 도심형 포교당으로 세련되게 꾸며진다. 정작 주지스님은 직전에 기장군 산중의 장안사에서 총무소임을 맡았던 만큼 도심과 효암 스님은 사뭇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처럼 비춰진다.

이어 스님은 “산중에 있다가 도시로 왔지만 겉모습만 바뀐 것 뿐 여전히 이곳은 부처님도량이고 내 마음이기에 어느 곳에서나 한가지 마음”이라며 “산에 있는 사람 따로, 밑에 있는 사람 따로는 아니고, 이 도량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린 일이라 크게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심포교당으로서의 포교전략만큼은 산중에서와는 확연히 다르다. 장안사에서는 기도와 정진을 강조했다면, 여여선원은 기존의 불교대학에 ‘문화’라는 키워드를 접목한 ‘불교문화포교’를 펼칠 예정이다.

효암 스님은 “4월초 개강하는 불교문화대학에는 탱화와 벽화, 전통의식, 건축양식, 역사 등 폭넓은 불교문화에 관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했다”며 “향후 건물의 일부 혹은 전체를 불교회관으로 가꿔, 불교미술관, 불화연구소 등을 설립할 발원도 조심스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은 2010년 10월, 울산을 경유하는 KTX역명 ‘울산-통도사역’을 놓고 기독교계가 크게 반발하며 감정의 골이 깊은 도시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여선원이 들어서는 대로변에는 크고 작은 이웃종교시설 수십여 곳이 밀집해 있다. 그만큼 울산에서 부처님도량을 가꾸어 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많은 않아 보였다.

효암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펴면 인연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 배우고 돌아가서 또 남에게 전해주면서 자연스레 도량이 넓어질 것”이라며 “이웃종교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묵묵히 정법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052) 267-0108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공급가격 별도상담)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㉕

선(禪)과 차(茶)-다선일여(茶禪一如)

찻자리는 그 자체가 선의 세계

'선(禪)과 차(茶)는 그 세계가 하나[茶禪一如]'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고래로부터 선승들은 차를 많이 마셨다. 이미 위진남북조(220~589) 때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선이 크게 흥성하는 당 후기(800년대)가 되면 총림에서 차(茶)는 일상의 하나로 자리 매김한다.

단순한 기호식품인 차를 정신의 세계로까지 끌어올린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선(禪)이다. 선은 근심과 걱정, 번뇌 망상을 제거(즉 청정)하여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茶) 역시 그 목적은 신심(身心)의 안정이다. 이 모두는 '청정(淸淨)'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있다. 선승들은 그것을 '다선일미(茶禪一味)' '다선일여(茶禪一如)'라고 까지 표현했는데, 차(茶)는 선을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선(禪)과 차향(茶香)이 모두 그윽해서 무어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차와 선을 일치시키고, 차를 선화(禪話) 속에 끌어들인 선승은 매우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필한다면 무자화두로 유명한 조주선사(趙州: 778~897)일 것이다. 그는 '끽다거(喫茶去)'라는 평범한 말로 천하를 혼절시킨 선승인데, 누구든 찾아오면 첫 인사가 '끽다거'였다. 조주 선사는 '차 한 잔 드시지요'라는 말로서, 이 이상한 접대방식은 곧 선의 세계를 표출한 정형구로 이해되어 '조주끽다((趙州喫茶)'라는 불멸의 공안을 낳았다.

선종사원에서 차(茶)는 공양과 함께 일상의 하나이다. 대중 모두가 하루에도 수차례 차를 마셨다. 차(茶)와 그 향[茶香]은 정신을 맑게 해 주고, 번뇌 망상을 없애주며, 마음을 청정(淸淨)하게 하여, 궁극의 이상인 적정(寂靜)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좌선을 할 때 졸음을 없애 주고, 소화를 촉진시켜 주며, 특히 불음주계를 지키고 있는 선원에서 빈객을 접대할 수 있는 문화적 매체는 차(茶)가 유일했다.

송대에 이르면 일반에서도 차문화가 유행해 다관(茶館)과 주점(酒店)이 비슷할 정도였다. 이와 함께 선종사원에도 차문화가 크게 발달해 음다(飮茶), 혹은 끽다(喫茶)는 선승의 생활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별도로 다료(茶寮, 큰 다실)가 신축돼 종래 중료(衆寮, 큰방, 대중방)에서 마시던 차(茶)가 다료로 옮겨간 뒤로는 좀 더 격식이 따랐다. 선원의 규범을 기록한 〈선원청규〉에는 "장차 총림에 들어오고자 하는 납자(掛塔, 입방승)는 주장자, 발랑, 정병(淨甁) 등과 함께 다기(茶器)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을 정도이다.

또 선원에는 농장 관리자인 장주(莊主) 외에 별도로 전문적으로 차 밭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 차를 만드는 제다(製茶) 기술, 명차(名茶)의 재배와 생산 그리고 차를 우려내는 전다(煎茶) 솜씨는 일반을 능가했다. "유명한 사찰에서 명차(名茶)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 유명한 차 가운데 하나인 몽산차(蒙山茶, 한나라 보혜普慧스님이 만듦)와 벽라춘[水月茶], 무이암차 중에서도 명성이 높은 수성미(壽星眉)·연자심(蓮子心)·봉미용수 등은 모두 선승들이 만든 차(茶)였다. 차는 선과 어우러지면서 '다선일여(茶禪一如)'라는 독특한 선종사원의 차문화를 형성했다. 이름 있는 선승은 모두 차(茶)의 명인(名人)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원에서 차를 달이는 소임을 '다두(茶頭)'라고 한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다각(茶角)'이라고 한다. 승당(선당)의 다두, 방장의 다두, 수좌료(首座寮, 수좌실)의 다두, 유나실의 다두, 지객료의 다두, 고사(庫司, 원주실)의 다두 등 각 요사마다 다두가 있었다. 이것은 그만큼 찻자리가 많았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방장이 지사(知事)나 두수(頭首) 등 소임자들을 위해 내는 소좌탕 등 소규모 다석(茶席)에서는 담소 겸 선문답도 빈번하게 왕래됐다. 단순한 차 마시기가 아니라, 수행의 하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의 하나였던 것이다.

다석(茶席)과 다연(多宴)도 적지 않았다. 청규에서는 이것을 '다탕(茶湯)'이라고 하는데, 본래는 차를 뜻하는 말이지만 '찻자리' 곧 다석(茶席)을 가리키기도 한다. 선원에서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는 때는 새벽 예불 후 좌선을 시작할 때와 점심 공양 후 그리고 저녁 공양 후에도 마셨다. 특히 중료(衆寮, 대중방)에서 점심공양을 마친 후에는 전 대중이 차를 마셨는데, 찻자리가 끝나야 나올 수가 있었다.

선과 차의 목적은 심신 안정
마음의 평온 이르게 함이 같아

그 밖의 찻자리로는 총림의 4절(四節·하안거 결제일, 해제일, 동지, 정월 초하루)에 전 대중이 함께 마시는 '대좌탕(大座湯)'이 있고, '특위차(特爲茶)'라고 하여 특별히 누구누구를 위하여 차를 대접하는 차가 많았는데, 그 종류로는 방장이 대중들을 위하여 내는 차[堂頭煎点], 방장이 새로 입방한 납자들을 위하여 내는 차[방장특위新掛搭茶], 주지가 신구(新舊) 지사와 두수들을 위하여 내는 차, 또 지사와 두수들이 대중에게 내는 차, 신도승(新到僧, 새 입방승)이 내는 차(茶) 등 그 종류가 〈선원청규〉와 〈직수백장청규〉에 나오는 것만 해도 20여 종 가량 된다.

찻자리[茶席, 茶湯]는 많은 대중이 참석하므로 질서와 법도가 엄격했고, 총림의 행다는 발우공양과 같이 일체 무언 속에 진행된다. 차를 마시며 청정(곧 空, 번뇌를 비움)과 적정(寂靜)의 경지에 합일하고자 했으므로 다례(茶禮)와 행다(行茶)는 예의와 질서를 갖추어야 하고 정숙해야 했다.

총림에서 다례를 중시했다는 것은 괘탑(掛塔, 입방) 절차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입방하고자 하는 납자는 결제 보름 전에 괘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선원청규〉 2권 '결하(結夏, 하안거 결제)' 장에는 "행각승(객승)이 하안거 결제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반월 전(半月, 15일 이전)에 괘탑(입방)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다탕(茶湯, 차)의 인사(人事)를 창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선암사 스님들이 차를 마시며 다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탕의 인사'란 곧 다례(茶禮)와 행다(行茶)이다. 총림의 찻자리[茶席, 茶湯]는 앞에서 보았듯이 20여 종이나 되고, 또 찻자리마다 예법이 다르고, 총림마다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새로 입방하는 납자로서 다례와 행다를 다 숙지하자면 적어도 15일 정도가 걸렸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특별히 다례나 행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다지 신경을 쓸 것까지는 없지만, 중국 선원의 다례(茶禮)와 일본 선원의 다도(茶道)는 선원 생활에 꽤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가운데서도 특위다탕(특별히 초청하는 찻자리)은 더욱 예법을 중시했다. 〈선원청규〉 '부(赴)다탕' 장에는 별도로 한 장(章)을 할애하여 서술할 정도인데, "특위다탕은 그 예법이 매우 정중하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초청을 받으면 모름지기 먼저 참석해야 할 곳과 나중에 참석할 곳을 알아서 그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다판(茶板, 다탕이 있음을 알릴 때 치는 판)과 다고(茶鼓)가 울리면 도착하는 대로 자기가 앉는 자리(자리牌)를 찾아 앉되, 급박하게 서두르거나 어수선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로 본다면 하루에도 다탕(茶湯, 찻자리)이 겹치는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또 〈선원청규〉 10권 '백장규승송(百丈規繩頌)'에는 "신도(新到, 입방승)는 3일 동안 단과료(객실)에서 기다리되, 다탕에 나아가야 한다" "새로 산문에 도착하면 특별히 점다(點茶, 차를 마심)를 하는데, 그 예(禮)가 극히 엄중하다. 무릇 접송(接送, 영접과 배웅)과 잔탁(盞托, 茶托. 찻잔을 받쳐 드는 그릇. 곧 다탕의 위의로서 다례를 뜻함)은 반드시 공근(恭謹)해야 한다. 상하를 공경하고 읍(揖)을 하되, 예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차를 마시는 예법에 대해 "편안하게 잔탁(盞托, 찻잔 받침)을 잡되, 양손을 가슴에 대어 잡는다. 손을 아래로 처지게 하지 말라. 또한 매우 높이지도 말라. 옆 사람과 서로 견주어 보아 상하 고저(高低)가 제등(齊等, 일직선)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묘(大妙)'라고 한다." 즉, 몇 백명이 함께 앉아 차를 마셔도 찻잔을 받쳐 든 팔 높이가 똑같이 일직선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齊等). 그리고 그런 상태를 '대묘(大妙)'라 칭하고 있는데, 상상해보라. 이런 다석(茶席)은 그 광경 자체가 하나의 선의 세계일 것이다.

또 〈선원청규〉에서는 "그런 뒤에 전면에 있는 방장 등 초청한 스님과 마주보고 읍(揖)을 한 다음 마신다. 차가 뜨겁다고 불어서도 안 되며, 잔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 마시는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찻잔을 내려놓을 때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도 안 된다(…) 어소(語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끝나면 서로 합장을 하고 일어서는데, 갈 때는 모름지기 질서와 위의를 지켜야 한다. 급히 가서도 안 되고 큰 걸음으로 가거나 신발을 끌거나 발자국 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주(主, 주관자)가 나와서 배웅을 하면 몸을 돌려 합장해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할 때는 미리 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선원서 차는 손님 접대 수단
찻자리서 선문답도 오가

이상을 종합해 본다면 선종사원에서 다탕(茶湯), 음다(飮茶), 끽다(喫茶)에 따르는 다례와 행다 등은 그야말로 고준한 다법(茶法)으로서 '다선일미(茶禪一味)', '다선일여(茶禪一如)'라는 말을 낳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다탕이 있으면 미리 고지하는데 그것이 '다탕방(茶湯榜)'이다. 다탕이 있음을 알리는 방문(榜文, 벽보)으로서, 주로 특위다탕의 경우에 붙이는데, 승당 밖 양측 벽과 승당 내 상하 칸에 붙인다. 그리고 방장이 새로 입방하는 납자들을 위하여 다탕을 열 때는 일일이 입방승들의 이름을 명기하여 붙이는데 그것을 '다장(茶狀)'이라고 한다.

찻잔의 크기는 다완(茶碗)이라고 하여 오늘날 말차잔 보다 좀 더 크고, 입방할 때는 다기(茶器)를 갖추라고 한 것을 보면 찻잔은 발우처럼 개인이 준비, 관리했던 것 같다. 송대에는 차를 마실 때 향을 피웠는데, 입안에서는 차향, 비근(鼻根)에서는 선향(禪香), 다석은 곧 불국토였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100분의 스님들과 함께 떠나는

선상용왕재 및 지장성지 구화산 고혼천도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 행 지 | 남경-구화산-연운항

일 자 | 불기2555(2011)년 3월26일~4월1일(6박7일)

집 결 | 인천 제2국제 여객터미날 1층

동 참 금 | 1인당 72만원(영가천도 한분당 1만원)

준비서류 | 여권복사본

주 최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타종단 스님 및 신도 환영

문 의 | 02)2091-0408 FAX : 02)952-0408

(사) 대한불교 조동종

금까마귀 하늘 끝까지 날아 미륵님 오신 소식 전하네

㊿ 세속을 떠난 세속 속리산 법주사(하)



법주사 부도밭의 부도와 비들.

수정교를 건너는 동안 눈동자는 돌담 너머 상반신만 보이는 청동미륵대불에 고정됩니다. 미륵대불은 법주사의 상징입니다. 8세기 중엽 진표 율사(眞表律師 생몰미상)가 법주사를 중창한 사상적 배경이 미륵신앙이었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진표율사는 지극한 기도 끝에 미륵과 지장보살을 친견하고 교법을 전수 받았으며 금산사와 법주사를 차례로 중건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대표적인 도량은 금산사와 법주사입니다.

굳이 절의 사상적 배경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속리산 하면 법주사가, 법주사 하면 미륵대불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높이 8m의 기단 위에 25m의 키, 몸무게 160톤의 거대한 미륵대불은 법주사를 다녀가는 사람들의 가슴 깊이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불상의 크기가 웅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륵부처님이 그 앞에 선 중생의 모든 고통을 거두어 주시겠다는 무언의 설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건너 담장 밖에서 미륵부처님을 향해 절을 하고 왼쪽 추래암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보물 제216호 마애여래의상(磨崖如來倚像) 앞을 지나면 부도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마애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입상이나 좌상인데 이 부처님은 의자에 걸터앉은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의자가 아니라 연꽃입니다. 잎이 삐죽삐죽한 커다란 연꽃을 의자삼아 앉아 계시는 부처님, 학자들은 이 마애의상 역시 미륵부처님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애의상에서 아래로 30미터 쯤 내려가 커다란 화강암이 절벽을 이룬 양지바른 곳이 부도밭입니다. 앞에는 석상(石霜 1872~1947) 스님의 부도와 금오(金烏 1896~1968) 스님의 부도가 머리에 눈을 덮어쓴 채 서 있고 뒤에는 탑비 4기가 서 있습니다. 맨 오른쪽 금오 스님의 부도 뒤에 서 있는 것이 금오대종사부도이고 이어서 진하당대선사비와 탄응당대사비, 석상당탑비가 서 있습니다.

탑비를 살펴보니 진하당(震河 1861~1925) 대선사와 탄응당(坦應 생몰미상)의 비는 1927년 같은 해에 세워 졌습니다. 그 때 부도를 조성했는데 잃어버린 것인지 비만 세웠는지 모르지만 부도와 짝하여 서 있을 때 그 가치가 온전한 것이 탑비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탄응당의 비문을 쓴 분은 석상당 신수(信首) 스님이고 진하당의 비문은 퇴경당 권상로 스님이 지었습니다.

유식학의 대가로 이름을 떨쳤던 호경기환(湖鏡基煥) 스님이 찬한 석상당탑비문은 1949년에 세워졌습니다. 본문에 단 하나의 한자도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만 지어진 비문이 이채롭습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석상 스님은 19세에 금강산 신계사에서 진하당의 제자가 되어 경을 배우고 참선일로에 매진했습니다. 석상 스님은 법주사 주지를 맡아 김수곤 처사와 미륵대불을 조성할 것을 발원했습니다.

법주사에는 진표 율사가 조성했다는 미륵장륙상이 용화보전에 모셔져 있었다고 전합니다. 용화전은 현재 청동미륵대불이 모셔진 위치에 있었고 그 안의 미륵장륙상은 당연히 법주사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륙상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하기 위해 주조한 당백전(當百錢)의 재료로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상을 녹여 동전을 만들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1939년 석상 스님이 다시 미륵불의 조성 원력을 세웠지만 일이 순조롭지 않아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력만은 남아 있었기에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주에 힘입어 시멘트로 미륵불상이 조성됐고 세월의 흐름에 볼썽사납게 변한 시멘트 불상은 1990년 당시 주지 월탄 스님의 원력으로 현재의 청동대불로 다시 모셔졌습니다.

깨달음이 불교의 처음과 끝 참된 정화는 마음의 때 씻기

석상 스님의 부도 '대종사석상지탑'은 사각의 기단석 위에 다시 사각의 받침돌을 쌓고 그 위에 둥그스름한 몸돌을 얹은 다음 팔각의 지붕을 올렸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금오 스님의 부도는 사각의 기단과 받침돌 위에 팔각의 기단석이 연꽃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역시 둥그스름한 몸돌은 원만한 우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붕돌이 생략되고 곧바로 보주를 얹어 팔각원당형과 석종형을 고루 받아들인 형태입니다.

부도의 뒤에 갓머리를 쓰고 서 있는 비의 앞면에는 굵직하고 활달자재한 필체로 '금오대선사부도비'라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을 지은 탄허 스님이 빗돌의 글씨도 썼습니다. 금오 스님은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추앙받고 있는 경허(鏡虛 1849~1912) 스님의 법을 이은 만공(滿空 1871~1946)의 법제자 보월(寶月 1884~1924) 스님의 법을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맥은 경허-만공-보월-금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스승인 보월 스님이 40세의 이른 나이에 입적했으므로 만공 스님에게 직접 전법게를 받았습니다.

만공 스님은 제자 보월 스님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래서 불가(佛家)에서는 드물게 제자를 대신해 '제자의 제자'인 금오 스님과 동산(東山慧日 1913~2009) 스님에게 전법게를 내렸습니다. 비석글의 중간쯤에서 만공 스님이 금오 스님에게 내린 전전법게를 발견합니다.



고려 중기의 고승 자정미수 스님의 빗돌.

덕숭산맥하(德崇山脈下)
금부무문인(今付無文印)
보월하계수(寶月下桂樹)
금오철천비(金烏徹天飛)
덕숭 산맥 아래
무늬 없는 도장 지금 전하노라.
보월(寶月)은 계수나무 아래로 비추고
금오(金烏)는 하늘 끝까지 날으네.

금오 스님은 오직 참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자 월산(月山) 스님에게 늘 "참다운 수행자란 첫째도 참선, 둘째도 참선이며, 셋째도 참선이다. 그러므로 오직 참선수행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오 스님은 국운이 쇠퇴하는 시절에 태어나 수행의 길로 들어서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수행의 인연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가풍을 온전히 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면면이 이어져 온 한국의 선수행 전통을 말살시키려는 일제에 대항해 여러 차례의 참선 수행 결사를 주도하고 해방 후에는 절집에 뿌리내린 일제의 잔재를 치워내는 '정화불사'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불교정화운동을 비구승과 대처승의 세력싸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오스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화란 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의 불량한 때를 씻어 버리는 것이 정화요, 몸의 일체비행을 고치는 것이 정화다."

보기에 다소 쓸쓸한 느낌을 주는 법주사 부도밭이지만, 알고 보면 근현대 한국 선불교 역사의 큰 산맥이 우뚝 서 있습니다. 어디 산뿐이겠습니까? 금오스님의 생애는 한국선불교의 큰 물결로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능인전 뒤뜰에 모셔진 세존사리탑.

고려중기 미수 스님 '국존' 칭호 커다란 바위에 빗돌 넣어 보전

청동미륵대불이 서 계시는 뒤쪽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능인전(能仁展) 구역입니다. 조선 인조 2년(1624) 벽암 대사가 중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능인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전각입니다. 그리고 그 뒤뜰에 세존사리탑(충북유형문화재 제16호)이 있습니다. 높이 340Cm의 이 사리탑은 고려 공민왕 11년(1362)에 조성되었습니다. 탑 옆에 조선 효종원년(1650)에 세운 비가 있는데, 홍건적을 격파한 후 공민왕은 그 공덕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했으며 이후 법주사를 찾은 공민왕이 통도사의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이곳에 봉안하라고 하명해 사리탑을 세워 모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금오태전선사 부도.

능인전 옆의 언덕길을 올라 커다란 바위 앞에 섭니다. 이 큰 바위의 몸통 중간에 빗돌이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발상입니다. 큰스님의 비를 새긴 직사각형의 빗돌을 커다란 바위의 몸통에 끼워 넣었으니 말입니다. 비의 주인은 고려 중기의 고승 자정미수(慈淨彌授 1240~1327) 스님입니다. 경북 선산에서 태어나 13세에 출가한 스님은 29세에 삼중대사(三重大師)가 될 정도로 경론에 해박했는데 특히 유식학에 달통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법주사에 머물며 여러 경전을 편찬 간행해 유통시켰습니다.

왕의 지극한 귀의와 존경을 받았던 미수 스님의 비 이름은 '고려국속리산법주사자정국존비'입니다. 국존으로 호칭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대의 백성과 왕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큰 스승이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부도 역시 웅장했을 것인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비만 전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탑비를 커다란 바위에 끼워 넣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빗돌을 바위에 끼워 넣은 지혜에 감동합니다.

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 OK!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않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노인정 경노당,한의원, 산후조리원,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변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5〉

선악시비 벗어나야 부처

학승이 물었다.

"출가하여 맹세코 무상(無上) 지혜를 구할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직 출가하지 않았을 때는 지혜에 쓰임을 당하고, 이미 출가한 이후는 지혜를 사용하는 거야."

問 未審出家誓求無上菩提時如何
師云 未出家被菩提使 既出家使得菩提

출가는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불타는 집은 욕망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활활 타는 집이다. 무상지혜는 최상의 지혜를 말한다. 출가하여 무상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선악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善)도 없고 악(惡)도 없으며 옳은 것[是]도 없고 그른 것[非]도 없는 것이 진리이다.

수행자는 선악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악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운 자가 있고 범죄가 있고 잘 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게 된다. 이런 차별심이 있는 상태에서 지혜를 사용하면 그 지혜는 어디까지나 용광로에 떨어지는 눈[雪]과 같을 뿐이다. 사용한 그 지혜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지혜를 계속 내놓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 이런 지혜는 세상에 끌려 다니는 유랑지혜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악시비에서 벗어나면 세상사가 한 눈에 드러나게 된다. 무엇이 근원적인 처방인지 그 맥이 정확히 파악된다. 따라서 선악시비를 벗어난 사람이 한번 지혜를 사용하면 그 지혜는 매우 적합한 지혜가 되므로 오랫동안 유효하게 된다. 지혜를 사용하는 것과 지혜에 끌려 다니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조주 스님이 하루는 외출을 했다가 한 노파가 논에 볏모를 심고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다.

"만일 사나운 범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파가 말했다.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나의 마음의 상대가 되는 것은 없어요."

출가 전에는 지혜에 쓰임 당하고
출가 후에는 지혜를 사용하는 것

조주 스님이 "퇴옛!"하고 침을 뱉어보았다.
그러자 노파도 "퇴옛!"하고 침을 뱉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직도 그게 있잖아."

師因出外 見婆子插田云 忽遇猛虎作麼生
婆云 無一法可當情
師云唋
婆子云唋
師云 猶有者箇在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마음에 상대가 되는 것이 없다면 가히 여장부이다. 조주 스님은 정말 그런가 하고 노파에게 침을 뱉어서 시험해본 것이다. 그랬더니 노파도 당당히 침을 뱉어 상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상대하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범과 여자가 싸울 때 이런 식의 상대는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뿐이다.

정말로 어떤 것도 마음에 상대가 안 된다면 한 낱 침 뱉는 것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교도가 바로 눈앞에서 험악하게 험담을 해도 전혀 상대하지 않았다. 이교도가 돌아간 뒤에 부처님의 제자 아란이 어찌하여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부처님께 묻자, 부처님은 허공 위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아란에게 되물었다. 당연히 그 침은 자신의 얼굴에 떨어질 것이다. 험담에 대응하지 않으면 말한 사람이 그 험담을 도로 가지고 가게 되어있다는 가르침이다.

'아직 그게 있잖아'라는 말은 아직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말이다. 걸림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그렇다면 진정한 장부라고 할 수 없다. 침 뱉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단지 침을 뱉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안다면 마음에 걸림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때 노파가 어떻게 말하면 되겠는가? 만일 본 납자라면 "겨우 침이나 뱉는 사내로구먼"하고 말하겠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35 한국선과 선어록 6 선문보장록

선의 우월성 강조한 선서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은 선문에서 중요시해 온 글들을 모은 것이다. 곧 기존부터 내려오던 선에 관련된 찬술서 가운데서 고려 중기의 진정대선사 천책이 발췌해 엮은 선서이다. 특히 전등사서에서 금과옥조와 같은 내용만 골라서 엮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선과 교를 대비시켜 가면서 선이 교학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

찬술자 진정국사 천책은 생몰 연대조차 확실하지 않다. 탄생 연도에 대해서는 1206년 내지 1209년의 학설이 있고, 입적 연도마저 분명하지 않지만 1293에 〈선문보장록〉에 서문을 붙인 점으로 보아 그 이후인 것으로 짐작된다. 속성은 신(申)씨로서 고려 태조 때 공신이었던 신염달의 제11대손이다. 약관의 나이에 예부시에 급제한 후 20대 초반에 원묘국사 요세를 참문하고 천태종으로 출가했다. 30대 후반에 동백련사 주지 및 만덕산 백련사 주지를 지냈다. 〈선문보장록〉에다 1293년에 서문을 붙인 것을 1307년 이혼(李混)이 발문을 붙여 간행했다. 전체 구성은 천책의 서문, 본문 86단락, 몽암거사 이혼의 발문으로 이뤄져 있다.

〈선문보장록〉에서 교학보다 선을 우위에 두고, 나아가서 선교차별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은 신라 말기에 본격적인 선법이 수입되면서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다. 이것은 당시에 선의 대세가 조사선 위주의 선풍이었던 것으로부터 나아가서 여래선보다 조사선이 우월하다는 풍조의 반영이기도 하다.

움직이는 것은 바람·깃발 아닌 '마음' 등
교학자 감화시켜 선문 귀의한 사례들 수록

조사라는 개념은 보리달마로부터 연유하는 개념으로서 보리달마를 종조로 하는 선종의 자파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곧 한국에 수입된 초기 선법의 성격이 바로 조사선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선문보장록〉에는 교외별전의 종지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가한다. 그 유래에 대해서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귀조사설'과 '무설토론'을 비롯한 선법 우위의 내용을 선별해놓은 것은 한국선의 특징 내지 조사선풍의 전승에 대한 강한 자부심으로 가득차 있다.

〈선문보장록〉은 상·중·하 3권으로 구성돼 있다. 상권에서는 선교대변문(禪敎對辨門)이라는 제목으로 25칙을 수록했다. 이 대목은 선과 교학을 상대적인 입장으로 간주해 그 차이 및 우월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고 선문의 권위와 우위를 강조했다.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노사나불이 보리수 아래서 비로소 정각을 성취했을 때 이심전심과 불립문자의 방식으로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돈증(頓證)하고 돈오(頓悟)케 했다. 그런데 오직 가섭상좌만 그와 같은 비밀스럽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지에 들어갔고, 나머지 문수와 보현 등 팔만의 보살대중은 가섭이 들어간 경지를 알지도 못했다.]

중권에서는 제강귀복문(諸講歸伏門)이라는 제목으로 25칙을 수록해 교학자가 교학의 열등함을 알고서 선문으로 귀의하게 된 계기 및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인종 법사는 법성사에서 〈열반경〉을 강의했다. 혜능 대사가 법성사의 행랑채에서 잠시 쉬어가는 참이었다. 밤이 되어 부는 바람에 깃발이 움직였다. 두 승이 논쟁하는 소리를 듣자니 한 승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한 승은 깃발이 움직인다 했다. 논쟁이 오갔지만 도리에는 맞지 않았다. 혜능은 곧장 '바람과 깃발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실로 그대들의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 우연히 그 말을 엿듣게 된 인종은 깜짝 놀라며 기이하게 간주했다. 다음 날 혜능을 조실로 맞아들여 바람과 깃발의 뜻을 물었다. 혜능이 그 이치를 설명했다. 그러자 인종은 제자의 예를 취해 선요를 청했다.]

하권에서는 군신숭신문(君臣崇信門)이라는 제목으로 36칙을 선별해 재가인들 가운데서도 선문에 귀의해 활동한 내용을 수록했다.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동광제가 흥화존장 선사에게 물었다. "과인이 중원에서 보배 하나를 얻었는데 값을 매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디다." 흥화가 말했다. "잠깐 폐하의 그 보배를 보여주십시오." 황제가 두 손으로 복두건의 끈을 잡아당겼다. 이에 흥화가 말했다. "군왕의 보배에다 누가 감히 값을 매기겠습니까." 그러자 황제가 크게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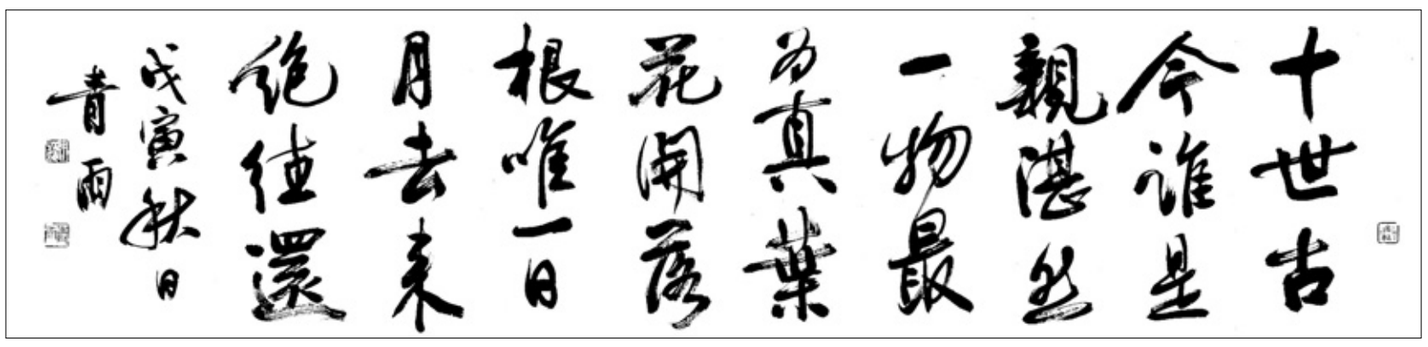
〈선문보장록〉 구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총 86칙에 대해 각각의 전거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전거가 지니고 있는 선문의 우위성을 암암리에 보여주고 있음과 더불어 이들의 모든 내용은 선주교종(禪主敎從)의 입장에서 선과 교학의 일체와 합일 나아가서 선문의 우월성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귀일시키고 있다.

전체 36종의 출전 문헌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15종이고, 멸실된 것은 3종이며, 미상은 20종이다. 현존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가태보등록 ②경덕전등록 ③달마비문 ④벽암록 ⑤봉암산흥법사진공대사충담탑비 ⑥선림승보전 ⑦선원제전집도서 ⑧송고승전 ⑨오등회원 ⑩인천안목 ⑪전등대주선사문답오칙 ⑫전법정종기 ⑬종문무고 ⑭청평산문수원기 ⑮해동무염국사무설토론.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④ 禪詩(선시)



청무절월근화위일친금십
우인왕거유개진물담수세
추환래일락엽최연시고
일 일

誰 : 누구 수
湛 : 괼 담, 잠길 침
絶 : 끊을 절
還 : 돌아올 환

꽃 피고 잎 지나 그 뿌리는 하나

十世古今誰是親 湛然一物最爲眞 葉花開落根唯一 日月去來絶往還(십세고금수시친 담연일물최위진 엽화개락근유일 일월거래절왕환)

십세고금에 어떤 것이 나의 참인가 담연한 한 물건이 진정한 나일세 꽃 피고 잎 지나 그 뿌리는 하나라 해가 뜨고 달이 져도 가고 옴이 없구료.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작가)



"친견용 명품(名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 미리 알아 먼저 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육임CD 프로그램과 육임 친견용 활용서 -

- 지난 10년에 걸쳐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간편성'이 이미 검증되어 있고, 특히 귀신 · 빌미부정 · 귀물 · 묘지탈 적시 및 그 해소 방법이 백미 입니다. 유사(類似)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오행초보자도 즉시 자신있게 활용하여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 최종판 CD프로그램 - 원터치 기능에 의한 당면 정황을 미리 알아 순서대로 철저히 구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승인 없이 여러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가 500만원

曉史集 第二十七集
鼓 龜 命 數
고 귀 명 수
- 육임운명판단법 -
(第1券 甲子旬)
(甲子日 · 乙丑日 · 丙寅日 · 丁卯日 · 戊辰日 · 己巳日 · 庚午日 · 辛未日 · 壬申日 · 癸酉日)
鼓卜子 曉史 共著
龜玉子 乙山
도서출판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 사주를 빼지 않고도 방문 시간별로 즉시 펼쳐 한 면 한 눈에 정확한 일생사 및 나이별 운세 등등 인생전반을 미리 판단하도록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 60갑자일 각 순별 10일치씩 전 6권 / B4규격
정가 350만원

www.taotemple.net

역학문화를 선도하는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 육임컨텐츠개발전문회사 육임나라 주식회사
대표전화 02)738-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 농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주)

소유하되 모든 이와 함께 나눔이 참된 무소유

문수사 주지 혜정 스님



혜정 스님은 … 1931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1948년 문경 봉암사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종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마치고 중앙종회의원, 국제포교사, 동화사 주지 등을 역임한 스님은 2007년 원로의원에 선출됐다. 27년간 문수사 주지 소임을 맡은 스님은 가람 수호와 함께 수행과 포교를 한결같이 실천해 왔다. 현재 도선사 조실, 문수사 주지로서 15년간 서울구치소 재소자를 교화하고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며, 후학을 인도하고 있다.

동쪽으로 보현봉, 서쪽으로 비봉이 절을 감싼 아름다운 경관. 저 멀리 남쪽으로 한강을 지나 관악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삼각산 문수봉(715m) 아래 둥지를 튼 문수사. 1109년(고려 예종 4년)에 탄연(坦然) 스님이 창건한 천년고찰 문수사는 오대산 문수사, 고성 문수사와 함께 우리나라 문수보살의 3대 성지로 잘 알려져 있다.

기도성지로 더욱 명성이 난 일화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개신교 장로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 절에서 백일기도를 한 뒤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명성황후가 봉안한 대웅전 문수보살좌상과 영친왕 이은의 부인 이방자 여사가 봉안한 석가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는 것도 영험한 기도처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조계종의 중흥조인 태고보우 국사가 이 절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실은 문수사가 문수보살의 지혜를 잉태하는 보리도량임을 웅변한다.

사시사철 참배객과 등산객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문수사는 27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 소유의 암자로 퇴락한 곳이었다. 무너져 가던 문수사를 인수해 조계종 공찰로 등록한 이가 바로 혜정 스님이다. 문수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스님이 중창불사를 하며 들인 불사금만 해도 40여억 원에 달한다. 홀로 공부하고 포교하며 불사한 지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이 흐른 지금, 문수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됐고 2800여 평에 달하는 전통사찰보전지역도 확보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혜정 스님이 혼자 힘으로 묵묵히 일하고 정진하며 가람수호와 포교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 선(禪)과 교(敎)를 깊고 넓게 공부한 공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대시교(一代時敎)와 선어록을 두루 연구하고 제방선원과 태국, 일본의 선원에서 참선한 실참이력이 어떤 상황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과 지혜를 갖추는 밑거름이 됐다.

선교에 막힘 없이 공부한 혜정 스님은 다양한 수행법을 직접 체험해 보고 당신에게 맞는 방편을 택해 평생 일과 수행, 포교를 겸전하며 정진해 왔다. 세상살이에 쉴 틈이 없는 불자들에게 스님은 어떤 수행방편을 권할까? 팔순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삼각산을 오르내리며 포교와 불사 일정으로 바쁜 혜정 스님을 어렵게 뵙고 질문을 드렸다. 곧바로 자상하고도 명쾌한 답이 돌아온다.

"모든 수행법은 방편이 다르고 빠르고 느린 차이가 있지만 깨달음이란 귀결처는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KTX나 버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간화선의 경우 화두는 1700 공안에 달할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화두를 선택해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저는 하나의 주력(呪力)을 선택해 부지런히 염하면서 '주력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방편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옴마니반메훔' 주력을 할 경우 '옴마니반메훔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뭣고?' 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출가와 재가의 모든 수행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덕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도자는 원력, 참회, 정진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영명연수 선사의 〈종경록(宗鏡錄)〉에는 '말세 중생은 참회정진을 해야 수행이 잘 된다' 고 하셨습니다. 절을 많이 하신 연수 선사는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자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절 한다' 고 하셨지요. 입과 더불어 마음으로 참회하며 참된 부처님 정신으로 사회, 국가, 인류 모두 행복을 느끼도록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이북 사람들은 물론 기독교와 같은 이교도인들도 잘 되도록 발원하는 것이 참된 원력입니다."

-최근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는 구제역 파동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재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100살이 넘은 의사가 TV에 나와서 '욕심을 내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피가 흐려져 혈관이 막혀 많은 병이 생긴다' 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평소 욕심을 줄여 마음을 청정히 하고 육식 대신 채식(菜食)을 하되, 적게 먹으며 많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육식을 하면 사나워지지만, 채식을 하면 정신과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져 복과 운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맑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주의 청정한 기(氣)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밥, 물, 에너지, 공기를 비롯한 자연과 우리는 동체(同體)입니다. 우주법계와 우리는 한몸이라서 나 혼자 잘 살 수는 없어요. 불교계가 4대강 공사를 반대하고 생태계 보전을 주장하는 것도 생명과 문화재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지혜와 복 함께 닦음이 보살행
베풀려면 뭐라도 가진게 있어야

요즘도 교도소는 물론 가톨릭수도원, 사회단체 등 종교와 계층을 초월한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는 혜정 스님의 포교 원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불교도대회에 다녀온 은사 청담 스님이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어를 공부해 국제포교사가 됐으며, 이후 태국과 일본에서 공부하며 불교교류에도 일조했다. 팔순을 바라보는 노구에도 15년째 매달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을 위해 법문하며 전국 사찰의 법문 요청도 마다하지 않는다. 혜정 스님은 정치인이나 공무원, 군인, 학생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불법의 대해로 이끌었지만, 무엇보다 재소자 교화를 하면서 더욱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셨다.

"정부에서 10여 년 전에 재소자 교화의 공로를 인정해 훈장을 주려했는데, 사양한 적이 있습니다. 수행자가 명예와 이익을 위해 포교 하는 건 아니니까요.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법을 담은 〈법화경〉의 핵심인 '관세음보살품' 즉, 〈관음경〉을 평소에 좋아해서 '관세음보살 발원문'을 지은 적이 있는데, 사형수가 감형을 받아 출소한 뒤 작곡가가 돼 발원문 가사에 맞춰 작곡을 해서 노래로 만들어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남녀의 모습을 떠난 우주 실상(實相)의 참모습을 뜻하는데, 중생이 염원하면 모든 몸을 나퉈 자비행을 하십니다. 재소자 교화를 통해 중생의 마음 속에 간직된 불성이 조금도 물들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수행과 보살행이 차별 없는 구도행이라고 한다면, 일정 시간을 정해 정진하기 어려운 재가자들은 생활 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구도행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보살의 바라밀행도 지혜가 없다면 복 짓는 선업(善業)에 머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혜정 스님은 깨달음을 향한 보살행을 구체적인 일상과 결부시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지혜와 복을 함께 닦아[福慧雙修]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풀려면 뭔가 있어야 하기에 무소유(無所有)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참된 무소유는 아무 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는 하되 모든 이와 함께 나누라는 뜻입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오히려 가족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걸인에게 무엇을 줄 때도 물건을 함부로 주지 말고, 반드시 곱고 따뜻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겸손하고 정성을 다하면 받는 사람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가들은 기업을 소유관념에서 관리개념으로 바꿔 사회와 국가와 더불어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형과 함께 문경 봉암사에 놀러갔다가 성철 스님을 뵙고 출가했다는 혜정 스님. 지혜와 복을 함께 닦는 구도자의 길로 들어서려면 틀림 없이 남모르는 선근(善根)이 있었을 터이다. 당대의 선지식을 너무나도 쉽게 만난 출가 인연이 궁금해졌다.

"그때 봉암사에서 성철 스님을 뵙고 장삼이란 옷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무엇을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형언키 어려운 희열을 느꼈지요. 평생 못 느낀 감정과 성철 큰스님 같은 분을 뵙고 환희심에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과의 인연을 계기로 혜정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한 후, 제방의 여러 선지식들을 모시고 참선 공부를 하게 된다. 기라성 같은 고승대덕을 가까이서 모시고 공부하는 기회를 가진 것만 보아도 이미 공부의 절반은 이룬 셈. 혜정 스님이 가까이서 뵌 큰스님들은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암 스님은 수행자들과 함께 일상을 같이한 분이셨습니다. 늘 대중과 함께 빗자루를 들고 청소도 하시고, 흐르는 물도 아껴 쓰라고 당부하셨지요. 성철 스님은 아는 것이 많아서 무척 해박하셨습니다.



마음의 미동조차 없어야 참된 인욕



하지만 '팔만 장경을 거꾸로 외워도 생사를 초월하는 일에는 소용 없다' 고 하셨지요. 서옹 스님은 늘 자상하시고 모든 면에 관찰력이 뛰어나셨고, 〈임제록〉 특강 하시는 걸 좋아하셨지요. 운허 스님은 바다 처럼 포용력이 큰 분이셨고, 운허 스님과 경봉 스님께 강(講)을 받아 내가 나름의 안목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도인(道人)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상하게 볼 것도 없고 오로지 법(法)의 잣대로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 본 단견과 편견으로 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의 절친(切親)이자 은사인 청담 스님의 가르침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큰스님은 6바라밀과 인욕, 하심 공부와 포교의 원력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늘 자상하셔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건 백 사람 가리지 않고 법문하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한번은 건강이 걱정돼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법문 듣는 사람의 근기를 보면서 차별을 두고 설법하는 것이 옳은 방편 아닙니까?'

'니가 보기엔 사람의 근기에 차별이 있어 보이겠지만, 내가 보긴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입을 다문 적이 있습니다."

'인욕(忍辱)보살' 로 유명한 청담 스님의 제자 답게 인욕과 하심이 몸과 마음에 배인 혜정 스님. 스님이 배우고 실천해 온 '인욕' 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인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세속에서 생각하는 인내와 참된 인욕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참는 건 인욕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나를 완전히 잊고 마음 자체에 움직임이 없어야 참된 인욕입니다. 사랑

화 났을 때 참는 것 인욕 아냐
부처처럼 나를 완전히 잊어야

하고 미워하는 마음, 칭찬과 비방에도 흔들림이 없어야지요.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 팔 다리가 잘리는 고통에서 무심하셨듯이, 참된 인욕은 성불한 경지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입에 올리는 '인욕' 하나도 실답게 실천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하물려 팔만 장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법문들을 삶속에 실현한다는 것을 말해서 무엇하랴. 하지만 이론은 방대할지언정 실천은 오히려 간단할 지 모른다. 독자들에게 주는 혜정 스님의 당부 속에 골자가 들어있었다.

"흘러가는 시간은 회복이 불가하니 함부로 살아선 안됩니다. 하루, 한 시간을 살아도 참되게 살아야지요.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보살정신 아니겠습니까. '도인은 못될지언정 부처님이 보여주신 깨달음의 길에서 절대 이탈하진 말아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쉬지 말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혜정 스님은 노구를 이끌고 삼각산과 저잣거리 사이에서 참다운 삶을 몸으로 보여줄 것이다. 평범 속의 비범은 한결같은 마음과 오롯한 실천에 있음을 문수굴 안의 문수보살이 일러주는 것만 같다. '날마다 산등성이를 다니면서 산을 찾지 말라. 전삼삼 후삼삼(前三三 後三三)을 묻지 말지어다.' 용과 뱀이 섞여 있는 마을에서 용으로 살 것인가, 뱀으로 살 것인가? 하하하!



글=김성우(작가 본지 논설위원) 사진=박재완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三無 스님

'삼몽사' 라는 서산 스님의 유명한 시가 절로 나온다.

주인몽설객(主人夢說客) 주인은 길손에게 어젯 밤 꿈 얘기하고
객몽설주인(客夢說主人) 길손은 주인에게 어젯 밤 꿈 얘기하네
금설이몽객(今說二夢客) 지금 꿈 얘기 하는 두 길손도
역시몽중인(亦是夢中人) 역시 꿈 속의 사람이라네

우리는 분명 꿈을 꾸고 있다. 어젯밤의 꿈이 춘몽이라면 인생살이 생·노·병·사의 한 테를 두르는 경우 대몽이라 함이 무방할 것이다. 일상 겪는 일이지만 춘몽같이 허탈한 일도 없는 듯하다. 고대광실에 살기도 하고 고관대작이 되기도 하는 일련의 일들이 찰나에 지나지 않는 춘몽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몽도 춘몽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단순히 시간의 장단의 차이다. 그러기에 〈금강경〉에 사구게로 설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귓전에 맴돈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

일체의 유위법, 즉 중생계의 생로병사와 빈부귀천 등은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만 그 수행이 올바른 관찰이다.

범어로 꿈을 꾸다는 동사는 svap라 한다. 이 말은 '잠을 자다' '잠에 떨어지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명사형은 svapna이다. 즉 잠이라는 말이 된다. 꿈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잠을 자야만이 꿈을 꾸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잠자지 않고도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한다. 세상살이 모두가 꿈이라고. 인연 지어진 모든 유위의 것들은 모두 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위법이 다 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는 인식에 머무를 뿐이고 그에 맞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은 듯하다. 꿈속에서 누린 부귀영화는 영원을 노래하지 못 하듯 한 인간의 삶에서도 매 한가지인 것이다.

일표일납(一瓢一衲)이라 했던가. 수행자는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이면 족하다는 말이다. 이 일표일납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탈속한 수행자라 하기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쉼 없이 무엇인가를 갖는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갖는다는 것이 그 만큼 부자유스러울 때가 있다. 대게 내가 물건을 이용하기보다 물건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역대 성인의 삶이 모두 그렇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 역사는 변치 않는 강한 교훈을 주고 있다. 당시 누리고 살았던 삶 보다 빈궁하고 쪼들린 삶에 자족할 줄 알았던 이들의 모습이 인류의 귀감이 되고 역사의 바른 지표가 되고 있다. 이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그러므로 수행자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참으로 부자인 것이다. 골동품 수집가라고 한 들 죽어서 값진 찻잔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고, 부잣집 마나님도 값진 진주반지 하나 끼고 가지 못한다.

필요에 의한 소유라면서 마음 뺏겨서야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온 세상을 갖는다

몇 일전 필자는 스승을 잃었다. 평소 안빈낙도의 삶을 즐겼다. 그 흔한 시계 하나 없었다. 변변한 통장도 없었다. 추운 겨울을 나기위한 복주감투 하나 없이 겨울을 나곤했다. 추운데 왜 방한모를 쓰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삭발한 머리가 출가자의 징표인데 모자를 쓰면 상표가 가려지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었다. 그도 그럴 일이다. 시계와 통장과 모자가 없는 스승에게 생전에 삼무(三無) 스님이란 별호를 붙였던 기억이 난다.

'인생은 빈 술잔, 주단 깔지 않은 층계' 라고 쓴 시인의 말이 있다. 비단 깔지 않은 층계를 거친 숨 몰아쉬며 오르내리다 지쳐 그만 쉬고자 스스로 곡기를 끊었던 참 도인. 속진의 때 털털 떨치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고향 길을 찾는 나그네에게 하늘 문이 파랗게 열려 있었다. 나부끼는 반장에서 스승의 유언을 읽는다. 꿈속에서도 그대에게는 할 일이 있다. 포교, 역경, 교학연찬에 매진하라. 이 길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첩경이니….

원앙생! 원앙생! 메아리는 아련히 허공을 맴돌고 있을 뿐.

동국대 선학과 교수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재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난 원래 예언이나 운명 같은 걸 믿지 않네”

수리아의 검-Ⅱ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1)

4년 전. 잠부주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카필라 마을, 이곳에는 며칠 째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즈음에 이런 날씨는 매우 드물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농사일을 놓고 각자의 집에서 비가 그치기만을 바라며 지내야 했다. 인적은 물론이요 들판에서 풀을 뜯던 가축들도 보이지 않는 마을은 텅 빈 듯 조용했다. 빗줄기가 세차게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동네를 가득 채울 뿐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적막한 풍경 속을 가르며 어딘가로 급하게 뛰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다. 비옷도 미처 챙겨 입지 못할 정도로 급한 용무인지, 그 소년은 온 몸에서 빗물이 흘러내리고 신발이 진흙 속에 푹푹 빠지는 데도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그 아이가 어느 집 대문 앞에 다다랐다. 잠시 후,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누군가 불평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장난기 어린 큰 눈, 바로 여덟 살의 난다였다.

“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일단 집 안으로 친구를 들인 뒤, 난다가 물었다. 그러나 소년은 갑자기 맥이 풀린 듯 금방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엉망인 얼굴위로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아무래도 소년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좀 빨리 와보세요. 무니가 왔어요.”

비에 홀딱 젖어 울고 있는 이 소년의 이름은 무니였다. 손자의 외침에 유리 영감이 미처 닦지 못한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주방에서 나왔다. 흰 수염이 덥수룩한 그는 까만 피부에 이목구비가 손자와 쏙 빼닮은 노인으로 키가 크고 허리가 곧아서 수염과 굵게 패인 주름이 아니라면 청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활기가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아이구. 녀석. 누가 찾아 왔기에 난리인가 했더니 무니가 와 있었구나.”

유리 영감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얘 좀 이상해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계속 이래요.”

유리 영감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무니에게 다가갔다. 흐느끼던 아이가 소리 내 울기 시작했다.

“아니, 무슨 일이냐? 울지 말고 이야기를 해보렴.”

“저희 집에 좀 같이 가주세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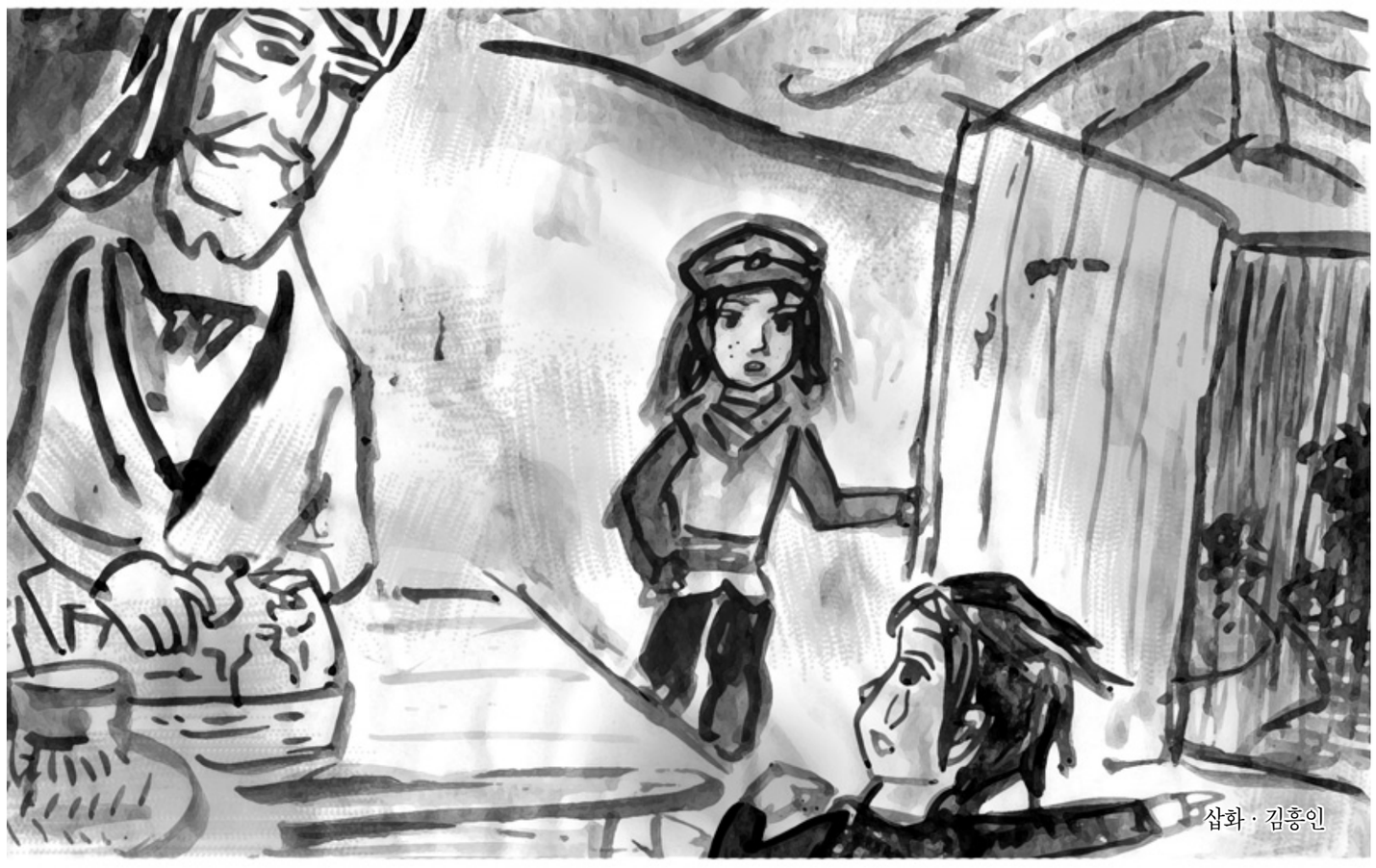
무니는 얼굴에 흐르는 물을 닦아내며 간신히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유리 영감은 순식간에 약가방과 비옷을 챙겨 외출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나서려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는 말했다.

“무니, 너는 여기 있는 게 좋겠구나.”

“하지만!”

“네가 이렇게 비에 젖어 다닌 걸 알면, 엄마가 걱정으로 아픈 게 더 심해질지도 모르는데 도 따라나서겠다고?”

유리 영감이 사뭇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이 보통 그런 것처럼 그의 말투에는 사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삽화 · 김홍인

“맞아.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자주 하는 말 있잖아. 옆에 있으면 거치적거리기만 하다! 그 러니까. 그냥 여기 있어라. 이제 곧 아띠가 새끼도 낳잖아. 마구간 가서 돌마 구경도 하 고. 히. 재밌겠지?”

“아서라. 난다야. 아띠는 한창 예민할 때니 괜히 자극하지 말고 집 안에만 있도록 하려무 나. 절대로 마구간 근처에 가서는 안 돼. 일단 무니 옷부터 갈아입히고 따뜻한 걸 좀 주 도록해라.”

난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혀를 날름 내밀었다. 유리 영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다시 무니를 위로하며 말했다.

“별 일 없을 게다. 엄마가 괜찮아질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 테니, 알겠니?”

무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손자에게 다시 한 번 무니에 대해 당부한 다음 집을 나섰다. 무니와 난다는 큰 키의 노인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걱정스레 바라봤다. 빗줄기가 조금 전보다 더 강해진 거 같았다.

유리 영감이 빗속을 뚫고 집에 도착했을 때 무니의 엄마, 마야는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 온 몸이 끓는 것처럼 뜨거웠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 같았다. 그는 맥을 짚어본 다음, 일단 자신이 가지고 온 루비액에 부엌에서 찾아낸 버찌즙을 타 마야의 입에 흘려 넣었다. 서서히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일단 고비는 넘긴 셈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폐렴 증상까지 나타난 상태였다. 왜 진작 자신을 부르지 않았을까.

“무니는, 무니는요?”

눈을 뜬 마야가 힘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집에 난다와 함께 있네. 아무래도 그게 좋을 거 같아서.”

그녀는 이제 안심이라는 듯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 저 아무래도 산통이 있는 거 같아요.”

얼굴에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던 유리 영감의 손이 멈췄다. 조금 전 맥을 짚을 때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었다. 그는 다시 맥을 짚어보았다. 확실히 산기가 느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아직도 힘들게 숨을 내쉬고 있는 마야를 내려다봤다. 그녀는 아홉 달 임신 상태로 팔 년을 지내고 있었다. 문득 위대한 성자, 리시의 예언서가 떠오르며, 어두운 예감이 느껴졌다. 이 마을에 전해져오는 것은 리시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예언을 했다는 아시타의 예언서였다.

“왜 하필 네게 이런….”

그는 마야의 손을 꼭 쥐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침대 옆에서 깜박 잠이 들었던 유리 영감은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잠에서 깼다.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며칠 만에 보는 햇빛이 눈부시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 마야가 그를 불렀다.

“아저씨, 일어나셨어요?

아침을 차리고 있는 마야였다. 부드러운 눈매에 하얗고 투명한 피부, 아직 병색이 남아있긴 했지만 기운을 많이 회복한 것처럼 보였다.

“몸은 이제 괜찮은 게냐?”

“네. 덕분에요. 고마워요, 아저씨. 와서 뭐 좀 드시겠어요?”

유리 영감은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새삼스레 집안을 둘러봤다. 마야와 무니, 두 모자의 단출한 살림이었다. 그는 의자가 두 개뿐인 조그만 식탁 앞에 앉으며 물었다.

“그래, 산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니?”

마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일주일 전쯤에 한번이요. 그런데 어쩐지 무섭고 불안해서 아저씨께도 말씀드릴 수가 없 었어요.”

“지금은 괜찮은 거냐?”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렸다.

“그런데 무니가 집에 돌아오질 않네요. 아직도 자는 걸까. 어제 많이 놀랐을 거예요. 난다 네 부모님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죠?”

유리 영감은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부부는 세 달 전 그가 부탁한 책도 구하고 여행도 할 겸 도시로 떠났었다.

“무니에게 난다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똑똑하고 어른스럽고, 언제나 무니 를 잘 돌봐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무니 생일엔 난다에게도 자그만 선물을 함께 줄까 해 요.”

마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난다 녀석, 아주 말썽쟁이야. 두고 봐. 이제 곧 무니까지 물들 테니까.”

유리 영감도 마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어젯밤에 가졌던 불길한 예감이 어쩐지 실현될 것만 같은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무니가 폐렴으로 죽었다. 유리 영감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생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충격을 받고 다시 쓰러진 마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무니의 장례는 조촐하게 이뤄졌다. 유해는 마을의 풍습대로 화장해 난다가 산 위에 뿌렸다. 그런 일을 하기엔 어린 나이였지만, 난다가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였다. 그렇게 충격과 슬픔 속에 닷새째를 맞이한 아침, 누군가 유리 영감을 찾아왔다. 그가 막 리시의 예언서를 꺼내 읽고 있던 참이었다. 바로 촌장이었다. 그는 유리 영감을 제외하고 리시의 예언서의 존재를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 그 역시 예언서를 다시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한다며 찾아온 것이엇다. 유리 영감으로서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촌장은 예언서의 처음 몇 장만을 자세히 읽어보고는 표지를 덮어 다시 유리 영감에게 건네주었다.

“리시의 예언이 틀릴 수도 있는 걸까요?”

촌장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난 원래 예언이나 운명 같은 걸 믿지 않네.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 그나저나 자넨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혹 무니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인가.”

“그럴 리가요!”

“그래?”

촌장이 조금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물론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아이를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늘 예언서의 내용이 걸렸거든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오히려 무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 정도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묘하군.”

“하지만 이 아시타라는 리시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장 정확한 예언을 했던 인물이라 던데요. 이상한 일이군요.”

“정말 묘하군. 이젠 예언이 안 맞은 게 거슬린다는 말인가?

수행템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진짜쉼
머리의 번뇌를 쉬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혜로운 템플스테이
※절,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호흡법,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검을 받으며 실천수행
청견스님 직접 수행교육지도
잠을깨고 혼침 졸음 이기며 피로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삼매 깨달음 100% 이해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챙김 알아차림
◉ 대상(누구나) : 출가예정자 행자 사미 사미니는 미래불공덕회에서 수련회비 전액 후원
◈수행일정(예약신청)
6차 3/12 ~ 3/13일 7차 3/19 ~ 3/20일
8차 4 / 2 ~ 4 / 3일 9차 4/16 ~ 4/17일
10차 5 / 7 ~ 5 / 8일 11차 5/14 ~ 5/15일
법왕정사 부산법당
전화 : 051)583-7886
www.법왕정사.kr(수행템플스테이)참조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도를 모십니다
行을 으뜸으로
靈을 정화하는
眞 종도로서
중책을 맡으실 분을 모십니다.
총본산 : 전북 정읍시 산외면 법화원
연락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장 원 사
장원스님 011-677-8525

(주)더나인 칼라 단청 사업단
옻칠단청
천년보장 옻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옻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풀,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 · 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옻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응, 일섭, 우일스님 문중의 수석맏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탱화,개금 3절장인
만성 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탄허기념박물관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 ⑦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은 종교의 개념을 뛰어넘어 전해진 인류의 고결한 정신유산이다. 현대사회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살사상은 대안을 제시한다. 생활 속에서 보살사상을 선양해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가꾸는 일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불교서적을 출간한 김윤수 판사.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른다는 점에서 그 누구 못지않게 열렬한 불자라고 할 수 있다. 우연히 '윤회'와 관련된 불교 서적을 접하게 됐고, 윤회에 대한 궁금증을 밝혀보고자 불교공부에 뛰어든 김윤수 판사. 김윤수 판사가 생각하는 보살사상과 그 실천은 무엇일까.

김윤수 판사는 2월 24일 금강선원(원장 혜거)이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최한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에서 '우리시대의 보살도'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윤수 판사는 "보살행의 핵심은 이타행으로 그 중 법보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불자들이 법보시를 펼치기 위해 불교공부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財보시할 때는 후회없고 法보시할 때는 환희심 일어야

김 윤 수 판사, '우리시대의 보살도' 강연… "불법 공부해 법보시 하는 것이 최고" 주장

저는 법조인으로 오래 생활하며 불교와 인연이 깊지 않았습니다. 고시공부를 절에서 했지만 진짜 불교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판사 시절에는 동료, 선배 판사들 중 불교공부를 하는 분들이 권하는 책을 보아도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난해한 내용으로 어떤 가르침인지 알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젊어서 불교와 인연이 닿았다면 정말 세상도 더욱 열심히 살고 불교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보살사상 핵심은 이타행
보살로 살아야 후회 없어

불교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히 다가왔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우연히 서점에서 윤회에 관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불교의 윤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시 미국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때 그 연구대상자들이 윤회에 관해 진술한 것을 묶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것을 보고 윤회가 정말로 있다면 내가 살아온 삶, 또 우리가 사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삶에서 살아온 것은 제처 두고 차체에 앞으로 사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불교공부로 이어졌습니다. 불과 14~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책을 내게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습니다. 불교에 통달을 해 높은 수준에서 책을 편 것이 아닌 함께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초심자들이 난해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보살'은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 본인의 전신을 칭하는 말로 일반인이나 이타행을 행하는 이를 칭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승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불교도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살이 정립되고 이를 유포하고 선양하게 됐습니다. 보살의 원음은 보디사트바인데 보디는 아뇩다라삼막삼보리의 보디와 같은 '깨달음', 사트바는 '유정'을 뜻합니다.

대승불교에서 이런 보살을 선양하고 보살사상을 널리 펴게 된 것은 그 근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초기불교, 즉 기존의 불교가 이타행을 소홀히 해 대승불교에서 보살사상을 널리 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기불교에서도 이타행의 근거가 나옵니다.

〈상윳따니까야〉를 보면 악마의 올가미에 대한 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수십 명의 아라한들을 각지로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올가미와 인간세계의 올가미에서 모두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그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천신과 인간의 이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말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라.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라"

이는 불교의 전도 선언문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바로 이 부분만을 보더라도 이타의 근본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는 초기경전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는 제자들이 이타의 마음이 없었으며 이를 펼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불교교단이 수행자 자신의 수행에만 치우쳐 중생제도에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부파·대승 논란 떠나
보살은 이상적 인간관

하지만 기존의 교단에서의 이론 구조로는 중생제도가 불가능했습니다. 기존의 교단에서는 궁극적인 목표인 아라한이 되면 무여열반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즉 육신조차 남기지 않는 열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찌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생사를 초월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론구조를 위해 나타난 것이 다시 태어날 번뇌는 남겨둬 다시 태어난 이였습니다. 또는 의생심, 즉 서원으로 생긴 몸을 지니고 다시 태어난 이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기존 교단의 이타에 대한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수행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라고 설한 것입니다.

위로는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수행자를 보살이라 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존 불교와 대승불교의 상관관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해서 쳐다 보지도 않고 대승 불교는 남방불교를 하찮은 가르침이라고 해서 폄하하는 상황인데 이런 두 불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살사상이 출발이 어떻든 간에 불교의 이상적인 모습을 펼치는 것이고 불자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살의 개념은 불교도의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상구 하화를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펼쳐야 하겠습니까.

하화는 이타의 개념인데 결국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경전에서 찾아서 정리를 하면 '보시'라는 단어로 정리됩니다.

보시에는 물질을 필요한 이에게 전하는 재보시와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보시,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가 있습니다. 여러 경전에서는 이러한 보시를 행함에 있어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합니다. 재보시를 할때 마음의 후회함이 없으며 법을 행할 때는 환희심이 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보시는 무엇일까요. 〈아함경〉에는 여러 천신들의 재물보시의 공덕에 대해 부처님께서 '법의 문구 하나 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여러 경전들도 보시 중에 법보시의 중요성을 설합니다.

무외보시는 함께 수반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재물보시와 비교하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법보시의 중요성이 더욱 드러납니다.

특히 현재 시대는 부처님 당시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법보시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경전에서 몸, 골수까지 빼서 재

공부해야 베풀 수 있어
어렵다고 피하면 보살 아냐

보시를 하라고 합니다. 현재에는 내 목숨과 몸을 버려가며 이타행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또 재물보시가 필요로 하는 곳이 아직도 많긴 하지만 과거처럼 헐벗고 굶주려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물질이 풍족해진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이들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스스로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맹목적인 욕망추구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법을 전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승불교에서, 또 이 시대의 불교에서 이타행의 실천은 바로 법,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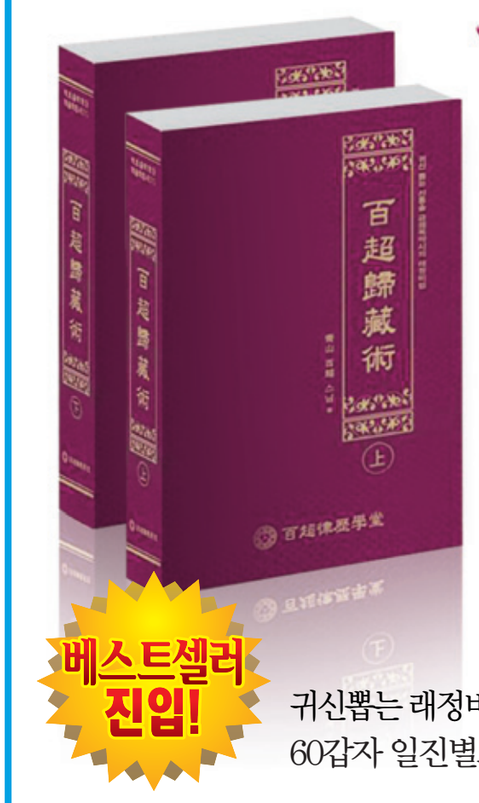
하지만 법보시는 여러 보시 중에 가장 어려운 보시입니다.

법, 가르침을 설하는 것은 그 자신이 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어렵다고 하며 불교공부를 멀리합니다. 어려워서 불교를 잘 모르고, 그 가르침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법을 줄 수 있겠습니까. 보살은 어려운 길도 헤쳐서 남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경전 공부가 어렵다고해서 피한다면 보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교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사찰에서는 법회와 함께 경전공부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스스로 불교경전을 찾아 읽고 모르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보살의 모습입니다. 불교의 이치를 알아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 우리시대 보살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윤수 판사는 1951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제18회)해 1981년부터 20여년간 판사와 변호사로 일해왔다. 2001년 부장판사로 재임용된 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현재 광주시 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육조단경 읽기〉〈반야심경·금강경 읽기〉〈주석 성유식론〉 등이 있다.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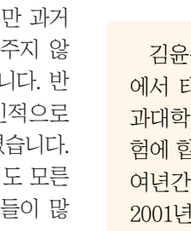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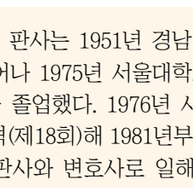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 구요?"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 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질 않는다 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 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다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 구요?"


유남 탁대영원장


창천 백구빈원장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그녀가 히말라야로 간 까닭은?



10년 전 사진 한 장이 인연여행으로



사진작가이자 에세이스트인 이해선은 어느 날 우연히 들쳐본 책갈피에서 낯선 주소가 적힌 종이쪽지를 발견한다. 그것은 그가 10년 전, 인도 라다크를 여행하며 만났던 자신을 쏙 빼닮은 스칼장 아몽(사진)의 주소이다.

라다크는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지다. 국내에선 〈오래된 미래〉(중앙북스)를 통해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지만 티베트 불교를 믿는 순박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다.

기억 속 저편에서 잃어버린 추억을 다시 찾은 저자는 당시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선물할 사진을 들고 라다크로 발길을 옮긴다. 자신에게 군장돌마라는 이름을 지어준 노승 롭상 눌보, 축제장에서 한없이 기쁜 표정으로 춤추던 어린 라마승 아짐바 소남, 라다크식 막걸리인 '창'에 보릿가루 '참바'를 타서 마시는 걸 한 끼니로 삼는 마부들, 친구의 구멍 난 모자 기워준 것을 보더니 자기 것도 기워 달라며 일부러 구멍을 만들어 내미는 어린 라마승들까지…. 저자는 10년 전 그곳을 여행하며 맺은 인연을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하며 재회를 기원한다.

스킬장 아몽의 집은 첩첩산중 히말라야의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 위치한 누부라 밸리 마을이다. 〈인연 언젠가 만날〉은 저자가 인연을 찾아가는 여정과



라다크 마을의 전경.

그들과의 재회가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펼쳐지고 있다. 그만의 서사적 전개는 10년 전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과 어떻게 해후할 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10년 전 라다크를 여행하며 10루피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던 소년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것을 저자가 알게 된 대목에서는 깊은 슬픔과 인간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한다. 또한 스칼장 아몽과 재회한 저자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동굴 사원을 찾아가 여름 한철을 보내는 과정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마음 치유의 시간을 갖게 한다.

사원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황량하며, 꽃도 사람도 없는 외로운 땅이다. 하지만 척박한 땅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어린 라마승들과 달리, 저자는 외로운 자아와 만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낸다. 저자는 그렇게 여름을 보내며 서서히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 나간다. 어린 라마승들과 깊은 인간애를 나누면서 극한까지 내몰린 자신을 보듬는다. 저자는 그렇게 마음을 치유하면서 동굴 사원의 일상을 현미경처럼 섬세하게 관찰하고 이를 사진과 글로 풀어냈다.

책은 여행의 단상만을 토해내는 여느 여행 에세이와는 다르다. 알 수 없는 잠언들로 꽉 채워진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그들과의 인연 속에서 풀어내는 그만의 종교적 성찰이 담겨 있다.

인연 언젠가 만날 | 이해선 지음 | 꿈의지도 | 1만4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고의로 수행 방해하는 비구도 있었다

원영 스님, '율장' 통해 부처님 당시 승가 생활 소개

부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었으며, 어디서 살았을까? 〈율장〉은 바로 이런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어떤 출가자를 받아주고 말 것인지, 어디에는 가고 가면 안 되는지, 어떤 법을 설하고 말 것인지 등 소소한 이야기들이 빼곡히 담겨 있다.

그런데 〈율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금지조항들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도대체 수행자들에게 왜 이런 금지조항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걸까?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10여 년 동안 율(律)을 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 전역에 '불교'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출가자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왕족, 관료는 물론 이며 군인, 상인, 미성년자, 심지어 살인자까지 출가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러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불교 교단을 파괴하고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비구,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비구, 도둑질 하는 비구 등 사회적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부처님은 결국 교단을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 비구, 비구니가 한 가지씩 잘못을 범했을 때마다 율을 제정했다. 〈율장〉안에는 이렇게 각각의 율이 제정되게 된 연유가 남겨져 있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이자,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영 스님은 〈율장〉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출가, 수행, 생활, 사찰, 행사, 계율 총 6장으로 구성된 책은 스님이 출가를 통해 만나게 된 새로운 일상과 수행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 오늘날 자신의 삶에 비추어 부처님과 제자들의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책은 결국 "먹고, 입고, 자고, 사람을 만나는 것 모두가 수행의 일환"임을 말하며, 부처님 당시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찾아 2600년 전 당시로 여행을 하는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과거의 부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이 시대에 불교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인지를 상기시키게 한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원영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28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3~3.1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4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5	행복한 기원	보경	조화로운삶
6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7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오윤희	불광출판사
8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백성욱	김영사
9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아디야샨티	정신세계사
10	비구, 법정	근승랑	동아일보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신간 도서

'법화경' 사경은 부처님 지혜 얻는 공덕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 혜조 역 | 운주사 | 6만5000원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최근 〈법화경〉 전체 7권 28품이 한문과 한글로 쉽게 따라 쓸 수 있는 사경본으로 발간됐다. 책은 일일이 각 한자의 뜻을 달아 〈법화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자펜글씨 교본처럼 활용할 수 있다.

'선시'도 문학적 평가 가능하다



禪, 언어로 읽다 | 송준영 지음 | 소명출판 | 2만3000원

동양에서 1000여 년 동안 격조 높은 문학으로 평가받아 온 선시(禪詩)는 서구식 평론의 짜임새나 문학적 수사법을 따르지 않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저자인 송준영은 "서양의 문학 장르에 잘 맞지 않아 보이는 선적인 어록과 수많은 고승들의 법어, 게송들은 어는 것 하나 문학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전에서 현대로 이어져 온 선시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저자는 오늘날 선시라 통칭되는 시군(詩群)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단순(單純), 명징(明澄), 청량(淸凉) 등으로, 이는 선의 참맛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깨어남과 깨달음의 차이는 뭘까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 아디야샨티 지음 | 정성채 옮김 | 정신세계사 | 1만원

영적인 깨달음은 동굴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명상을 했다든가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나타나는 희귀한 현상이 아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영적인 '깨어남'을 경험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묵언 수련을 주관하는 아디야샨티는 "깨어남은 여행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한다.

책은 스쳐가는 깨어남으로부터 머무는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과 이 두 상태 사이의 경험적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그 사이에 있는 구도자들이 착각과 오해와 자기기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차가운 돌에 깃든 부처님의 온기

전통방식 구현하며 40년 외길인생 걸은 석장조각 남진세의 첫 개인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3월 13일까지 전시



돌은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일으킨 근원이다. 특히 석조문화는 조상들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감성과 예술혼, 미학적 가치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소박하면서도 완전한 조형물이다.

석장조각 남진세는 최근 차갑고 딱딱한 돌에 부처님의 온기를 불어넣은 돌 조각전을 3월 13일까지 대구 성당동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점차 전통의 맥이 사라지면서 전통불교조각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가운데 전시에서 선보여지는 25점의 석불조각은 마치 감로수와 같다.

전통조각이라 하더라도 돌조각은 사용되는 도구에 따라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과 질감이 다르게 나타난다. 남진세 조각가는 이번 전시에서 현 시대에 주로 사용하는 개량된 연장으로 완성한 조각, 개량된 연장으로 완성된 작품을 다시 전통 수작업과 정다듬으로 완성한 조각, 작품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통연장을 그대로 사용한 조각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관람객들이 3가지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직접 눈으로 비교하고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석가모니불'(사진)은 원석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전통수작업으로 정다듬해 여느 작품과는 달리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과 돌의 질감이 잘 살아 있다. '석련지' 역시 전통 기법을 그대로 재현해 남진세 조각가의 섬세하고 정교한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바위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 돌을 신의 현현으로 여겼다. 조상들의 이런 염원은 결국 석불조각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의 석조물 제작 기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게 됐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화강암에 불상을 조각하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스스로 개발한 기술로 화강암에 불상을 새겼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변하면서 돌을 제대로 다루고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어 졌다. 특히 석불상 조각은 부처님의 자비심을 돌 속에 새기는 것이 염화시중의 미소를 헤아리는 것만큼 이나 어려운 일이 됐다.

남진세 조각가는 돌을 잘 다루는 몇 안 되는 조각가 중 하나다. 그는 2006년 제2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에 '석가모니불'로 대상을 수상할 만큼 실력이 뛰어나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거친 돌의 질감을 잘 살려, 온화함이 느껴지는 부처님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평했다.

특히 일반 조각가들처럼 상호(相好)의 외관 비율을 7~8등신으로 작업하지 않고 6등신으로 작업한 것은 부처님의 자비심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해 훌륭하다는 반응이었다. 전통문화의 돌조각들이 점점 값싼 수입공예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남진세 돌 조각전'은 장인의 숭고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053)606-6114

이은정 기자

"석공예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그저 먹고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속 할수록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앞으로 제가 해 나가야 할 일도 결국 이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남진세 조각가를 보며 떠올린 말이다. 그가 석공예 길을 고집한지도 벌써 40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처음 외삼촌 밑에서 돌가루를 마시며 조각을 배우던 소년은 현대와 전통기법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장인이 됐다.

"첫 개인전이라 무척 두렵고 떨립니다. 특히 전통조각을 전시하는 자리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돌조각으로 전시를 여는 데 있어 그가 이토록 마음을 졸이는 것은 그만큼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불상들이 중국, 인도에서 값싸게 들어오면서 한국 불모들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되고, 장인의 혼이 들어간 작품은 그만큼 가격이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한국 불모들이 외면당해 갔죠. 제가 이번 전시를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은 비싼 불상이 좋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부처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부처님을 모셔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전통방식으로 구현된 저의 작품들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리고 싶습니다."



이은정 기자의 뻔뻔(Fun Fun)한 레시피③

톳 주먹밥

나에겐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다.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반을 새로 배정 받고 낯설어 하던 나와는 달리, 그 친구는 소위 자신의 '라인'을 만들 정도로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새 학기에 어느 정도 적응해 갈 쯤,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자리 배치를 바꾸자고 제안 했다. 나는 좋아하던 창가 쪽 자리를 벗어나 교탁이 보이는 정 중앙 자리에 앉게 됐다. 그때 그 친구는 바로 내 앞자리에 앉았다.

그 계기로 그 친구와 나는 서서히 친해져 갔다. 당시 여고생들이 그러했듯, 나도 '이제 너와 나는 절친이다'라는 의미에서 친구의 신상정보를 다이어리에 기록하기로 했다. 내가 "생일이 언제야?"라고 물으니, 친구는 "12월 13일이야"라고 대답했다. 나는 재빨리 12월 달로 페이지를 넘겨 13일 날짜를 찾았다. 그런데 이미 그 날짜에는 '내 생일'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져 있는게 아닌가. 그랬다. 12월 13일은 내 생일이기도 했다.

그 후로 나는 지금까지 매년 내 생일에 "생일 축하해"라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다. 자신의 생일날 누군가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 마치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고등학교 내내 자신은 나중에 탐험가가 될 거라 말했던 친구는 얼마 전 예쁜 공주님을 낳았다. 벌써 두 딸의 엄마가 됐다. 친구를 위해 나는 산모에게 좋다는 톳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선물했다.



#알고가기 톳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비만인 사람들에게 좋다. 빈혈예방에 좋은 톳은 칼슘, 칼륨이 풍부해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시금치의 3~4배에 해당되는 철분이 포함돼 있어 임산부에게 좋다. 톳은 깨끗이 씻은 후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비빔밥이나 샐러드용으로 좋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당근 200g, 표고버섯 1개, 톳 150g, 쌀 1컵, 들기름, 참기름, 소금 약간

음식 만들기

① 쌀은 불린후 밥을 짓는다.
② 말린 톳은 따뜻한 물에 불린 후,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 낸다. 데쳐 낸 톳은 물기를 짜둔다.
③ 당근, 표고버섯, 톳을 잘게 썰어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볶아낸다.
④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은 뒤, ③을 넣고 버무린 후 먹기 좋게 모양을 낸다.

2천만 불자가 꼭 봐야할 뮤지컬!



불기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뮤지컬 원효 WONHYO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2011.4.22(금)~2011.6.12(일) MBC BBS MBC mmcr 02-705-5302
www.musicalwonhyo.com

뮤지컬로 만나는 원효 대사와 요석 공주

BBS 등, 32억 제작비 투자… 불교계 첫 대형뮤지컬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고 MBC창사 50주년을 맞아 MBC와 BBS 불교방송이 뮤지컬 '원효'를 공동 제작했다. 이번 뮤지컬은 4월 22일~6월 12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뮤지컬 '원효'는 가수이자 탤런트로 활동 중인 이지훈과 KBS2 '남자의 자격'에서 천상의 목소리를 선보인 선우가 주인공으로 발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연은 신라시대 최고 훈남 원효와 최고 미녀 요석 공주의 운명적 러브스토리이다. 경주 월정교에 전해 내려오는 사랑의 전설을 통해 14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뮤지컬 '원효'의 제작 담당을 맡고 있는 BBS 박원식 보도국장은 "사람들이 불교가 어렵다는 인식을 깨트리기 위해, 뮤지컬을 최대한 극적이고 재미있게 제작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 '궁'의 OST를 담당했던 김연보 작곡가와, 최고의 뮤지컬 안무가인 이란영씨가 참여해 공연은 한 층 더 풍부해 질 것"이라며 "이미 이문열 작가님에게 대본 감수를 받고, 30여 차례나 수정을 할 만큼 공연의 재미를 더하게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순수창작물로 총 32억원의 제작비가 투자되는 이번 뮤지컬은 불교계의 첫 상업 뮤지컬이라는 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효'에는 이지훈, 선우를 비롯해 이정용, 강태을, 김아선, 성기윤 외 28명의 배우진들이 출연하며, 연출은 뮤지컬 '선덕여왕'을 담당한 김승환이 맡았다. (02)705-5302 이은정 기자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상담) / 010-3534-8366(농장)
■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세월이 한 번 가면 언제 또 오늘이 오겠느냐”

황벽사3


황벽 선사 묘탑으로 가는 논둑길과 황벽촌 농가들.

청년에게 황벽산에 황벽나무가 있는지 물었지만 모른다. 황벽나무는 오동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다. 실제로 황벽사 주변에는 황벽나무가 없다. 아마도 황벽 선사가 이곳에 주석하면서 고향의 황벽산 이름을 빌려왔는지도 모르겠다.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 다리를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난 길을 조금 걸어가자 농가가 몇 채 보인다. 농가 앞은 계단식 논들이다. 황벽 선사의 묘탑은 농가 맞은편 산자락에 있다고 한다. 순례 일행은 청년이 안내하는 대로 논둑길을 걸어가면서 상념에 젖는다. 논둑길에는 절에서 나왔음직한 반듯한 기단석들이 듬성듬성 방치돼 있다. 옛 황벽사의 자취들이 분명하다. 문득 황벽 선사 묘탑을 찾아가는 나는 무상감에 몸서리친다.

이전에 왔던 어느 비구니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논둑길을 걸었다고 하고, 어느 비구스님은 몇 십 년 만에 의문이 풀려 덩실덩실 춤을 추며 건너갔다고 한다. 지금 나는 가랑비 같은 상념을 털고 눈을 똑바로 뜬 채 걷고 있다. 황벽촌의 논둑길 여기저기에 동글동글한 말똥들이 보인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다는 문장의 의태어가 말똥의 모습에서 생겨난 것일까.

화엄·유식에 달통한 임제 황벽 선사 만나 선의 길로

황벽 선사의 제자 중에 배휴 거사가 고족(高足)의 재가제자라면 전법제자는 임제선사이다. 임제는 황벽 회상에서 수년 동안 정진했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논둑길은 1000년 전 이곳에 머물렀던 임제의 눈에도 낯익었을 터이다.

임제의 휘는 의연(義玄), 조주(曹州) 남화(南華, 현 산동성 연주부 단현) 사람이고 속성은 형(邢)씨였다고 한다. 효심이 깊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출가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윽고 젊은 나이에 출가의 뜻을 이루자 처음에는 경(經)을 섭렵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그는 화엄사상과 유식사상에 정통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젊은 임제는 한때 투철한 견처를 얻지는 못했던 듯하다. 훗날 임제는 견처를 얻지 못했던 시절을 대중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대덕들이여! 우물쭈물 헛되이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지난날 이 산승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빛이 없는 절망 속에서 이리저리 깨달음을 찾아 방황했다. 흐르는 광음을 헛되이 보낼 수 없어서 가슴속은 타오르고 마음은 갈팡질팡하여 이곳저곳에서 가르침을 찾아 물었다.”

임제가 방황을 멈춘 것은 황벽 선사를 참방하고 난 뒤부터였다. 그래서 선지식과의 인연이 절대적인 것이다. 임제는 황벽 선사 회상에서 깨달음의 인연을 지어갔다. 〈임제록〉에 나오는 선화를 보면 임제가 황벽 선사 회상에서 공부해 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황벽 선사가 승당 앞으로 오는 것을 보고 좌선하고 있던 임제가 눈을 감아버렸다. 이에 황벽 선사는 바로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임제가 방장실로 뒤따라가 사과했다.

“황송합니다.”

황벽 선사가 수좌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비록 젊지만 이 일을 알고 있군.”

이 일(此事)이란 불법의 근본을 뜻했다. 수좌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다.

“노스님께서는 발꿈치를 땅에 딛지도 않고 이 젊은 사람을 증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을 땅에 딛지 않는다는 말은 당시 속담으로 확실한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었다. 수좌의 말에 황벽 선사는 자신의 입을 손바닥으로 쳤다. 말을 함부로 했다는 몸짓이니 실수했다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수좌가 말했다.

“아셨으면 됐습니다.”

황벽 선사가 선방에서 졸고 있는 임제를 보고는 주장자로 좌선상(坐禪床) 판자를 한 번 쳤다. 임제는 눈을 뜨고 황벽 선사를 보더니 다시 졸았다. 그러자 황벽 선사는 또 다시 좌선상 판자를 쳤다. 그리고는 웃간(上間)에 있는 수좌에게 가서 말했다.

“아랫간(下間)의 젊은 후배는 좌선하고 있는데 수좌는 여기 앉아 망상만 일으키고 있나니, 그래서 무엇을 하겠는가.”

“노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에 황벽 선사가 좌선상 판자를 한 번 치고는 나가버렸다.

황벽 선사, 황제의 뺨 쳐 단제선사 호를 하사받다

어느새 임제는 부방장 위치인 수좌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었다. 수좌가 번번이 젊은 임제 앞에서 어리둥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선화를 보면 어느 새 임제는 스승 황벽 선사 앞에서 할을 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

황벽 선사가 부엌으로 들어가 공양주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는가.”

“대중스님들이 먹을 쌀 속에서 티나 돌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는가.”

“두 섬 닷 말을 먹습니다.”

“너무 많지 않은가.”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황벽 선사는 공양주를 때렸다. 공양주가 아직도 법을 묻는 선문답인 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 일을 공양주가 임제에게 말했다. 그러자 임제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위해 노스님과 선문답을 하리라.”

이윽고 임제가 황벽 선사 옆에 다가서자 황벽 선사가 부엌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그러자 임제가 말했다.

“공양주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대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뒤 임제가 황벽 선사에게 말했다.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임제는 쌀을 단순한 쌀로 보지 않고 자성(自性)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많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황벽 선사가 말했다.

“왜 이렇게 이르지 않는가. ‘내일 한 번 더 먹습니다’ 라고 말일세.”

“무슨 내일을 들먹일 게 있습니까. 바로 지금 잡수시지요.”

그러면서 뺨을 올려붙이려고 하니 황벽 선사가 말했다.

“이 미친놈이 또 여기 와서 호랑이 수염을 만지는구나!”

이에 임제는 바로 악! 하고 고함을 치고 나가버렸다.

임제를 주시해 왔던 황벽 선사는 어느 날 대중스님들에게 설법했다.

“내가 대적(大寂: 마조) 문하에서 수행할 때 함께 공부했던 도반으로 대우(大愚)라는 분이 계셨다. 이 분은 일찍부터 제방을 행각하여 법안(法眼)이 매우 고명하셨다. 지금은 산중에 계시는데 대중생활보다는 초막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신다. 나와 헤어질 때 그분이 간곡히 부탁하기를 ‘훗날 근기가 뛰어난 수행자를 만나거든 나를 찾아보도록 얘기해주시오’ 하였느니라.”

임제는 자신에게 한 말임을 금세 알아차리고 고안현(高安縣) 깊은 산중에 있는 대우 선사를 찾아다니게 된다.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몇 번을 참방한 끝에 깨달음을 얻는다. 황벽과 대우라는 걸출한 두 선사가 임제를 대오케 했던 것이다.

산자락으로 들어가 희미한 길을 조금 더듬어 나가자 대숲 속에 두 개의 묘탑이 보인다. 먼저 보인 부도에는 벽랑지탑(壁朗之塔)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벽랑 선사 탑인데 벽랑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안내해준 청년도 우물쭈물하고 만다.

두 번째 보인 묘탑이 바로 순례 일행이 찾던 황벽 선사 묘탑이다. 탑에는 단제운조탑(斷際運祖塔)이라고 새겨져 있다. 조탑(祖塔)이란 조사탑(祖師塔)의 준말일 것이다. 그리고 운(運)은 희운(希運)을 줄인 법명일 것이다. 그런데 단제(斷際)란 별호나 시호 같은 느낌이 들고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하다. 숙소로 돌아와 알아보니 과연 흥미로운 인연이 깃들어 있다.

당나라 선종은 연호를 대중(大中)이라 했다. 그래서 선종을 대중천자(大中天子)라고도 불렀다. 대중천자가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조카인 무종의 핍박을 피해 한때 출가하여 향엄의 제자가 된 적이 있었다. 이후 대중 사미는 염관 제안국사 문하에서 서기(書記)를 보았다. 그때 황벽은 염관 문하에서 수좌로 있었다. 하루는 황벽이 예불을 보고 있는데 대중 사미가 물었다.

“부처나 법에서 찾지 않고 예배하여 무엇을 찾고 있소.”

이에 황벽 수좌가 말했다.

“부처나 법은 물론 대중 사미한테서도 찾지 않고 항상 이렇게 절을 하고 있소.”

“절은 해서 무엇을 찾으려 하오.”

절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는 투로 말하자 황벽 수좌가 대중 사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대중사미는 ‘이런 난폭한 자가!’ 라고 하며 얼이 빠졌다. 그러자 황벽 수좌는 연달아 두 번을 더 때렸다.

“이런 경우에는 난폭하다느니 어쩌니 하고 따질 때가 못 되오.”

이후 대중 사미는 무종이 죽자 환속하여 황제로 즉위하였는데, 황벽 수좌에게 세 번 뺨을 맞고 선리(禪理)를 알게 된 고마움을 잊지 못하여 추행사문(麤行沙門; 난폭한 사문)이란 호를 하사했다. 그러자 즉시 상공 배휴가 간했다.

“폐하께 황벽 선사가 세 번 손을 댄 것은 폐하의 삼제윤회(三際輪廻)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삼제란 삼세(三世)와 같은 말이었다. 선종은 배휴의 주청을 들어 호를 다시 단제 선사라고 고쳐 내려주었다. 상공 배휴가 선기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황벽 선사의 호가 점잖지 못하게 두고두고 ‘깡패중’ 정도가 될 뻔했던 사건이었다.

선사의 묘탑을 보고 있자니 사자후가 들리는 듯하다.

“너희들은 모조리 술지개미를 먹는 놈들이다. 행각을 한답시고 남들의 비웃음이나 사면서 안이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세월이 한 번 가면 언제 또 오늘이 오겠느냐. 이 큰 당나라 땅에 선사(禪師)가 없음을 너희들은 아느냐.”

선지식을 눈앞에 두고 헛되이 돌아다니지 말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씀이다. 묘탑 주위에 선대나무들이 죽비가 되어 나를 후려칠 것만 같다. 황벽 선사의 사자후를 듣게 해준 청년이 새삼 고맙다. 청년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사례하려고 하자 기겁을 한다. 대숲에 일렁이는 황벽촌의 아침 햇살이 청년의 마음처럼 순결하고 아름답다.〈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선지식을 눈앞에 두고 헛되이 행각하지 말라경책하는 황벽 선사의 모습.

since 1999
행복한 禪여행
아제여행사
다음검색 “아제여행사”
☎ 02) 730-4008
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옛 선사들의 선적지 !!
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제여행사 !!!!


초조달마대사 육조혜능선사 마조도일선사 백장회해선사 위산영우선사 양기방회선사 대혜종고선사 고봉원묘선사 무상선사

달마에서 혜능대사까지 8일
• 출 발 : 4월 7일 (1차), 5월 12일 (2차)
• 동참금 : 1,690,000원 / 1인

대혜종고 / 고봉원묘선사 천목산 4일
• 출 발 : 3월 29일 (1차), 5월 21일 (2차)
• 특 전 : 890,000원 / 1인

중국 강호선종사찰 8일 (11분선사)
남악회양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앙산선사석상선사 / 양기방회 / 석두희천 / 동산선사
• 출 발 : 2011년 3월 14일 [8일] (1차), 5월 23일 (2차)
• 동참금 : 1,590,000원 ~ / 1인
※ 뜰앞의 잣나무 (정찬주 작가) 증정

불탑의 나라 미얀마 / 방콕 8일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방콕
• 출 발 : 2011년 4월 14일
• 동참금 : 1,990,000원

* 캄보디아 앙코르왓트 5일
– 앙코르와트, 바푸온사원의 전설
– 3월 11일 / 990,000

* 실크로드&불교로드 7일
– 병령석굴 – 트루판 – 돈황석굴 – 우루무치
– 4월 12일 1,850,000 / 1 인

*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5일
– 성도 – 아미산 – 낙산대불 – 무상선사주석지
– 4월 6일 990,000

* 구화산 / 보타산 6일
– 지장보살 / 관세음보살화현처
– 4월 10일 1,090,000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기도, 성취, 영험 도량

각종 난치병, 치매, 사업성취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전통 범음 범패

실전위주 학인모집
사물, 바라, 나비무, 화청,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상담학
각 사암 행사전문.
선착순 무료강의 모집
031)953-3328
010-8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서 류 대 행

전통사찰 등록
종교법인 등록
문화재 등록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구, 해동사)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빙의 퇴마 전문

정신질환, 영가장애,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들, 상담 치료 전문
일주사 주지 일주 합장
061)337-9989
017-624-9989

불교대장경과
고려대장경을
구입하실 분은
전화 요망합니다.
018-383-5077

조상영가천도와 축혼제(畜魂祭)

• 일시 : 2011년 4월 27일
부산국제신문사대강당
조상영가천도와 구제역으로 희생된 가축들의 원혼을 해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강문홍.조갑연.강병국.강병철.진현주
010-3871-2398
후원 : 동양당한약방(경남 산청군)

수강생 모집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천도재 및 각종의식

최선을 다하여
집전하여 드립니다
- 법문, 바라, 나비춤, 살풀이 -
사찰 행사 전문
010-3772-5431

수강생 모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사찰운영 같이 합시다

혼자 절을 가지면 죽을 때 가져갑니까?
잘 되지도 않는 곳에 혼자 절을 지어
짧은세상 어렵게 살지말고 준비 다 되어
있는 여기 6억원 들여 시내 한편에 목조로
불사를 잘한 이곳에 7천만원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수행합시다. 등기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니스님을 원합니다
아니면 보살님도 괜찮습니다
011-9837-866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구례 대화엄사
010-3639-966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태안
041)673-9874

경북지역 천년고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27-0637

절 운영하실
비구님 스님
모십니다
063)543-5551
010-4427-2256

사무실 직원
(숙식가능 자) 구함
미국 LA사찰에서
부전사실 스님 모십니다
042)272-1223
010-5792-30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이하, 서울 금호동
02)2234-3310
010-6260-3310

남녀 재가불자
공부하실 분
조건없이 배려
하겠습니다
김해 효운사 055)342-0379
011-856-4578 (효운 스님)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부산기장 일광, 세룡암
011-553-099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1479번지 법성사
064)732-9903
010-3443-99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양주시 백련암
016-293-1705

전통의약 비법전수(포교활동)

• 전수내용 : 악성관절염, 악성목허리 디스크, 악성골수염, 악성오십견, 갑상선 물혹, 편도종양등으로 병원에서 완치가 어려운 분에게 해당
• 전수희망자 : 포교에 뜻있는 스님(유료)
• 무료치료 : 아픈스님께 무료보시
010-6285-3703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영가를 쉽게 찾는 방법

띠와 생일만 알면 됩니다
(보시금 10만원)
인생이 답답하신 분, 비밀스럽고 곤란한 일 예약 상담
바랍니다. (보시금 5만원)
농협 356-0394-311943 이정화
010-6662-8853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7232-0384

부모님 동의로
10세 이상 동자로 살아갈
인연을 받습니다.
현재 동자스님 3명,
모집인연 3명
011-9393-4965
전남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보리사

명리학 무료 특강

사주,궁합,택일,성명학
초급 3개월 완성
한문 모르시는 분 한자교육
명심보감 사서삼경 특강
남녀 단체 환영 (수양하실 분 기숙가능)
상도서당 명리원
043)852-1952
011-2090-8001

옴훔훔마니달리훔타칙

• 아주 특수한 기도법
승려에 한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동양철학 천지명리 제14기 수강생모집

자연이치학의 오묘한 섭리를 인간에 결부한 하도락서 진수를 알리는 타 철학추종을 불허하는 천지명리학 학문으로써 관심있는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타 명리를 접하였으나 이해가 잘안되고 임상이 안되는분 환영합니다. 승가로부터 전해오는 비법입니다.



• 명리학 :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연구반
• 부 설 : 풍수학 과정 타로학 과정
*스님은 수강료 반액 할인우대
수료시는 명리학사자격증 수료증 회원증 수여함
철학관운영 및 사암스님, 연구과정수료자는 강사자격증 수여함
천지명리학회 한국본부 진광불원 강의 : 학회 회주및 학장 법상스님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424-10 망미역4번출구
051)758-3599 휴: 010-3583-3556
http://www.sajucall.com (사주콜) E-mail:jkcho2002@korea.com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9308-9919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대, 부산
010-3871-5330
011-574-3303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시간 : 아침, 사시
(부산 가야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주지스님 모심
삼하안거 비구니 스님,
사미니 스님도 가능.
면접 후 결정, 일체 양도함.
복지에 뜻있는 분이면
신도도 환영.
010-4512-4248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동대문, 미국뉴욕, 중국 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 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大韓佛教謁平僧伽會

弘法과 救濟中生의 참 모습을 보일 慶州李氏 승려로 宗團 구분없이 一家 스님들을 會員으로 모십니다.
많은 동참으로 자성의 죽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佛紀 2555年 2月7日
初대會長 萬翁 道一 (전 해인사 주지)
연락처(수석 부회장) 弘山 玄佛 (禪農敎團 총재)
041)943-7620 / 016-850-12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심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공 념 학 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saju79.com

탈 종 공 고

• 법 명 : 지성 (이승인)
• 주 소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451-3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청도 한재 미나리 진액

흰 민들레, 강화약쑥
비만해소, 고혈압, 수족냉증, 노화방지, 숙취제거, 간질환, 위암, 폐암, 유방암, 항암효과, 변비, 만성피로
60개 1박스 6만원 (스님,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농협 356-0150-1551-73 정승열
지 장 암 010-2367-0200
010-5251-4196 (대명화보살)

통증 제거 기술 무료교육

스님들 요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원심수기요법을 배워 활용하신다면,
사찰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수기는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배우는데도 쉽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원심수기는 침이나 지압도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도 아닌 우리전통기술입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연락처 : 한 의 원 019-305-9138
* 또한 불자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숙식제공 가능)

불 자 정 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평수 : 45평 육합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0(목조)
- 요사 : 60평
- 부지 :10,000평
- 가액 : 4억 5천

- 위치 : 충남
- 법당 : 20평
- 요사 : 45평
- 부지 : 173평
- 가액 : 1억 5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부지 : 200평(종중)
- 가액 : 4500만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한 국 불 사

- 위치 : 경기지역
- 가액 : 2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10-3154-353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중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 5천만원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건물에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면적: 대지 235평 (실사용 300평이상)
- 건물 40평
- 산세수려하고 계곡 접한곳 으로 풍수지리상 길지
- 도심과 5분거리로 교통편리
- 가액: 2억 2천만원 (대출 5천 5백만원포함, 가격절충가)

010-8550-6552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전 세 : 6억1천
- 위치 : 경북
- 부지 : 40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11억3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8억 5천만원

해운대 바다근처 토굴

- 대지: 56평
- 법당 및 요사, 방 3칸
- 해운대 10분거리, 송정비닷가 5분거리
- 정남향, 뒤편산세 최고
- 주차장 확보 , • 총금액 1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중학교앞)
- 3층 37평중, 법당 20평,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영단, 침실, 직무실, 거실겸 주방
- 계단실내해우소, 뒤에 마당공간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739-7788
010-9282-5885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근린시설, 종교집회부지로 등록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전원주택(귀농)터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야 . 논 총 954평
- 가액 : 7천 5백만원

011-848-24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주택밀집지역, 시장 3분거리
- 4층건물 중 2층
- 상단후불탱화,신중탱화,삼존불외지장단
-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집기일체
- 주차장완비, 전체평수 약 4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7400-9972

사 찰 안 내

- 위치 :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대지 :19,217㎡(5,830평)
  건물 : 4개동 (법당, 요사채 등)
- 법당, 수미단(부처님 3불, 소불)

010-4225-0012
02)403-3333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외동
- 1층 50평
- 아늑한 포교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011-9322-8888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뒤
- 건물 2채, 인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 가액: 4년 임대료 1,000만원

011-9393-49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500만원(조절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외관 근교
- 평수 약 510평, 메뚜기 노는 잔듸마당
- 법당 25평 목조단청 산신각 단청,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3천만원
- 융자 4천포함(가액조절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5054-67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 소천면 소재
- 평수 5000평(대지 200평)
- 조경완비
-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가뭄이 없음
- 앞-탁 트인 전경, 낙동강 상류
- 절이나 펜션으로 적격
- 청정지역 물 A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418-1232

부처님자리 (참선방 요양원)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변역 잠실역 1시간 內거리
- 평수: 3000평, 4000평, 5000평(선택)
- 특징: 정남향 조용하고 쾌적하며 접근성이 매우양호
- 가액: 평당 22만원(주인직접)

010-2215-36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명. 서울권
- 45평, 삼존불
- 보증금 2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A급(절충)

02)2618-09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영산IC에서 10분거리) 화왕산 군립관광지
- 평수: 대지 (종교부지 600평)법당 30평/산신각/칠성각/CCTV
- 요사채(60평, 방4, 화장실2개) 석탑, 주차장, 창고(20평)텃밭
- 특징: 산밑에 위치, 계곡 및 실개천, 전경이 100여호 마을과 사찰이 도로 인접하여 교통편리한 기도사찰, 부곡온천 10분
- 가액: 3억 8천만원, 유동가격 대지40~50만원, 시세이하양도
- 스님 건강문제로 급양도/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6252-3225

일본사찰(급)안내

- 위치 : 후쿠시마
- 총평수 약 400평
- 요사채 약 30~40평
- 법당용 약 20평
- 미니 2층
- 안성사찰도 같이 인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10-2003-3944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임야 10,000평, 대지 200평

010-4876-5535

좋은절터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000평, 임야 500평
- 별도부지 230평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 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3억 5천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011-373-0697

사 찰 안 내

- 충남공주시유구읍연종리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 기타잡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8억

041)551-8672
011-9413-8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시장 부근
- 평수 2층. 60평 옥상 外 다락방 5평 정도
- 법당 (아미타삼존불,약사여래불,칠성여래불)
- 방3칸, 공양간, 에어컨 3대
- 시설 완벽함,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51)556-14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포교원(급)안내 전월세 가능

- 법당, 주지실, 대기실 겸 주방 1, 샤워실 1, 세탁실1, 창고1
- 약 (45坪) 칸막기시설 되어있음, 철학 사주 가능
-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약 600m 주택가 밀집지역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87-15B 01호
- 가액: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 전세 6천만원,월세 1000만원~45만원

010-8677-1138/010-3391-3538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분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는 2억, 전세는 1억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위치 좋음
- 평수 500평
- 산신, 용왕, 법당, 요사채 각1동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

011-595-152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공찰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1억 3천만원)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 우포늪(정남향)
- 면적: 총대지 320평
- 부대시설: 법당, 조립식 철골 24평(단청필) 석탑,화실,조립식 24평 요사,적벽돌기와 27평,황토방,4평
- 가액 : 1억8천만원(절충가)

010-6582-2848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건물에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면적: 대지 235평 (실사용 300평이상)
- 건물 40평
- 산세수려하고 계곡 접한곳 으로 풍수지리상 길지
- 도심과 5분거리로 교통편리
- 가액: 2억 2천만원 (대출 5천 5백만원포함, 가격절충가)

010-8550-6552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전 세 : 6억1천
- 위치 : 경북
- 부지 : 40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11억3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대지 :19,217㎡(5,830평)
  건물 : 4개동 (법당, 요사채 등)
- 법당, 수미단(부처님 3불, 소불)

010-4225-0012
02)403-333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외관 근교
- 평수 약 510평, 메뚜기 노는 잔듸마당
- 법당 25평 목조단청 산신각 단청,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3천만원
- 융자 4천포함(가액조절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5054-67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 소천면 소재
- 평수 5000평(대지 200평)
- 조경완비
-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가뭄이 없음
- 앞-탁 트인 전경, 낙동강 상류
- 절이나 펜션으로 적격
- 청정지역 물 A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418-1232

부처님자리 (참선방 요양원)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변역 잠실역 1시간 內거리
- 평수: 3000평, 4000평, 5000평(선택)
- 특징: 정남향 조용하고 쾌적하며 접근성이 매우양호
- 가액: 평당 22만원(주인직접)

010-2215-36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명. 서울권
- 45평, 삼존불
- 보증금 2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A급(절충)

02)2618-09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영산IC에서 10분거리) 화왕산 군립관광지
- 평수: 대지 (종교부지 600평)법당 30평/산신각/칠성각/CCTV
- 요사채(60평, 방4, 화장실2개) 석탑, 주차장, 창고(20평)텃밭
- 특징: 산밑에 위치, 계곡 및 실개천, 전경이 100여호 마을과 사찰이 도로 인접하여 교통편리한 기도사찰, 부곡온천 10분
- 가액: 3억 8천만원, 유동가격 대지40~50만원, 시세이하양도
- 스님 건강문제로 급양도/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6252-3225

절(사찰)별장하실분

- 경남 합천군 삼가면 대지 4300평
- 전통한옥3채, 황토집4채,화장실
- 대나무산책로및 최고의조경
- 교통요충지,주변환경좋음
- 총35억 가격절충및 분할판매가능
- 사찰및 연수원, 전통식품업 최적
- 네이버[연꽃인연]검색후연락바람

055)934-4488
010-3521-6920

걸망 풀어놓기 좋은 곳

- 위치 : 부산 금정산자락 식물원옆
- 빌라 4층. 57평, 정남향
- 공기 좋고 조용하고 전망최고
- 단독 엘리베이터
- 가액: 2억 3천

011-440-0835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골
- 포교당, 별장, 사무실, 작업실, 전통찻집 갤러리샵으로사용가능한집
- 3층건물
- 가액: 상담 방문 후 절충가능

011-9917-70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부천역에서 5분거리) (부천 자유시장 3분거리)
- 4층건물중 2층 40평
- 보증금 10,000,000 월 6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32)655-66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 거리
- 건물 : 법당 (목조 토기와) 20평
- 시멘트 벽돌 슬래브 40평 38평(2동) 회 2동 (30평)
- 토지 : 종교용지 (850평)
- 임야 : 4,000여 평 (수련원, 복지 시설, 태양열 발전 등 적지)
- 가액 : 10억(조절가능)

010-3822-4565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IC 10분 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전답 1,6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평당 1만 4천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사 찰 안 내

- 위치:부산시 수영구 망미2동
- 신법당 :40평
- 전세 : 1,000만원 월세 :35만원 (즉시법회가능)
- 시설은 보시고 협의결정

051)908-3383
010-6589-4550

절(사찰)별장하실분

- 경남 합천군 삼가면 대지 4300평
- 전통한옥3채, 황토집4채,화장실
- 대나무산책로및 최고의조경
- 교통요충지,주변환경좋음
- 총35억 가격절충및 분할판매가능
- 사찰및 연수원, 전통식품업 최적
- 네이버[연꽃인연]검색후연락바람

055)934-4488
010-3521-6920

병 원 의 원 요 양 병 원 임 대

- 지역: 충주시내 요지(양도가능)
- 건평: 1~4층(510평)
  대지 860평
- 완벽시설, 엘리베이트 有
- 주차 40대 가능

010-9781-3570

포 교 원 안 내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 3층건물 중 3층
- 평수 67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주차시설 무한가능함
- 대체의학 하시는 분 환영

010-9924-0013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 건물 42평
- 삼존불, 지장보살
- 즉시 법회가능
- 전세 5천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0-3506-228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삼존불, 탱화 등
  각종 비품일체
- 집세 포함 1천만원

010-6780-5599

사 찰 안 내

- 위치:부산시 수영구 망미2동
- 신법당 :40평
- 전세 : 1,000만원 월세 :35만원 (즉시법회가능)
- 시설은 보시고 협의결정

051)908-3383
010-6589-4550

포교원 인수하실분

- 위치 :부산시 북구 화명동 지하철3번 출구앞(바로옆 롯데마트에 무료주차가능)
- 평수 : 140평 (최상의 교통 및 시설을 자랑합니다)
- 전세 보증금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절충 및 운영방안 협의가능
- 모든시설완벽하며,즉시법회가능합니다
- 포교원 및 불교대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010-8677-7339

포교원겸 사찰안내

스님 법사님 보살님 불자님께

- 위치:전주시내 중심
- 상가주택, 4층 중 뒤로 2층, 독채, 계단 별도 이용
- 대지 122평, 마당있음
- 건평 45평, 큰방 4개, 다용도 방 1
- 거실 주방 깔끔, 욕실 2개, 전체 리모델링
-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큰 시장 5분거리
- 다양한 용도 사용가능, 대가족 환영
- 부처님 법단 원목조각 13자, 집기 대형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에어컨, 기타 등등,부처님만 모시고 오세요
- 전세: 5천 7백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저렴

010-3650-8481

봄나들이 전 마스크 챙기세요

대륙에서 불어오는 위험한 바람, 황사

폭설로 시작한 3월, 꽃샘추위보다 무서운 복병은 따로 있다. 바로 황사이다. 중국 황하지역에서 발생한 모래폭풍이 계절풍을 타고 한반도까지 불어온다. 최근에는 황사의 발원지가 내몽고사막쪽으로 확대되어 한반도에 좀 더 큰 입자까지 날아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근래에 공업화된 중국의 모래에는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인체에 더욱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봄과 함께 찾아오는 알레르기

봄에는 유독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황사, 큰 일교차, 꽃가루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알레르기란 쉽게 말해 과민성반응이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2009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8백만 명에 이른다. 전체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다. 서구화된 생활환경, 공해, 각종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로 인해 알레르기 환자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우리나라 성인 중 약 10%, 어린이는 약 20%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은 꽃가루에 의한 화분증과 일교차, 황사, 집먼지진드기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천식, 피부염 등이 있다.

봄철에 걸리기 쉬운 질병과 예방법

봄은 황사, 꽃가루 등 알레르기원인 물질이 증가해 계절성 알레르기 환자들이 증가한다. 호흡기나 눈, 피부 등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황사의 먼지나 중금속이 기관지나 피부를 통해 알레르기 질환에 감염된다. 유아, 어린이, 노약자 및 천식, 만성호흡기질환자들은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 결막염

모래먼지로 인한 자극성 결막염 및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발생한다. 결막염에 걸리면 눈이 가렵고 시리며 충혈과 눈곱, 눈물이 나올 수 있으며 눈을 비빌 때 점성분비물이 보이거나 결막이 물집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눈을 비비면 결막염은 더 심해진다. 가볍게 여기고 치료하지 않으면 각막궤양이나 각막혼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다.

결막염 예방방법은 황사주의보나 경보가 있는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는 것이 최선이다. 외출 시에는 눈을 건조 하게 만드는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고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면 인공눈물을 사용하여 눈의 건조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 눈을 비비지 않아야 하고 손을 자주 씻어 주고 귀가 후 즉시 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천식 및 호흡기 질환

봄철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천식을 알레르기 천식이라고 한다. 잔기침이 2~3주 이상 지속되면 알레르기 천식을 의심해봐야 한다. 몇 달째 기침과 가래가 그치지 않고, 천명(쌕쌕거리는 소리)이 지속된다면 알레르기 천식일 확률이 높다. 특히, 열과 콧물은 없지만 밤에 유난히 기침을 심하게 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높다. 단순 감기로 방치해 두면 천식이나 폐렴으로 발전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만성호흡기 질환은 평소에도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나 황사발생시 기존의 증상이 악화된다.

호흡기 질환에는 실내 습도를 높이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사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예방적 차원에서 흡입치료제를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알레르기성 비염

투명하고 점도가 낮은 콧물이 시도 때도 없이 흐른다. 코를 풀다 반나절 만에 휴지 한통을 다 썼다. 코를 자꾸 풀다보니 머리까지 지끈지끈하다. 이것이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다. 큰 일교차로 코의 점막이 약해지고 코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일교차를 줄일 수는 없으니 낮과 밤에 적절한 체온 조절에 힘써야한다.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언제든지 입고 벗을 수 있게 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으로 코에 찬 기운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목도리로 목의 체온을 잘 보호해야 한다.

또한, 알레르기성 질환은 신체면역력과 함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피부 질환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엔 딸 내보낸다' 는 속담이 있을 만큼 봄철 야외활동은 피부의 적이다. 겨울 내 닫혀있던 땀샘, 피지선이 열려 분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꽃가루, 먼지 등이 자극하게 되면 피부염, 피부 알레르기가 발생하게 된다. 여름보다도 높은 자외선 지수와 각종 먼지와 중금속까지 섞인 황사바람이 그 원인이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외출 후엔 2중 세안으로 청결에 힘쓴다. 세안뿐만 아니라 모래 바람을 뒤집어쓴 두피와 모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러워진 모발은 얼굴과 등에 스치면서 여드름을 유발한다.

알레르기 이기는 6가지 생활습관

1. 손 씻기
2. 마스크 착용하기
3. 하루에 물 2L 마시기
4. 식염수로 코 속 세척하기
5.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 착용하기
6. 자외선차단제 바르고 긴팔 옷 입기
7. 실내 온도20℃, 습도50% 유지하기

참고: 한국건강관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진영기자 chu4q@gmail.com



황사 경보 단계별 행동 요령

구분	오염도 기준 (1시간 평균)	행 동 요 령
주의보	300㎍/㎥ 이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자제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
경보	500㎍/㎥ 이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중대 경보	1,000㎍/㎥ 이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④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건강한 마음, 행복한 人生

싫은 인연 이으려면 '복수하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있기 마련이다. 그중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오해와 미움 등으로 생기는 '관계악화' 일 것이다. 그것이 직장이던 가정이건간에 꺼림직하거나 고통스러운 관계가 있으면 삶이 일단 피곤해지고 불편해진다.

얼마전 상담을 하러 온 직장인이 있었다. 그는 아직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는데 벌써 이직이 세 번째라고 하였다. 그는 상사들이 너무 부당하고 일방적이며, 권위적이라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맨날 그런 상사들만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그 분 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많이 힘들어하시겠네요?"

"그럼요! 다들 뒤에서는 욕하고 불평불만들이 대단해요"

"정말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겠어요. 그럼 다른 분들도 다들 관두셨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참을 만 했 겠 죠 . 전 성격이 약간 다혈질 이 라 서 욱 하는 걸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대들곤 하거든요. 분노가 한 마디로 끓어오르죠. 그러고는 사실 후회하지만…"

"그러세요? 그럼 육체적으로 다른데 이상 있으신데는 없으신가요?"

"없긴요. 한번씩 열을 내고 나면 혈압이 올라서 머리가 깨질거 같구요, 늘상 소화도 잘 안되고, 잠을 자도자도 피곤하고,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도 잘 안오고, 마음이 매일 불편하니 매사 짜증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 같아요"

▶ 첫 번째 솔루션 '용서'

용서하지 못해 겪는 원한과 분노 증오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무게감으로 내 자신을 무겁게 억압하게 되고, '화'의 뜨거운 독성 에너지로 심신을 황폐화 시켜버리게 된다. 용서해야 속박에서 지유로워질 수 있으며 불편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용서(forgive)' 라는 단어는 '위한다' 라는 'for' 와 '주다' 라는 'give' 의 뜻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하여 주고 베푸는 것이 용서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어 어원을 풀어보면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라는 뜻도 있다하니 확실히 '용서' 라는 행위는 상대가 아닌 속박된 자신을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축복된 일중에 하나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난 그 사람을, 내 전 재산을 갖고 튄 인간을, 살인마를 나를 억울하게 모함한 사기꾼 등을 어찌 그리 말처럼 허울 좋게 "그래 용서하마"하고 되겠는가

▶ 용서하는 삶에 이르는 길

관계악화에 있어서는 분노와 증오, 집착, 자존심 등과 같은 감정들이 완전 뒤엉켜 있는 상태라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 버리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파괴적인 이러한 감정들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다른 누구가 아닌 나에게 얼마나 해롭고 불필요한 것들인지 자각해야할 것이다.

분노는 나를 속박하고
용서는 내게 자유준다
행복해지려면 용서 뿐

그리고 반대로 용서의 유익함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에 상관없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영향 받지 않는다.

상대에게 복수를 하거나 계속해서 원망하거나 증오심을 품는 것은 따라서 더 넓은 시각에서 생각해야 한다. 다시 그 지긋한 사람과 인연 맺고 싶다면 복수하라. 다시 또 그 불행한 일을, 괴로운 일을 겪고 싶다면 증오하고 저주하라.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할 때 내 마음의 빗장이 가볍게 열리게 되어 있고, 삶의 무게로 다가오던 내 인생의 해답이 풀리게 되어 있다.



(02)576-7575

카루나마인드힐링연구소 박지숙 박사

불자정보 826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 면적 40평
- 아미타, 관음, 지장, 신중, 후불탱화
- 큰방3개, 큰 창고 1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80만원

055)383-77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미곡동
- 팔공산 백안 삼거리 부근 60평
- 앞에는 잔듸밭, 뒤는 연못있음. 텃밭
- 법당 요사채• 방3,식당,거실, 공양실 인테리어 원목구조 시설 A급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4040-8858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오산시 도심에서 10분거리
- 마을뒤 산자락 위치
- 법당 15평, 주방 거실1, 방사3
- 주차 10대
- 약간의 보증금 월 30만원

010-2287-7668

경주 남산
약불암
미륵도량 양도
상담 후 절충
010-9375-2747

도심사찰(급) 포교원 안내
- 용인 죽전동(분당과 경계) 아파트 밀집지역
- 7층건물 7층 132(분양)-평당 매매 300만 이상
- 1억이상 원목, 단청함-시설완벽
- 도심포교 원력 최고지-현재 운영잘됨
- 이주관계로 급하여 인연분께 양도
- 4억 3천(절충가능)
- 빠른 연락과 직접 오시어 확인 요함

017-265-93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저렴.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어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최고시설
- 법당, 방1개 (친견실), 주방
- 평수: 40평(전세금:1,500만원, 월세 40십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결정 (꼭필요한분만전화주세요)

010- 7533-4488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재역에서 2분거리 (지하철3호선)
- 3층 건물중 2층 약 15평
- 보증금 시설 합 3천만원 (월 45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강남에 이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 현재 포교원 및 철학

010-2060-449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 적 : 사찰 전시관 2층(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기념품판매장 총 2,500평
임야 : 1만 5백평 (임야 입구 30만평 대형저수지)
田 : 약 600평 (국도 옆) (건물 신축 가능)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전시관 내 약 50여점 크리스탈 개금불 외 1,300 희귀 불상 전시 (국내최대). 전시관 외벽 일체 크리스탈 장식 만다라 액자로 장식. 년간 10만명 참배, 천도재 월 10건 이상

■ 전시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금불은 주지스님이 10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금불로서 일본으로부터 불교예술의 새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도 황홀함에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민간방송 총 17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상호절충 (임야, 사찰, 전 불할 매매 가능)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항 성취관', 또는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을 입력 하십시오

■ 연락처 : 054) 249-1023. 010-4504-0174
(필히 내왕 하셔서 직접 보십시오)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㉓ 진흥왕과 황룡사

황룡사 불상, 아쇼카왕이 도왔다



신라시대 최고 사찰인 황룡사가 지금은 쓸쓸히 그 터만 남아있다.

진흥왕은 신라의 영토를 넓힌 최고의 군주로 세속적 발전과 더불어 불교 또한 성대하게 발전시켰다. 그 중 황룡사(黃龍寺) 건설이 가장 대표적이다. 황룡사는 진흥왕 14년(553)에 경주 월성의 동쪽에 궁궐로 세워질 계획이었다. 그런데 공사 도중 황룡(黃龍)이 나타나 절로 고쳐 짓기 시작했다. 공사를 시작한지 17년 만인 진흥왕 31년(570년) 완성됐다.

얼마 뒤 지금의 울산 땅에 사람이 타지 않은 배 한척이 들어 왔다. 배안에는 인도의 아소카왕이 보낸 금과 철, 불상 등이 실려 있었다. 아소카왕은 "철 5만 7000근, 금 3만분으로 석가삼존불상을 만들려다 뜻을 이루지 못해 금과 철, 그리고 삼존불상의 모형을 배에 실어 보낸다"라는 글을 적어 보냈다. 이것으로 진흥왕 35년(574년)에는 삼존불상을 조성했다.

아쇼카왕, 철·금·불상 모형 보내와
5.6m 삼존불 황룡사에 조성했지만
9층 목탑과 함께 몽고병란 때 소실

높이는 장육(丈六: 한길 6자, 16자라는 뜻이며 5.6m 내외)으로, 이 불상은 신라 불교를 다시금 새로운 입장에 서게 했다. 신라는 인도의 아소카 왕도 조성하지 못한 불상을 조성했으며, 전불시대의 가람이자 인도불교의 법맥을 전승한 최고의 성지를 서라벌에 구현했다.

93년에 걸친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황룡사는 〈삼국사기〉 경명왕조에 등장하는 신라삼보(新羅三寶: 신라의 3가지 보물) 중 두 가지인 황룡사 9층 목탑과 장육존상을 가지고 있는 최고 사찰이었다. 하지만 이 황룡사는 1238년 몽고병란으로 완전히 불타버리고 만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 황룡사에 대한 역사적 복원은 항상 논란을 가져온다. 늪지를 메워 그 위에 지은 황룡사는 중문·목탑·금당·강당이 남북으로 길게 배치된 1탑식 배치였다. 그러나 장육존상과 목탑 등이 조성된 후 금당 좌우에 작은 금당이 배치되는 1탑 3금당식이라는 독특한 가람 형태를 지니게 된다. 탑의 좌우에 종루와 경루(經樓)가 대칭을 이뤄 배치됐으며 주변은 길고긴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종루에는 거대한 종이 있었는데, 몽고가 침입했을 때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추론해 볼 때, 황룡사는 신라사회에 불교적 위상을 공고히 한 사찰로 짐작 해 볼 수 있다.

1976년부터 시작한 발굴조사에서 금동불입상·풍탁·금동귀걸이·각종 유리 등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으며, 높이 1.82m에 이르는 대형치미는 건물의 웅장한 규모를 짐작케 한다.

황룡사는 단순히 사찰이나 불상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다. 신라가 불교를 통해 이루려 했던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절터이자, 인도 최고의 군주였던 아쇼카왕의 인연, 문수보살의 예언으로 건립된 탑 등 단순한 불교신앙을 넘어 이 땅에 불교와 국가가 맞닥뜨리는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㊽ 늘 궁금한 세상



낮달이 기울면서 도량엔 긴 그림자들이 내려 안기 시작했다. 밥 냄새 물고 올라간 후원의 연기가 여기저기 밥 때를 알리고 다녔다. 도량 위 차밭에선 백구 한 마리가 고양이를 쫓고, 이 고랑 저 고랑으로 도망 다니던 고양이는 간신히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숨을 돌렸다.

앞뒤 없는 풍경소리가 도량을 흔들고, 경을 넘기던 스님의 손끝에는 어느새 목탁이 걸려있다. 멀리 차 밭에서 백구가 짖는다. 백구가 생각이 많아진 것 같다. 나무 밑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짖어댄다. 나무에 매달린 고양이는 백구가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후원의 밥 냄새도 도량의 그림자도 점점 짙어만 갔다.

공양하고 나오니 백구도 고양이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선가 백구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된 걸까. 백구와 고양이는….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늘 세상이 궁금해진다. 지금 보고 듣는 것들이 늘 세상을 궁금하게 한다. 어느 해 이른 봄 사천 다솔사에서.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③

고려 태고보우 선사의 '죽암(竹庵)'

中無一物本來淸 (중무일물본래청)
擧世無人窺戶庭 (거세무인규호정)
鳳嘯龍吟破禪寂 (봉소용음파선적)
一竿明月滿江城 (일간명월만강성)

속에 아무것도 없어 본래 맑으니
온 세상에 그 뜰을 엿볼 사람 없네.
봉황의 휘파람, 용의 울음소리 삼매를 깨뜨리는데
한 줄기 밝은 달은 강마을에 가득하네.

고려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 스님은 13세 때 회암사(檜岩寺)로 출가해 당시 사대부인 채홍철(蔡洪哲)의 개인 별장인 전단원(栴檀園)에서 동안거 결재 중 '무(無)'자 화두로 활연대오(豁然大悟)했다. 스님은 "마음을 밝히는 것이 불(佛)이요,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교(敎)"라고 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무자화두로써 늘 학인을 제접했는데 "옷을 입거나 밥을 먹을 때에도 항상 고양이가 쥐를 잡듯, 닭이 알을 품 듯"이 화두를 챙기라고 했다.

스님은 "막힌 관문 깨뜨리고 나니 맑은 바람이 태고에서 부네[打破牢關後 淸風吹太古]"라는 오도송을 남겼는데 이로 인해 '태고(太古)'라는 호를 가지게 됐다. 위 시는 대나무의 특성으로써 죽암(竹庵)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에게 가르침을 보인 것이다.

속이 비었다는 것은 자성(自性)이 공(空)하기 때문에 본래 청정함을, 뜰을 엿볼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죽암 스님의 수행의 깊이가 그러함을 비유했다. 봉황과 용의 울음소리는 비어있기에 더욱 큰 사자후를 토해내고 있음을, 죽암이 위치한 달 빛 받은 강마을의 정경을 통해서는 스님의 비어있음으로 인해 진정 한가로울 수 있는 경지를 그려냈다.

태어나면 이름을 부여받는다. 부처님께 귀의해 계를 수계하고 나면 법명을 받는다. 자신의 법명이 무엇인지, 왜 그 법명이 내게 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들의 법명,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본받을 대상으로 삼아보자. 그 삶은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는 정도(正道)의 생(生)이지 않을까? 보우 스님이 법명을 시제(詩題)로 삼은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대행 스님

이 세상이 벌어진 것은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런데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느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것이 자기 영혼에 한데 붙어 돌아가니까 악업 선업 지은 것이 바로 그 영혼과 더불어 같이,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남의 몸을 빌려서 부모로 삼고선 인간이 세상에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다 들어 있어서 거기서 화도 나게 하고 거짓말도 하게 하고, 사기도 치게 하고 좋은 일도 하게 하고, 착한 일도 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번연히 알면서도 그냥 도둑질하게 하고 강도질하게 하고 이러거든요. 이래도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므로 내가 지금 이끌어 드리는 것은, 모두가 마음이니까 모두가 그놈들이 한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한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하고 거기다가 되입력을 해라 이 소립니다. 즉 입력이 돼서 나오는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팔자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해요. 자기가 나왔던 자리로 다시 디밀어 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 구멍밖엔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없애려면 앞서 입력이 됐다가 지금 현실로 나오는 자리에다가 다시 입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없애지 못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영계성 업보성 윤회성 세균성 인과성이 천체…, 말로 다 어떻게 하리까. 그것이 그대로 입력이 된 거기 때문에 살살 그냥 나오는데, 병이 났다고 시식을 하고 경을 외우고 아무리 해도 그게 됩니까?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죠.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건둥건둥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 하지만 깊이 생각하신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속에 그렇게 들어 있는 그 의식들이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따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못 고쳐서 내쫓는다 하더라도 '음, 네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네 몸을 네가 아프게 할 수 있어? 네가 한 거니까 네가 낫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되입력을 해서 되넣는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구정물을 새 물로 대치를 해서 써라.' 이 소리죠. 내가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생활하는 일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어떤 거든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들을 때는 아리송하겠지만 자꾸자꾸 듣다 보면, 자꾸자꾸 읽다 보면, 자꾸 듣고 읽고 이럭하다 보면 '어, 그렇게 가는구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에게 많이 달려 있고 회사 직원들도 회장한테 많이 달려 있고 스님네들도 은사에게 많이 달려 있고, 허허허…. 여러 가지 마음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고,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과 정신계를, 내면세계를 완벽하게 굳혀서 아주 금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평등공법의 자유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거를 느껴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일체가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를 예로 들어 봅시다. 언젠가 다라가 하나도 없어서 '다라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김장은 해야겠고 다라가 없잖아?' 이랬어요, 그냥. 근데 그 이튿날 다라가 열 개가 들어왔어요.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다 대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부처라고 했죠.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신이고 화신이에요. 또 아프다고 그러면 약사가 되고 명이 짧다고 하면 칠성 부처가 되고 좋은 데로 못 갔다고 하면 지장이 되고, 한마음 속에서 전부 나오는 거지 지장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죄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 명이 부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부처는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공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중한 소립니까? 얼마나 무변한 소립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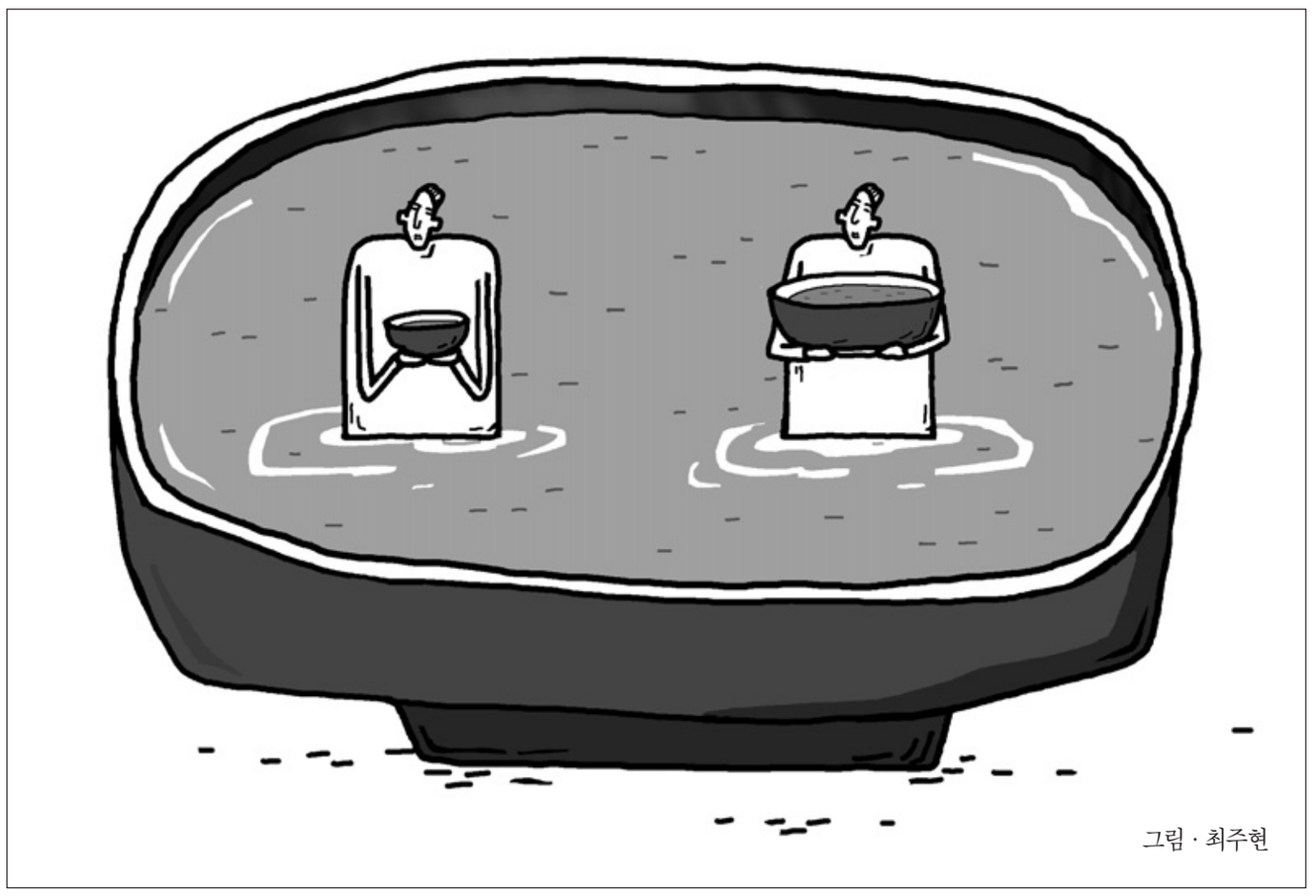
'너 나가 따로 없느니라. 바다를 삼켰다가 모든 만 중생들에게 토해 줄 때는 바로 작은 그릇도 내 그릇이요 큰 그릇도 내 그릇이니라. 큰 그릇에 담기려면 내가 들어가야 물이 담기고, 작은 그릇에 담기려면 내가 들어가야 물이 담기느니라. 돼지를 하나 건지고 개미를 하나 건진다 하더라도 개미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이 개미가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여서 개미를 건질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 이 세상 만물만생이 나 아님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어떤 것이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마음 가짐가짐에 따라서 지옥도 있는 거고 천당도 있는 거고, 순간 찰나찰나 돌아가느니라.' 그러니 부처라는 게 없는 게 부처예요. 부처라고 이름지어서 말할 수 없는 게 부처예요. 그리고 여래고요. 여러분이 여래의 집이 아닙니까?

자생중생들을 제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생중생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너 나가 따로 없이 하는 것이 항복받은 것입니다. 자생중생들부터 건지지 못하고는, 유마힐 거사도 "내 병이 나으려면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가 건강하게 나을 수 있겠다." 했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몸속에 그 생명들이 건재하게 작용을 해 주고 건강해야 자기 몸이 건강하지 아, 그것들이 쓰러지는데 내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뜻과 행과 말이 똑같아야 그것이 부처님 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의 진리와 생활 돌아가는 이치와 부처님의 뜻이 같이 돌아가야 부처님 법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죠. 거기서 하나라도 저촉된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법도 아니고 본래 여러분의 법도 아니죠.

여러분이 이 한생각을 지금 시발점에서 잘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이루고 내 자식을 기르면서도,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또는 형제간에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남의 탓을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현재 잘했든지 못했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자기 탓이지 어째 남의 탓입니까? 내가 나기 전에 그 사람이 생겼다고 할 때 그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오분향의 첫번째 '계향'도 마음의 계향이지 어떤 이론의 계향이 아닙니다. 첫째, 부처님께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은사나 사제 사형 모두에게 누가 되지 않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도리에서, 잘못됐든지 잘됐든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라. 남의 탓으로 절대 돌리지 마라. 내 탓으로 돌린다면 화목도 가져올 수 있고 질서도 가져올 수 있고 또는 자비도 가져올 수 있고 누가 되지 않게 할 수 있고 모두가 단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몸속에서도 생명체

☞ 26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권 선 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저희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 지원단에서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에 부처님과 불자를 위해 한생을 바치신 노스님들의 귀의처가 될 고승복지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하여 귀사찰, 암자 기도원에서 불필요한 폐초 및 불기를 수거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수거품 : 폐초, 파불상, 촛대, 향로, 제기, 불화, 공양미 등
복지 기금마련을 위하여 양초 판매하고 있사오니 협조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불교고승연합회 / 농협 1124-01-138620

= 자 비 실 천 =

■ 수거품이 있으실 때 연락주시면 방문 또는 택배업체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복지단에서 부담합니다)
■ 보내실곳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227번지 고승복지단(앞) 전화 031)764-3511 / 팩스 031)764-4711
■ 복지지원단에서는 스님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각종 애로 사항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지원단
단장 경천 배상

자생중생을 제도함도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어요

☞ 25면에서 계속

들이 단합이 되지 않고 너 나가 벌어진다면 그게 바로 간암이니 위암이니 뭐, 백혈이니 미친병이니 이런 게 나타나게 되죠. 이 몸뚱이 속 하나도 그런데 이 세상 세계를 볼 때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내 몸뚱이가 돌아가는 이치와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가 하나다 이 소립니다.

한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강도가 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인공에다 맡겨서 진실하다면, 내 싹이 몸이니까 뿌리에 진실하게 '아! 내 뿌리만이 할 수 있다.' 이런다면 아마 강도가 칼을 놓고 갈 겁니다. 자기가 자기 죽일 순 없거든요. 자기 손가락 하나가 자기 손가락 하나를 자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든지 마음에 의해서 몸은 움죽거리게 돼 있으니까요. 마음 없이 몸이 움죽거리게 되겠습니까? 앉았다가도 '아이구, 뭐 해야지.' 하고 일어나지 마음 없이 하실 수가 없겠지요. 마음을 내지 못하면 목석이니까 없는 거고 생명이 없으면 무효고 또 육신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이 세상이 벌어진 것은 나로부터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시고 그 뜻으로 "내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네 정신계의, 네 내면의 너 자체를 발견하라. 너 자체를 발견한다면 일체 내 마음도 네 마음이고 네 마음도 내 마음이니라. 둘이 아니니라. 그 둘이 아닌 도리를 알 수 있으리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천 년 전 부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명만 살아 있어도,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명만 살아 있어도 그 부처는 바로 삼천 년 전 부처가 아니라 내내, 삼천 년 전도 없고 삼천 년 후도 없고 이 세상에 난 게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어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여여하다 이 소립니다.

그 도리를 아시려면 여러분 자신부터 생각을 잘하세요.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내가 관습에 의해서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손을 봐야 이사를 가지. 산소를 파서 태워야 할 텐데 손을 봐서 어떻게 해야지.' 이러시는데 이 관습부터 버려야 됩니다. 또 '환갑을 지내야 될 텐데 날짜를 봐야지.' 이럽니다. 뭐가 그렇게 많은지. 지금 먹고 살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굴려서 구정물을 새 물로다 대치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뿌려진 거를 거둘 수밖에 없는,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신통이라고 했는데 "오신통도 도가 아니니라." 한 것은 뭐냐 하면, 다섯 가지의 그 통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온의 진리 속에서도, 아까 버스라고 그랬죠? 통이라면 그 통 안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 안에서 벗어나야 그 통을 굴리지 않겠느냐 이 소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길을 가다가 돌멩이 하나를 봐도 그냥 아무렇게나 보지 않습니다. 모두를 내 스승으로 봅니다.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를 누가 꺾는 것을 봐도 내 아픔같이 애절합니다. 그러나 사람사람이 차원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고 먹고…, 이 세상에 수억겁 전부터 인간이 진화되어 왔다는 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다른 식물도 나고 죽고 다 그랬지만 우리 인간이 될 때까지 진화된 그 자체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미생물로 태어나 물속에서 허덕거리며 먹히고 먹고 물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 교훈을 얻으면서 얼마나 뒹굴고 뒹굴어서 육지를 디뎠겠습니까?

그런데 육지를 디뎠다 하더라도 수억겁을 또 거쳐서 인간으로서 모습을 내밀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내밀어서 그 물속에서, 어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돼 가지고도 사람 노릇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다음 생에 또 그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개 한 마리가 밑이 빠져 가지고 그냥 피를 줄줄 흘리고 어쩔 수가 없이 살아가요. 원주 경찰서 옆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를 잠시 들렀다가 그 집 개를 봤어요.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속은 사람이었고 거죽은 개였어요. 내가 껄껄 웃으면서 "너, 개 모습을 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개 대접밖에는 못 받겠구나."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니까 개 대접밖에 못 받지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사람이면 사람 대접을 받고 개는 개 대접을 받을 수밖에요. 그래서 그 개더러 그랬죠. 한 수 일러주었어요. "너, 한생각이면 사람이 될 거야. 한 찰나야!" 하고요. 내 마음을 그 마음에 명경알처럼 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한 시간이 못 돼서 그 개는 죽어 버렸죠.

여러분이 모르실까 봐 또 한 수 얘기해 드리죠. 지나가는 소나 개라 할지라도 주인공에, 한 생각에 둘 아니게 넣어 준다면 그대로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자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소는 한 찰나에 인간으로 환생하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아프지도 않게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찰나의 환생이라는 게…. 그래서 "생사에도 끄달리지 말아라. 생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끄달리지 말아라. 여여하라.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영원한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찰나에 내가 바다를 다 삼킨다 하더라도, 일체 만물을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영에다가 영을 넣는다고 해서 두드러질 일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자세히 가르쳐 드리나? 허허허…. 만 개를 집어넣었다 십만 개를 집어넣었다 해도 영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느니라.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자세히 가르쳐 드린다면, 마음을 쥘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름해서 영이라고 해 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소의 영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소가 아니에요. 영, 영입니다. 소가 수십 마리 있는데 수십 마리의 근본을 내 근본에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구! 여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무슨 병이라고 내보내면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 보라고 하고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올 때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이 지극하면 전깃줄과 전깃줄이 맞닿는 순간에 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너도 한 게 아니고 나도 한 게 아니다. 이게 부처님 법이다.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네가 했다고 할 수도 없다. 내가 없다면 너도 없고 네가 없으면 내가 없으니까 말이다." 이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소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 **네가 못났든 잘났든 무조건 뛰어넘어라**
> **점프를 해라**
> **믿는 마음이라면 그 통 안을 벗어날 수 있다**
> **진짜 너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제자들한테는 이럽니다. "네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너고 네가 나니까 무조건 뛰어넘어라. 점프를 해라. 믿는 마음이라면 그 통 안을 벗어날 수 있다. 진짜 감응이 된다. 진짜 너를 찾을 수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쉽다면 쉽고 아주 어렵다면 몇백 년을 가도 못 나옵니다. 지금 어느 스님한테서 화두를 받느니 뭐 어쩌느니 하는데, 예전 시절에는 화두를 받아서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너무 과학적으로 물질세계가 많이 발전이 돼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화두를 받아서 하려고 해도 겉돌아요. 본래 몰라야 하는 건데 아는 게 많으니까 이게 겉돌지요. 화두 받은 게 그냥 겉도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화두도 지금 다 간수를 못하는데 받은 화두를 또 간수를 하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걸 들고 끊어지지 않게 하느라고 쩔쩔매다 보면 10년, 20년 가기 아주 똑 참하죠. 허허허….

그럴 때 한편으로 볼 때는 딱하고 한편으로 볼 때는 '아휴! 천차만별이라더니 참 기가 막히구나. 우습구나.' 이런 생각이 날 때에는 고개를 돌리면서 빙그레 웃고 돌아설 때도 있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어쩔 바를 몰라서 남들 볼까 봐 감추고 고개를 돌릴 때도 많습니다. 나는요, 내일 죽는다 이따 죽는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겁이 안 납니다. 촌챙이가 된다 하더라도 겁이 안 납니다. 왜 겁이 안 나느냐? 권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가 닥쳐도 팔짱끼고 있지 겁을 안 냅니다. 그리고 참섭도 안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이 마음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항아리 속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얼른 쉽게 말해서 지혜롭게 마음을 굴려서 잘 응용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생활 속에서 남편이 잘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해서 미워하고 바가지 긁고 그러지 마시고 아주 행동도 부드럽게 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면서 거기 맡겨 놓으세요. 아, 백년가약을 한 친구로 만났는데, 친구로 캠핑을 와서 지금 한바탕 놀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그뿐이거든요. 그러니 아주 부드럽게 말도 하고 행도 하면서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그렇게 해 주란 말입니다. 또 남편도 역시 부인한테 그렇게 하고요.

나는 지금 남편이 어떠한 문제로나, 부인도 어떠한 문제로나 남의 여자를 보고 남의 남편을 보고 이럭하는 사람들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면서 그 후에 알았던 건데, 곤충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습이 돼 있어요, 아주. 허허허…. 그래 가지고 발목이 묶여 가지고 그 습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냥 새끼를 만 개도 낳고 천 개도 낳고 그저 열 개도 낳고 그러면서 그냥 세세생생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항아리 속에 갇혀서 말입니다. 그러니 못났든 잘났든 내가 하나 정했으면 정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요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다가 가겠습니까? 요 모습을 가지고 백 년을 살겠습니까, 천 년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는 그 찰나에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데 아니, 어떡하자고 그렇게 삽니까. 한 생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해 가지고 자기가 진짜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그런 습은 좀 버리시고 여러분이 참 답게 참인생을 살고 진짜 자비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삼촌 산소 깎아 버리듯 그냥 건둥건둥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침착하게 생각하셔서 바로 한생각으로, 얘기해 드린 거를 굴려서 큰 금덩어리의 빛을 만들든지, 우주를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서 그냥 한생각으로다가 크게 이루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자유이니까요.

※위 법문은 1994년 3월 27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염불당과 열반지 권선문

불초한 소승의 발우를 들고 원력을 세워
땅 한평 시주 권선을 펴는 바입니다.

경치와 기도터 아주 수려한 곳, 조그마한 토굴산방에서
혼자서 수행정진 하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기도도량 터이기에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염불당과 열반당을 건립하고져
전국에 계신 모든 불자님 원력으로 심히 동참 하심을
권선문을 펴는 바 입니다.

동참하신 이땅은 불교의 유산으로 영원히 남기고져
하오며 불자 제위님들과 다함께 원력을 모아 기도를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성불의길로 다함께 걸어 봅시다.
나무아미타불...

1인 1평 10만원 권선
땅부지(기도처) 3천평

입금하시고 집주소와 명단을 적어 주시면 천일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기도도량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기도하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 달마가 필요하신 분은 소승의 친필로 그려
기도드린것을 1점씩 보시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31-2 연꽃피는절 황봉 합장

033)342-2291. 010-8660-9449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 ·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50g 100g 330g
普茶 洱瑩 野生普洱茶 1996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www.다영보이.kr

원통 스님의
예불대참회문 DVD 특가 판매

원통스님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 성철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보성 스님을 전계사로 전계하였고, 1997년 정토원을 건립.

예불대참회문
대자비로 중생들을 어여삐보셔
대희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지심귀명례 금강상사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원통스님 예불대참회문 1 S E T : DVD 26개 52장

원순 스님의 몽산법어 DVD

▪원순스님 몽산법어 :
DVD 9장 100,000원

구 입 문의 : 불영TV 김봉환 010-8519-9279
02)2236-7209
http://www.bytv.kr 〈법보시用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 0502-337-0108/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불자 세상보기

종립대 신임 총장 취임에 부쳐



최용춘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최근 동국대 · 금강대를 비롯해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산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새 총장을 맞았다.

2008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편람을 보면 종교계가 설립한 대학은 128개교이다. 이 가운데 불교계가 세운 종립대학은 원불교를 포함한 12개교이다. 불교 종립학교의 수가 이웃종교에 비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부처님 사상을 널리 펴고 모든 분들을 이롭게 하고자 설립된 종립대학에 대한 사회의 평가도 그리 높지 않다. 우수한 수험생들이 종립대학을 선호하지 않고, 심지어 사회에서도 종립대학 졸업생들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부처님 사상에서 지혜를 얻어 기업을 경영해 이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를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종립학교 CEO는 건학이념을 구현한다는 의식이 있어야하고, 여기에 사무량심이 더해져야한다. 구성원들을 더 편안하게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한 그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그들에게 베푼 일에 대해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며 혹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대학의 최고책임자에게만 열린 마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미운 자를 용서하고 포용하며 함께 일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김구용 작가의 〈열국지〉를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다.

제환공이 관중을 문병해 묻기를 "과인은 장차 이 나라 정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겠소? 포숙아는 어떻소?"라고 물었다. 관중은 "포숙아는 군자여서 정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는 선악을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분명합니다. 선을 좋아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포숙아는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합니다. 이점이 포숙아가 정사를 맡을 수 없는 결점입니다"라고 답했다. 포숙아에게 상대를 해량할 수 있는 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학의 최고책임자라면 상대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원융과 화쟁으로 함께 걸을 수 있어야한다. 더욱이 학교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대학운영에 있어서는 부처님이 설한 승가법의 내용을 원용하면 대학발전의 초석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대학의 분야별 소임자를 위촉할 때 더욱 그러하다. 민주적 행정 운영과 협동을 기본으로 원칙에 입각해 분야별 학덕이 수승한 교수를 초빙해 연구 · 교육케 해야 한다.

건학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지도자는 목표와 방향이 확실하다. CEO중심의 계파를 두지 않고, 사심과 편견 없이 인재를 등용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전통을 계승하고, 전통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그 전통을 멸실시키지 아니하고 현실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열국지〉에서 관중은 제환공에게 "역아, 초, 개방 세 사람을 가까이 말라"고 조언했다. 제환공은 관중에게 "역아는 환공이 입맛이 없을 때 제 자식을 삶아서 바쳤고, 초는 자기 몸보다 과인의 몸을 더 귀하게 여겼고, 개방은 천승의 나라까지 버리고 과인에게 와서 신하로 있는데 이들을 멀리해야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관중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으나 역아는 제 자식을 죽였다. 그런 사람이 임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사람에게는 자기 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으나 초는 자기 몸을 천하게 취급했으니 그런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설명했다. 또, 개방은 천승의 나라보다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으니 이들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경고했다. 자식 사랑, 부모를 섬기는 효, 자존의 덕목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주위에는 역아, 초, 개방처럼 본인의 목적만을 위해 처신하는 자를 쉽게 볼 수 있다. 불교계 종립대학 지도자의 보살과 같은 공심(公心)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불교계 종립대학이 거듭 발전하려면 모든 구성원의 중지를 결집해 한마음으로, 민주적 방법으로 교육의 제여건을 개선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중한 고민 속에 하나하나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 할 수 있다.

사부대중 칼럼

살아있는 모든 것에 봄볕이 들기를



최수진
임용고시 준비생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연이어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꽁꽁 얼어간 듯 했다. 추운 날씨 말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든 사건들이 여럿 있었다. 그중에서도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사건은 경기 양주 고교생들의 개 연쇄 도살사건이었다. 그 뉴스를 듣자마자 나는 온 몸이 잔뜩 움츠러들며 경직되고 말았다. 학생들은 동물 중에서도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로 여겨지는 개를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 끝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 끔찍하고 슬플 따름이다.

나는 유별난 동물애호가도 아니고, 애완동물을 기르지도 않는다. 오히려 현대인들의 '애완동물'을 다루는 방식에 거부감마저 갖고 있다. 어째서 사람이 동물을 일방적으로 예뻐하며 먹이고 입히며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사람이 불특정의 동물에게 거부감을 갖거나 그것들이 인간보다 작다거나 인간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 위에 군림하거나, 그 생김새나 소리 따위에 일방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면서 동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인간이 동물보다 더 우위에 있는 우월한 개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들은 저마다의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각개의 종들은 서로 다른 진화의 과정과 속도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를 상대적으로 우월한 종과 열등한 종으로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소중함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 적자생존의 법칙을 들먹이며 결국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강한 것이 세상의 중심이자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결과일 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선택을 해야만 한다. 당장 눈앞에서 손에 쥘 수 있는 이득과 순간의 기쁨을 위해 가끔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잊기도 한다. 개를 학대하고 죽인 고교생들도 마찬가지였다. 놀이삼아, 재미삼아 개들을 묶고 찌르고 심지어 개에게 불까지 붙였다고 한다. 단지 순간의 재미를 위해서였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숨을 거두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귀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생명이다. 불교에 귀의한 출 · 재가자 모두가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규범 중 첫째가 불살생(不殺生)이다.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명은 고귀한 것인데 나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생명을 짓밟는 것이 옳은 일인지 굳이 물어보고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당연한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널려있다.

얼마 전 홍익대에서는 노조를 결성한 청소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자체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뻔 했다. 그런데 부당해고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는 미화원들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홍대 학생회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한겨울 추운 길바닥에서 학교를 상대로 시위를 해야 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했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개를 학대한 고교생들과 본인들의 학습권을 운운하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길 위에 나선 청소노동자들을 몰아내려 했던 홍대학생들의 모습이 뭐가 다른 것일까? 홍대학생들은 그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을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 머릿속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권리보다 자신들의 권리가 더 우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자신들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희생과 고통을 당연히 감내하라는 잔인한 짓을 했다.

거창하게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만물이 생명이고, 나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간단하다.

가혹한 추위는 이 정도면 충분히 겪었다. 이제 봄이 왔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가혹해지지 않기를 그들에게 따뜻한 볕이 들기를 바란다.

社說

신도 참여 기회 더 넓혀라

대중공사(大衆公事)는 승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위의 회의이다.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대중공사의 결정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을 갖는다.

조계종은 3월 12~19일 출가열반절 동안 '자성과 쇄신 5대 결사 신도 대중공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조계종은 신도 대중공사 기간 동안 매일 108배 정진을 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 등의 법문도 예정됐다. 행사에서는 수행 · 문화 · 생명 · 나눔 · 평화 결사에 대한 선언과 결의가 매일 같이 이어진다. 문화 · 나눔과 관련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계사 대중을 비롯한 중앙신도회 소속 신도조직 및 포교단체들의 참여도 약속됐다.

조계종의 의도대로라면 신도들은 8일간 계속되는 신도 대중공사를 통해 총무원이 주창하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를 이해 · 실천할 것이다. 선언되는 대중실천지침에 따라 생활 속 정진 분위기도 고양될 것이다. 하지만 평일을 포함해 꼬박 1주일 넘게 진행될 행사에 얼마나 많은 대중이 참여할까? 이번 행사에 얼마나 많은 사찰이 동참할 지도 의문이다.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다는 느낌,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름 붙인 대로 이것이 대중공사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진정한 대중공사가 되려면 결사와 관련한 의사결정 구조에, 적어도 실천지침만이라도 신도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성과 쇄신 결사가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개혁이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조계종의 이중플레이

조계종이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어 간다.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이 운동으로 불교계는 대변혁의 기회를 맞았다.

이명박 대통령 치적의 상징인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4대강 사업이 한창인 낙동강 낙단보 등에서 1080배 정진이 이어지고 있다. 원로의원스님 등 종단 구성원들의 잇단 지지 성명이 나왔고, 전국 교구본사마다 결의대회가 열리는 등 무던히도 애써왔다.

한발 더 나아가 3월 3일 정부예산 신청을 금지하는 종무지침까지 내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계종이 4월 임기만료 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추천에 문화재 관련 비전문가인 종책특별보좌관 2인을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겉으로는 문화재 관련 예산을 신청 말라는 종무지침을 종도들에게 내리면서, 정작 총무원에서는 문화재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추천된 종책특별보좌관 스님들이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전적으로 옳을 수만은 없다. 한 스님은 중앙에서 종무 요직에 오랜 기간 활동했던 경력이 있고, 한 스님은 주지로서 사찰 · 문화재 복원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무원은 이번 논란을 허투루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지금 조계종에 필요한 것은 실리보다는 명분이다. 아직도 국민 다수는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돼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시작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1. 교육과정
(1) 초급과정(3개월)
◆ 조석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각단불공
◆ 시달림
(2) 중급과정(3개월)
◆ 바라춤 : 요잡(막바라), 화의재, 사다라니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욕)
◆ 사물 : 태징,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가지게,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다게작법, 법고춤, 운심게작법, 괘불이운. [강주 : 지효스님]
2. 개강일시 : 2011년 3월 21일 개강
3.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 락 처 : 051)442-1818 / Fax 051)442-1817 010-2554-5582 (총무국장)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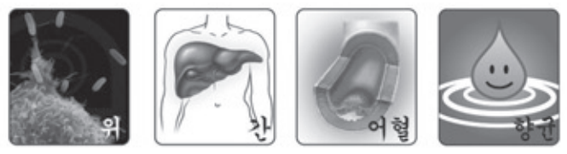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토종참옻은 우리 체질에 잘 맞으며,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어 아주 오래된 산삼의 효과를 능가한다고 하여 옛부터 한방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옛부터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이라 하였습니다.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저서 『구세심방』 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길러줘" (상지대 한의대 김명동교수)

수술중 마취에서 생긴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해 주는데 옻을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근육과 뼈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와 체육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체력증진 효과도 경험하였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두통, 피로와 설사에 사용하였고,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인한 양기부족에 참옻을 사용하여 발기부전의 치료효과가 매우 좋았다. 또한 30대 후반의 한 남성의 경우 여름에도 난로를 켜고 지내야 될 정도로 무릎이 시렸는데 참옻을 2개월 반정도 복용시키자 회복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임산부의 산후관절 시림증상을 치료하는데 응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본래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을걷이가 끝난 초겨울에 옻닭을 해먹고 부유한 층에서는 개 또는 흑염소를 넣어서 탕으로 먹었다. 왜냐하면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없애주며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토종참옻을 민간비법으로 활용하여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또한 시장이나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 하시는분들이 겨울에 옻을 복용하면 몸이 따뜻하고 손발이 따뜻하게 되어 내의를 한벌 덧입은 것 같이 몸이 훈훈하여 추위를 타지 않게 되어 한 겨울에도 감기몸살 걱정없이 건강하게 지낼수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영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12월 2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FDA 미국식품안전청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지정상품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쯤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파우치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일가족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3일째 아침에 숙변이 신형상에 반모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내려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2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먹던 수면제도 먹지 않고 잘 잘수있고 입맛도 좋아지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얼굴도 확 좋아져서 몸이 마치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나와 좋은 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담당의사도 놀란 간경화 수치의 정상화 최○○ 경기도 분당 60세/전직 아나운서

간경화 수치 1280 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다며 더 이상은 장담이 없어 퇴원한 후 오주아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장담이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8월경 TV 방송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망하여 복용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옻가네 참옻진액을 알게 되었고 복용한 지 3개월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담당의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병원을 3개월에 1번 정도씩 다니면서 혈액검사를 하였으며 혈액검사 수치는 점점 좋아져 지금은 정상수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경화 수치 1280 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다며 더 이상은 장담이 없어 퇴원한 후 오주아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장담이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8월경 TV 방송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망하여 복용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옻가네 참옻진액을 알게 되었고 복용한 지 3개월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담당의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병원을 3개월에 1번 정도씩 다니면서 혈액검사를 하였으며 혈액검사 수치는 점점 좋아져 지금은 정상수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경화 수치 1280 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다며 더 이상은 장담이 없어 퇴원한 후 오주아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장담이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8월경 TV 방송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망하여 복용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옻가네 참옻진액을 알게 되었고 복용한 지 3개월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담당의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병원을 3개월에 1번 정도씩 다니면서 혈액검사를 하였으며 혈액검사 수치는 점점 좋아져 지금은 정상수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웃분에게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다는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구입하여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혈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큰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을 마시면서 몸이 서서히 열이 나고 서서히 땀도 나고 아래에 변비에 시달리던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면 시원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0년동안 걱정 두려움도 없지 않고 갈은잠을 잘 수 있고 이제는 고기나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얼굴도 확 좋아져서 몸이 마치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나와 좋은 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잔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며 간편한 포장의 참옻잔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상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3~4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